차 례

머 리 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인류사회의 발전력사는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의 력사입니다.》

인류력사는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의 력사이다. 인민대중은 인류력사의 려명기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장구한 기간 사회적예속과 자연의 구속에서 자신을 해방하기 위한 투쟁을 끊임없이 벌려 력사를 창조하고 발전시켜왔다.

이 과정을 통하여 인류사회는 원시공동체사회로부터 노예사회, 봉건사회, 자본주의사회를 거쳐 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되는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우리 시대에 이르렀다.

중학교 3학년 《세계력사》에서는 인류발생의 첫 시기인 원시사회로부터 노예사회, 봉건사회를 거쳐 자본주의사회에 들어선 근대시기까지의 중요한 력사적사실과 내용을 서술하였다.

인류발생의 첫 시기 사람들은 원시공동체사회를 이루고 살았는데 원시시대에는 착취도 없었고 계급도, 국가도 없었다. 사람들은 다같이 평등하였으며 공동으로 일하고 생활하였다.

노예사회, 봉건사회, 자본주의사회에서는 노예주, 지주, 자본가계급이 국가주권과 기본생산수단을 틀어쥐고 피착취근로대중을 억압하고 착취하였다.

지난날 착취사회에서 근로인민대중은 자기의 지혜와 재능, 창조적로동으로 물질적 및 문화적재부를 창조하였으나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을 가지지 못한것으로 하여 그 향유자로 되지 못하고 오직 억압과 착취의 대상으로만 되였다.

그러므로 근로인민대중은 온갖 억압과 착취에서 벗어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기 위하여 압제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끊임없이 벌렸다.

인민대중의 자주적투쟁에 의하여 낡은 사회가 멸망하고 새 사회가 승리하는것은 사회발전의 법칙이다.

우리는《세계력사》에 대한 학습을 통하여 력사의 주체는 인민대중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창조적활동으로 사회가 개조되고 력사가 발전한다는 진리를 깊이 인식하고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자로 튼튼히 준비하여야 한다.

제1장. 고대국가들

제1절. 에짚트의 노예제국가

1. 노예제통일왕국의 형성과 멸망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애급은 오랜 력사를 가진 나라이며 고대인류문화의 발상지의 하나입니다.》

에짚트는 고대인류문화의 발상지의 하나이다.

고대에짚트는 아프리카의 동북부 닐강류역에 위치하였다.

닐강은 사람들에게 먹을 물을 대주고 관개용수를 보장함으로써 강류역에서 일찍부터 농업이 발전하게 하였다.

그러므로 닐강류역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촌락들을 이루었고 생산과 문화가 발전하였다.

고대에짚트에서는 이러한 부락들이 몇개씩 모여 점차 소국가(노모스)들을 형성하였다. 에짚트에는 B.C.3500∼B.C.3100년기에 이런 소국가가 약 40개나 있었다.

소국들사이에는 서로 토지와 노예를 빼앗으며 닐강의 관개치수에 대한 지배권을 장악하기 위한 전쟁이 오래동안 벌어졌다.

그 과정에 약한 소국들은 강한 소국들에 예속되여 여러개의 소국들을 통합한 북부왕국과 남부왕국이 형성되였다.

두 왕국사이에는 닐강류역에 대한 통일적인 지배권을 둘러싸고 오래동안 전쟁이 벌어졌다.

이 전쟁에서 남부왕국이 이김으로써 B.C.3000년경에 멤피스를 수도로 하는 통일적인 노예제왕국이 형성되였다.

고대에짚트에서 최고통치자는 전체 노예주들의 우두머리인 국왕이였다.

력대 에짚트왕들의 무제한한 권력은 수많은 노예와 농민들을 강제동원하여 피라미드와 스핑크스, 큰 사원들을 대대적으로 건설한데서 잘 나타났다.

국왕을 우두머리로 하는 통치배들은 노예와 농민들을 가혹하게 억압착취하였다.

당시 노예는 사람으로가 아니라 짐승이나 물건처럼 취급되였기때문에 노예를 셀 때는 몇명으로가 아니라 몇마리라고 불렀다.

왕을 비롯한 에짚트의 노예주들은 자기 나라 인민들을 억압착취하였을뿐아니라 더 많은 노예와 재부를 략탈하기 위하여 자주 침략전쟁을 벌리였다.

침략전쟁에서 얻은 수많은 노예와 재부의 대부분은 왕을 비롯한 노예주들이 가졌으며 그의 적지 않은 몫은 승려들에게도 분배되였다.

끊임없는 침략전쟁은 왕과 노예주들을 더욱 부유하게 하였으나 농민과 노예들에게는 더욱더 가난과 죽음만을 가져다주었다.

자주성을 무참히 짓밟힌 노예를 비롯한 인민들은 노예주귀족들을 반대하여 계속 폭동을 일으켰다.

그들은 노예주들의 집을 습격하거나 때로는 피라미드를 파괴하고 그속에서 왕의 미이라를 꺼내던지기도 하였다.

끊임없이 일어난 노예폭동에 의하여 점점 약화되고 쇠퇴몰락해가던 에짚트노예제왕국은 B.C.525년에 있은 페르샤(오늘의 이란)의 침략으로 멸망하고말았다.

2. 피라미드와 스핑크스

고대에짚트의 력대왕들은 저들의 권력을 시위하며 강화하려는데로부터 막대한 자재와 로력을 들여 큰 피라미드를 만들었다.

피라미드는 왕의 무덤으로서 그속에는 왕의 시체(미이라)를 넣어두었다. 에짚트에는 피라미드들이 많은데 지금 남아있는것중에서 제일 큰것은 까히라 서북쪽에 있는 헤오프스왕의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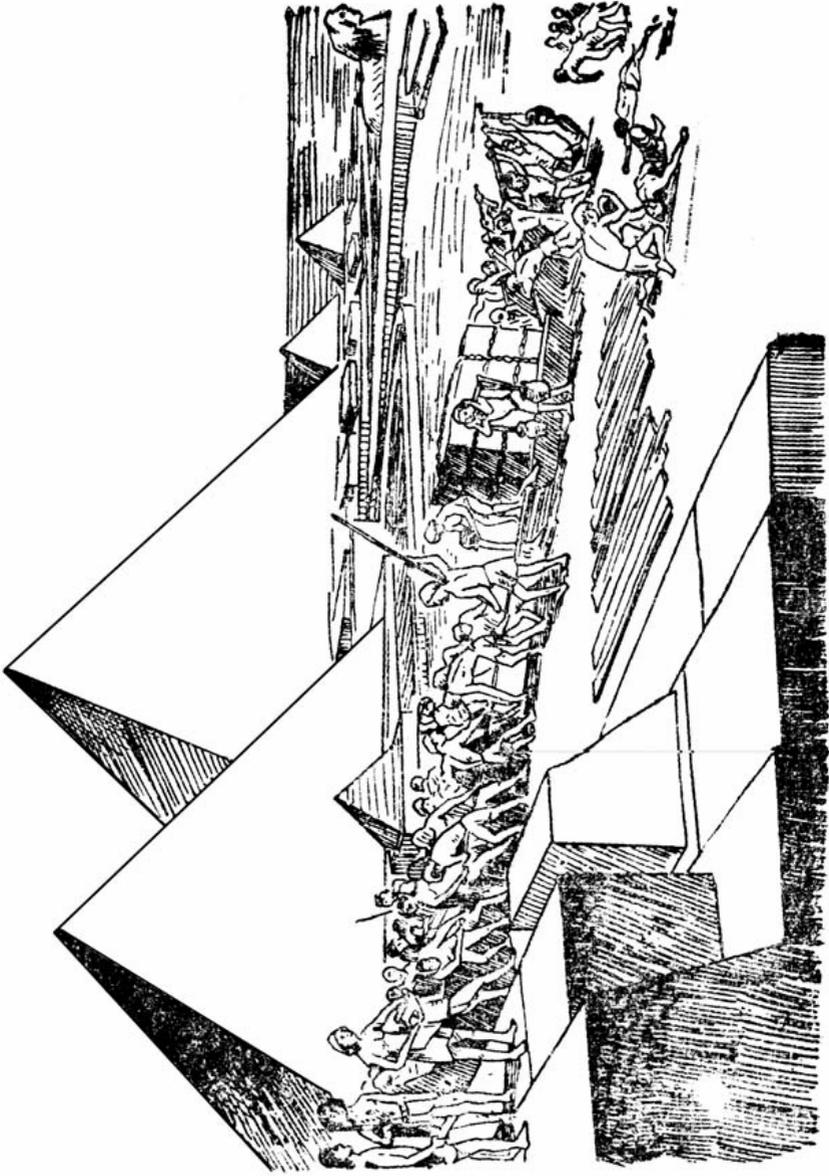
정4각추모양으로 된 이 피라미드는 B.C.2800년경에 세웠는데 당시 높이가 146m나 되였다.

이것을 세우는데 평균 2.5t씩 되게 다듬은 돌이 약 230만개나 들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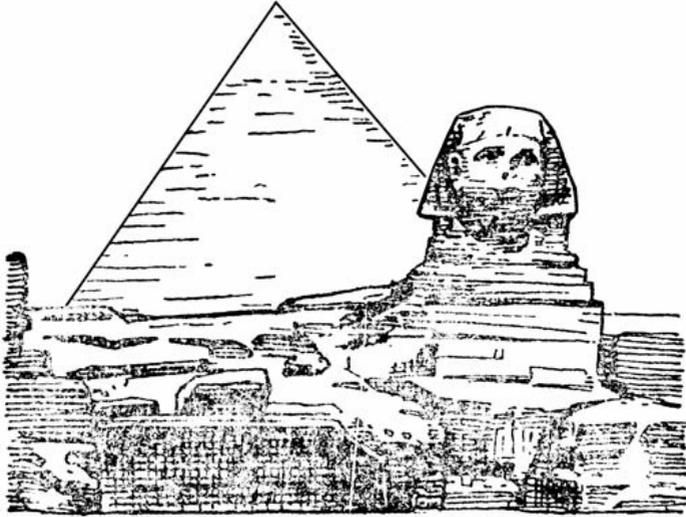
안의 구조는 왕과 왕비의 주검칸과 보물칸 그리고 복도로 되여있다. 나드는 문은 밀페시키거나 은페시켜놓았다.

력사기록에 의하면 이 피라미드를 세우기 위하여 돌나르는 길을 닦는데만도 1년에 3달씩 교대로 10만명이 동원되여 10년이 걸렸고 지하실을 만드는데 10년, 피라미드를 세우는데 20년이 걸렸다고 한다.

어떤 피라미드앞에는 사람얼굴에 사자의 몸뚱이를 가진 괴물을 형상한 돌조각상이 있는데 이것을 스핑크스라고 한다.

가장 큰것은 하프라왕의 피라미드앞에 있는것인데 그 높이는 약 20m, 얼굴너비는 약 4m, 길이는 약 70m나 된다.

피라미드건설

스핑크스를 괴물형태로 만든것은 국왕의 위엄과 신비성, 절대적 권력을 시위하며 또 피라미드를 《호위》하기 위한것이였다.

피라미드와 스핑크스

피라미드와 스핑크스의 건설을 위하여 수백만의 노예와 농민들이 강제로 끌려나와 무더위속에서 고역에 시달렸다.

힘겨운 로동과 굶주림으로 하여 죽는 사람이 이루 헤아릴수 없이 많았다.

에짚트에 세워진 피라미드와 스핑크스들은 왕과 노예주들의 포악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당시 건설규모의 방대성과 높은 돌가공기술을 보여주는것으로 하여 고대인류의 기술문화수준을 보여주는 력사적유물로 되고있다.

※ 인디안의 피라미드

피라미드는 에짚트에만 있는것이 아니라 세계 여러 지역에 그 크기와 형식이 다른 수많은 피라미드가 있다.

인디안(아메리카 원주민)의 피라미드는 에짚트의것처럼 무덤이 아니라 태양 또는 달을 제사지내던 곳이다.

여러단으로 된 이 피라미드는 우로 올라가면서 점차적으로 좁게 여러단의 흙언덕을 쌓고 돌로 오르내리는 계단을 쌓았다. 마지막단우에는 신전을 지어 제사를 지냈다. 그중 유명한것이 메히꼬에 있는 태양피라미드이다.

태양피라미드는 밑변의 길이가 200m나 되는 웅장한 유적이다.

이러한 인디안의 피라미드제단들에서 제사를 지낼 때에 노예주들은 흔히 산노예들의 심장을 도려내여 제물로 바쳤는데 어떤 때에는 한꺼번에 2만명의 노예들의 심장을 제물로 바친 일도 있었다고 한다.

※ 세계에서 가장 큰 피라미드의 비밀

최근 중국의 티베트자치구의 깊은 산속에서 돌을 계단모양으로 쌓아올려서 만든 세계 최대규모의 피라미드를 발견하였다고 한다.

이곳에 있는 피라미드들은 100개가 넘는데 그것을 중심으로 하여 고대건축물들도 있었다고 한다.

제일 큰 피라미드는 높이가 180m로서 에짚트의 가장 큰 피라미드에 비하여 30여m 더 높다고 한다.

이 피라미드의 나이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며 누가, 언제, 왜 이러한 피라미드를 건설하였는지도 아직 해명하지 못하고있다.

제2절. 인디아의 노예제국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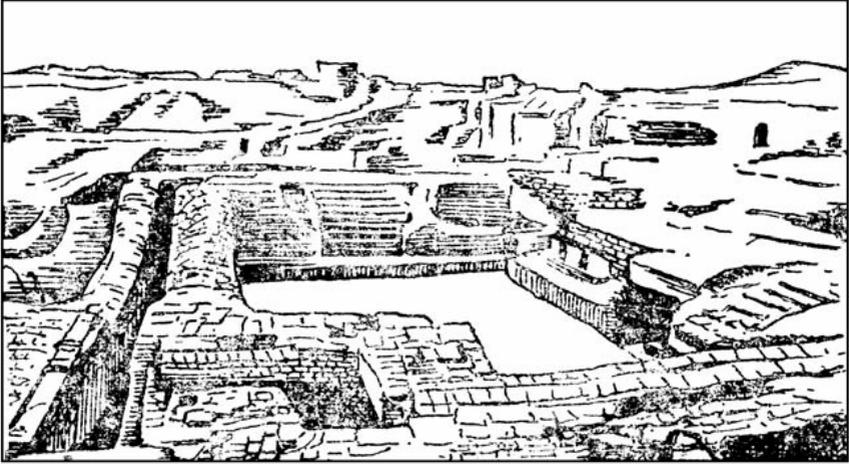
1. 인두스문화

고대인디아는 아시아남부에 위치하였다.

고대인디아의 서북쪽 인두스강류역에서는 닐강류역(에짚트)이나 서남아시아지역보다 조금 뒤늦게 인류문화가 발전하였는데 이를 인두스문화 또는 하라파문화라고 한다.

인디아에서 가장 오랜 이 문화는 B.C.30세기 중엽부터 B.C.16세기경까지의것이다.

인두스강류역에서는 일찍부터 관개농업이 진행되면서 첫 노예제국가가 형성되고 도시문화가 발전하였다.

인두스문화의 대표적인 유적은 1920년대에 발굴된 도시유적인 모헨죠 다로(죽음의 언덕)유적과 하라파유적이다. (오늘은 이 지역이 인디아에서 분리된 파키스탄의 령역으로 되였다.)

모헨죠 다로유적

이 유적들은 먼 옛날 이곳에 큰 도시가 형성되여 발전해왔다는것을 보여준다.

인두스강기슭에 있는 모헨죠 다로유적은 사방 1.6km 넓이에서 고대도시의 전모를 찾아볼수 있게 한다.

여기에는 약 10m의 폭을 가진 큰 도로가 동서, 남북으로 뻗어있다.

길 량쪽에는 벽돌로 지은 장방형의 집자리들이 있고 서쪽에는 주로 공공건물들과 고관들의 살림집이 있었는데 여기에는 세탁장, 목욕탕뿐아니라 사기로 만든 하수도관까지 있었다.

또한 곡물창고, 광장, 궁전, 절간들과 그 주변에 오막살이들이 널려져있었다.

이밖에도 여기서는 청동으로 만든 여러가지 물건들과 상형문자들이 새겨진 도장과 조각상들도 나왔다.

하라파유적도 인두스문화의 도시유적이다.

이곳은 구운 벽돌로 쌓은 높이 15m에 달하는 성벽으로 둘러싸여있다.

성안에는 도로들이 직선으로 나있고 귀족들의 집자리가 있다.

성밖에는 식량창고, 제분공장, 일반주민들의 집자리가 있다.

이것은 인두스강류역에서 그때 계급과 국가가 존재하였음을 보여주고있다.

인두스문화가 몰락한 후 인디아의 고대문화는 강가강류역으로 옮겨졌다.

2. 바르나제도와 불교

바르나제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노예사회와 봉건사회에서 지배계급은 사람들을 크게 특권신분과 피지배신분으로 가르고 그것을 법적으로 고착시켜 대대로 세습시켰습니다.》

고대인디아의 노예주계급은 저들의 재부와 정치적지배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엄격한 신분제도를 조작해냈다.

B.C.10세기에 노예주계급은 인디아의 모든 주민들을 4개의 계층으로 가르고 그들의 권리와 의무를 각각 규정해놓고 그것을 대대로 물려받게 하였다. 이것이 바르나제도였다.

《바르나》란 고대인디아말로 색갈 또는 등급을 의미하였다.

이 신분제도에서 제1계층은 승려귀족집단인 브라만, 제2계층은 군사귀족인 크샤트리, 제3계층은 농민, 수공업자, 상인들인 와이샤, 제4계층은 대부분 노예로 끌려온 슈드라였다.

브라만과 크샤트리는 노예주계급이며 착취계급이였다.

그중에서도 브라만은 특권신분으로서 모든 권리를 독차지하고 자기 아래의 신분계층을 억압착취하였다. 나이많은 크샤트리도 나어린 브라만을 만나면 절을 하며 그를 아버지처럼 섬겨야 하였다.

피착취계급에 속하는 와이샤는 평민으로서 브라만과 크샤트리에게 절대복종하고 그를 위해 복무할 의무만이 있었으며 슈드라는 아무런 권리도 없는 노예적처지에 있는 사람들이였다.

매개 계층은 음식과 옷도 정해진것을 먹고 입어야 하였으며 자기의 신분을 자손들에게도 그대로 물려주어야 하였다.

매 신분들사이에는 일체 교제, 접촉, 결혼 등이 엄격히 금지되였다.

낮은 신분은 높은 신분에 속한 사람에게 무조건 복종하게 되여있었다.

최하층신분인 슈드라의 처지는 노예와 같이 비참하였다.

그들은 제일 힘든 일과 《천한 일》에 종사할 의무만이 있었다.

사회적으로 슈드라는 《더러운 인간》으로 간주되여 극도로 천시되였다.

만일 슈드라가 브라만이나 크샤트리를 비웃거나 손가락질하였을 경우에는 그의 손을 잘라버렸다. 이러한 바르나제도는 인디아노예주계급이 저들의 계급적지배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얼마나 교활하고 악독하게 인민대중을 억압하였는가를 잘 보여주고있다.

바르나제도는 고대나 중세는 물론 근대에 이르기까지도 본질상 큰 차이없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인디아사회발전에 막대한 해독을 끼쳤다.

불교의 발생

고대인디아에서는 B.C.6세기경에 불교가 발생하였다.

불교는 현재의 네팔왕국의 남부에 있던 석가국의 왕자 가우따마 싯다르타(일명 석가모니)가 창시했다고 전해지고있다.

석가모니란 석가국의 현명한 사람(무니)이란 뜻이다.

불교는 모든 사람은 자기의 처지에 대한 불만과 그것을 개선하려는 그 어떤 욕망도 가져서는 안되며 살아있는 동안 모든 고통을 참고 오직 순종하는 사람만이 죽어서 《극락세계》에 갈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지옥》에 가서 무서운 고통을 당한다고 하였다.

불교는 인민대중의 투쟁의식을 무디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인디아의 노예주계급의 리익을 위하여 적극 복무하였다.

석가모니는 40여년동안 인디아각지를 돌아다니면서 많은 절간들을 세우고 자기의 불교교리를 설교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신자로 만들었다.

그후 불교는 더욱더 확대되여 인디아는 물론 몽골, 먄마, 타이, 캄보쟈, 웰남 및 인도네시아의 여러 섬들에 퍼지였으며 중국을 거쳐 우리 나라와 일본에도 전파되여 력사발전에 큰 해독을 끼치였다.

※ 《극락세계》와 《지옥》

불교는 사람이 죽으면 몸은 비록 없어지지만 《령혼》은 그대로 있는데 그것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가 하는것은 살아있을 때 한 행동에 따라 결정된다는것이다. 말하자면 인간세계에는 《전세》, 《현세》, 《후세》가 있는데 사람이 부유하고 가난하며 기쁘고 슬픈 모든것 즉 잘살거나 못사는것은 《전세》에 어떻게 행동하였는가에 따라 결정된다는것이다.

또 현재 《착한 일》을 한 사람이 죽은 다음에도 그 《령혼》이 만복을 누리는 《극락세계》에 간다는것이다.

만일 노예나 가난한 사람이 자기 처지를 개선하기 위하여 부자들을 반대하여 투쟁한다면 이것은 《죄악》으로 되기때문에 죽은 후에도 《염라대왕》이 지배하는 《지옥》에 가서 무서운 고통을 당한다고 설교한다.

불교의 이 허황한 교리는 결국 피착취근로대중이 착취계급을 반대하여 싸울것이 아니라 그들의 온갖 착취와 억압을 공순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반동적목적을 추구한것이였다.

제3절. 주 나 라

주나라는 고대중국에 존재한 노예소유자국가였다.

우리 나라와 국경을 접하고있는 중국은 아시아대륙 동쪽에 위치하고있다.

중국의 황하류역도 인류문화발상지의 하나로서 오랜 옛날부터 인류문명이 시작된 곳이다.

중국사람들은 오래전부터 황하류역에 살면서 원시공동체사회를 거쳐 점차 계급국가를 형성하였다.

주나라가 서기 전에 중국의 황하류역에는 하나라와 상나라가 있었다.

하나라는 B.C.21세기에 세워진 중국의 첫 노예제국가였다.

하나라가 400년간 존재하다가 멸망한 다음에 그뒤를 이어 약 600년간 상나라가 존재하였다.

B.C.11세기에 섬서와 감숙지방에서 살던 주족이 상나라를 공격하여 그를 멸망시키고 호경(서안)을 수도로 한 주나라를 세웠다.

주나라 왕은 자기 친척들과 나라를 세우는데 공을 세운 신하들에게 각 지방의 땅을 나누어주고 그 지방을 통치하게 하였다.

이러한 지방통치자를 제후라고 하며 그들이 다스리는 지역을 제후국이라고 한다.

주나라에는 제후국이 약 70개나 있었다.

왕과 제후들은 관료들을 거느리고 농민들과 노예들을 가혹하게 착취하였다.

주나라의 통치배들은 략탈적인 정복전쟁과정에 다른 지역 인민들을 노예로 만들었다.

통치배들은 《죄》를 진 사람뿐아니라 그의 가족까지도 노예로 만들었는데 이것을 형벌노예라고 한다.

노예들은 짐승이나 물건처럼 취급되였다.

당시 기록에는 《말 한필과 실 한꾸리를 노예 5명과 바꾸었다.》고 한것이 있다.

울분을 누를길 없던 노예들은 B.C.841년에 폭동을 일으켜 왕궁을 들이치고 왕을 내쫓았다.

이에 질겁한 주나라의 통치배들은 14년동안이나 왕을 내세우지 못하였다.

지배층안에서도 추악한 정권쟁탈전이 계속되여 주나라의 국력은 몹시 약화되였다.

이러한 때인 B.C.771년에 주변의 종족들이 주나라의 수도 호경에 침입하여 왕까지 죽였다.

그리하여 다음해에 왕이 된 평왕은 부득불 수도를 동쪽의 락양으로 옮겼는데 그때부터의 주나라를 동주라고 하고 이전 시기의 주나라를 서주라고 한다.

동주시기 후반기에 노예주들은 점차 토지없는 농민들과 노예들에게 자기 땅을 소작주기 시작하였는데 이것은 노예사회로부터 봉건사회로 넘어가고있었다는것을 의미하였다.

이 시기에 제후들간의 패권다툼과 함께 근로인민대중과 착취계급사이의 치렬한 계급투쟁이 계속되였다.

바로 이러한 혼란기에 공자를 비롯한 노예주귀족들은 기울어져가는 노예제도를 바로잡고 인민대중의 반항의식을 무디게 할 목적으로 유교를 조작해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한때 불교와 유교는 하나의 사조로서 세계에 널리 퍼졌습니다.》

중국노예주계급에 의하여 조작된 유교는 오랜 력사적기간 하나의 사조로서 중국은 물론 우리 나라와 일본 등 세계 여러 나라들에 전파되였다.

유교는 B.C.6세기 공자에 의하여 발생하였다.

유교는 그후 맹자에 의하여 더욱 보충되였다.

유교는 우선 《하늘》에 대한 맹목적인 숭배를 설교하고 왕을 《하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신비화하였다.

이것은 결국 왕과 그의 주권을 절대화하고 인민들을 착취계급의 국가통치에 철저히 복종시키려는 반동적목적을 추구한것이였다.

유교내용에서 중요한것은 3강5륜이다.

3강이란《사람이 지켜야 할 세가지 도리》라는 뜻으로서 왕과 신하, 부모와 자식, 남편과 안해사이에 지켜야 할 도덕규범이였다. 다시말하여 신하는 왕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처는 남편에게 절대복종해야 한다는것이다.

5륜은 왕과 신하사이에는 의리가 있어야 하고 웃사람과 아래사람사이에는 순차가 있어야 하며 남편과 안해사이에는 차별이 있어야 한다는 등으로 꾸며낸 《다섯가지 륜리도덕》이였다.

《3강5륜》, 이것은 교활한 착취계급이 이른바 《도덕》을 내세우면서 제놈들의 국가통치에 반항하는 근로인민대중을 절대복종시키려는 반동적목적을 추구하여 조작해낸것이였다.

유교에서는 특히 녀성들을 극도로 멸시하고 천시하였다. 유교는 녀자들이 태여나면 아버지에게 절대복종하고 시집가면 남편에게 무조건 순종하며 남편이 죽은 후에는 아들에게 맹목적으로 추종해야 한다는 남존녀비사상을 강요하였다.

이와 같이 유교는 발생한 초기부터 근로인민대중의 계급적각성과 투쟁의식을 마비시키기 위한 반동적착취계급의 사상적도구로, 정치적수단으로 리용되였다.

유교는 중국에서 B.C.2세기 중엽에 국교로 선포된 때로부터 2000여년동안이나 봉건지배계급의 정통사상으로 복무하면서 사회력사발전에 막대한 해독을 끼쳤다.

제4절. 스파르타와 아테네국가, 그리스-페르샤전쟁

1. 스파르타와 아테네국가

유럽대륙의 발칸반도에 위치한 그리스에는 고대시기 많은 도시국가들이 있었다. 도시국가는 도시를 중심으로 하고 그 주변은 농촌지대로 이루어졌다.

대표적인 도시국가는 스파르타와 아테네였다.

스파르타에서 모든 권력은 노예주대표들로 이루어진 《원로원》과 《감독관회의》가 틀어쥐고있었다.

특히 5명으로 된 《감독관회의》는 왕까지 사형할수 있는 절대적권한을 가지고 무자비한 독재정치를 실시하였다.

스파르타에는 지배계급과 평민, 노예 등 3개의 신분층이 있었다.

지배계급인 스파르티아트는 다른 일은 하지 않고 오직 군사훈련과 군사복무가 기본직업이였다.

평민인 페리에키는 농업, 수공업,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전쟁시기에 민병으로 동원되여야 하였다.

노예인 헬로트는 주로 피정복민으로서 제일 힘든 일과 농업에 종사하였다. 스파르타의 노예들은 다른 나라 노예들과는 달리 개별적귀족들의 소유가 아니라 전체 스파르티아트들의 공동소유로 되여있었다.

스파르타에서 교육은 철저한 군사교육뿐이였다.

학교에서는 책읽기와 글쓰기는 거의나 배우지 않고 주로 육체단련, 명령에 대한 복종심과 참을성, 인내성만을 배양시켰다.

스파르타에서 아이들은 7살부터 어머니품에서 떨어져나와 기숙학교에서 무술, 경기훈련, 복종심과 명예의식으로 교육받고 20살부터 30살까지 군사복무를 하였다.

이리하여 스파르타는 군사적으로는 강하였으나 문화적으로는 가장 뒤떨어진 나라로 되였다.

또한 고대그리스력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것은 아테네였다.

아테네노예제국가는 B.C.8～B.C.6세기에 세워졌다.

아테네에도 귀족과 평민, 노예의 세 신분층이 있었다.

처음에는 왕이 있었으나 곧 왕권은 페지되고 귀족들가운데서 선발된 9명의 집정관들이 정치를 하였다.

귀족은 군대에서 주력을 이루었으며 정치에서도 실권을 쥐고있었다.

그러나 수공업과 상업이 발전함에 따라 평민들속에서 부유한자들이 나오면서 점차 평민세력이 강화되였다.

반면에 령락된 평민들속에서는 빚때문에 노예로 된 사람들도 많이 나타났다.

귀족들의 세력에 맞서 강한 세력으로 등장한 부유한 평민들은 저들도 정치에 참가할 권리를 요구해나섰다.

B.C.594년에 집정관으로 된 솔론은 평민세력의 압력으로 일련의 개혁을 실시하여 부유한 평민들의 요구에 양보하였다.

솔론의 개혁에 의하여 정치에 참가할수 있게 된 부유한 평민들은 귀족과 함께 점차 노예주계급, 지배계급으로 되였다. 이리하여 B.C.6세기말에 아테네노예제공화국이 세워졌다.

2. 그리스－페르샤전쟁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어떤 계급이나 국가가 다른 나라와 민족의 리익을 침해하거나 다른 나라 인민을 억압하고 지배하기 위하여 벌리는 전쟁은 다 부정의의 전쟁입니다.》

그리스－페르샤전쟁은 두 나라가 다같이 자기들의 침략적, 략탈적목적을 추구한 부정의의 전쟁이였다.

B.C.6세기 큰 제국을 형성한 페르샤(이란)가 그리스도시국가들을 정복하려고 달려들었다.

그리스도 역시 소아시아지역을 차지하려는 야심으로부터 페르샤에 대항하였다.

그리하여 그리스－페르샤전쟁이 일어났다.

B.C.490년 페르샤는 10만명의 대군으로 에게해를 가로질러 마라톤벌에 상륙하였다. 이때 그리스에서는 약 1만명의 아테네군이 침략자들과 맞서게 되였다.

9월 13일에 마라톤전투가 벌어졌다.

아테네군은 일선형으로 전투대형을 짓고 그 량측에는 강한 중무장보병을 배치하였다.

전투가 시작되자 아테네군의 가운데에 있던 전투서렬이 퇴각하는

척 하면서 뒤로 물러섰다.

퇴각하는 아테네군을 따라 페르샤군은 포위환에 깊숙이 들어섰다.

이때 량측에서 대기하고있던 아테네 중무장보병이 강한 타격을 들이대였다.

불의적인 공격을 받은 페르샤군은 활도 쏘아보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다가 도망치고말았다.

전투는 아테네군의 승리로 끝났다.

마라톤전투의 승리소식을 알리기 위하여 련락병 피디피데스는 아테네까지 42km 남짓한 거리를 단숨에 달려갔다. 그는 아테네성문을 두드리면서《우리 군대가 이겼다!》라고 웨치고 그 자리에서 숨졌다.

이때부터 그리스에서는 4년에 한번씩 열리는 올림피아경기에서 그 병사를 추억하여 마라손경기를 정식 경기종목으로 설정하였다.

그후 전쟁은 10년간 중지되였다가 B.C. 480년에 다시 시작되였다.

페르샤왕은 170만의 보병과 8만의 기병, 1 200여척의 함선과 그밖의 수많은 후방부대를 거느리고 바다와 륙지로부터 그리스를 공격하여왔다.

위기에 빠진 그리스의 도시국가들은 반페르샤동맹을 무었다.

해군은 아테네가 담당하였고 륙군은 주로 스파르타가 맡아 페르샤군에 대항하였다.

스파르타왕이 지휘하는 그리스군과 페르샤군과의 격전이 테르모필레고개에서 벌어졌다. 이 고개는 북부그리스에서 중부그리스로 통하는 유일한 통로였다.

300명밖에 안되는 스파르타군은 력량상 우세한 페르샤군에 대항하여 용감히 싸웠다.

스파르타병사들은 마지막 한 사람이 남을 때까지 용감히 싸웠으나 적을 막아내지 못하였다.

테르모필레고개를 넘어선 페르샤군은 아테네에 침입하여 도시와 마을들을 략탈하고 불살라버렸다.

B.C.480년에 살라미스해에서 격전이 벌어졌다.

아테네의 작은 함선들은 크고 동작이 굼뜬 페르샤함선들을 살라미스의 좁은 해협으로 유인하여 참패를 주었다. 결과 수백척의 페르샤함선들이 물속에 가라앉았다. 바다싸움의 승리에서 신심을 얻은 그리스의 륙군도 도처에서 페르샤군대에게 큰 타격을 가하였다.

결국 B.C.449년에 전쟁은 그리스의 승리로 끝났다.

※ 알렉산드로스의 동방원정과 헬레니즘시기

알렉산드로스는 고대유럽세계에서 대표적인 침략자로 널리 알려져있다.
B.C.4세기 아버지의 뒤를 이어 마께도니아의 왕으로 된 알렉산드로스는 20살 때부터 동방나라들을 정복하기 위한 침략전쟁에 나섰다.
그는 마께도니아－그리스련합군을 이끌고 소아시아를 점령한 후 페르샤(이란)의 다리우스3세가 이끈 페르샤군을 격파하고 중앙아시아까지 진출하면서 여러 왕국들을 정복하였다.그후 인디아의 인두스강류역까지 침입하였다가 쫓겨났다. 그는 정복지역에 대노예제왕국을 세웠는데 그것을 알렉산드로스제국이라고 한다. 이 제국의 령토는 서쪽의 그리스로부터 동쪽의 인두스강류역까지 이르고있었다.
33살에 알렉산드로스가 열병으로 죽은 후 B.C.3세기에 알렉산드로스제국은 에짚트, 수리아, 마께도니아로 분렬되였다.
렉산드로스의 동방원정으로부터 그후 약 300년간 동방의 발전된 문화가 고대그리스를 비롯한 유럽나라들의 력사발전에 큰 영향을 주었는데 이를 력사에서 헬레니즘시기라고 한다.
이 시기 그리스문화와 동방문화가 결합된 헬레니즘문화가 이루어졌는데 그 중심지는 에짚트의 알렉산드리아(알렉산드로스의 이름에서 유래)로서 특히 자연과학이 발전하였다.
헬레니즘시기에 알렉산드리아를 중심으로 한 지역에 큰 도서관과 박물관, 연구기관 등 많은 과학문화기관들이 생겨나 헬레니즘문화를 발전시켰다.
바로 이 시기에 고대의 유명한 수학자이며 물리학자인 아르키메데스, 기하학의 창시자 유클리트와 같은 유명한 학자들이 활동하였다.

제5절. 로마제국, 스파르타쿠스노예폭동

1. 로마노예제공화국의 수립과 령토확대

유럽에서 그리스의 뒤를 이어 문화가 발전한 곳은 로마였다.

고대로마국가는 이딸리아의 아뻬닌반도에 있는 띠베르강 하류지역에서 형성되였다.

로마도시국가가 형성된 시기는 B.C.7세기경이다.

처음에는 왕이 통치하였으나 B.C.6세기에 왕권이 페지되고 공화정치가 실시되였다.

로마에서도 이 시기 아테네국가에서와 같이 귀족과 평민간의 투쟁이 기본을 이루고있었다.

평민들은 귀족과 같이 정치에 참가할 권리를 요구하여 끊임없는 투쟁을 벌리였다. 그 결과 B.C.5세기초에 호민관제도가 나오게 되였다.

호민관은 평민의 리익을 옹호하는 관리였다.

이리하여 귀족을 반대하는 평민들의 투쟁은 기본적으로 끝나고 량자간의 신분상 차이는 없어졌다.

그러나 귀족과 평민간의 정치적평등권은 부유한 평민들에게만 차례졌다.

부유한 평민들은 귀족과 함께 새로운 노예주계급으로 되였다. 이것이 공화정치의 시작이였다.

B.C.3세기경에 수립되였던 노예제공화국은 B.C.1세기에 이르러 점차 몰락하고 군주독재가 수립되였다.

이 시기 로마통치배들은 대대적인 침략전쟁을 감행하여 부단히 령토를 확대하였다.

로마침략자들은 1~2세기에 브리타니아(영국)를 비롯한 여러 지역을 정복하였으며 다치아(로므니아), 아라비아, 수리아, 이라크 등 여러 나라들과 멀리 에짚트까지 점령하였다. 그리하여 지중해를 둘러싼 대제국을 수립하였다.

※ 고대의 군사전략가 한니발

한니발이라고 하면 오늘도 유럽에서 고대의 유명한 군사전략가로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있다.

한니발은 아프리카 북쪽연안에 있던 카르타고라는 크지 않은 나라의 군사령관이였다.
제2차 포에니전쟁(로마인들은 카르타고사람들을 포에니라고 불렀다.)때인 B.C.3세기에 한니발은 8만명의 보병과 1만 2 000명의 기병 37마리의 코끼리부대를 거느리고 에스빠냐를 떠나 이딸리아로 진격하였다. 험한 알프스산을 넘으면서 카르타고군은 막대한 희생을 냈다. 알프스산을 다 넘었을 때 한니발에게는 2만의 보병과 6 000명의 기병 그리고 3마리의 코끼리가 남았을뿐이였다. 그러나 그는 실망하지 않고 로마군을 격파하면서 진격해나갔다.
B.C.216년 카르타고군과 로마군간에 유명한 칸네전투가 벌어졌다.
칸네전투에서 한니발은 로마군 5만명을 죽이고 2만명을 포로하는 대승리를 거두었다.
칸네전투의 날은 고대로마에서 《가장 불행한 날》로 되였으며 한니발의 이름만 불러도 울던 아이가 울음을 그쳤다고 한다.
그후 한니발은 15년동안 이딸리아에서 싸우면서 로마통치배들을 공포에 몰아넣었다.
B.C.202년 로마함대가 카르타고본토에 쳐들어오자 카르타고통치배들은 로마에서 한니발을 소환하였다.
그 다음해 로마와의 전쟁에서 카르타고가 패하고 한니발도 자살하고말았다.

※ 로마공화정치와 케자르의 암살

B.C.1세기 중엽 로마에서는 공화정치(의회를 통하여 나라의 모든 문제를 결정하는 정치)대신에 독재정권을 세우려는자들이 나타났다. 그 대표적인물이 스파르타쿠스폭동을 진압하는 과정에 많은 군대와 재부를 가지게 된 크랏수스와 폼페이우스 그리고 귀족출신인 케자르였다.
그들은 처음에 서로의 세력균형이 엇비슷하였기때문에 할수없이 3인정치를 실시하였다.
그러다가 케자르가 다른 두 세력을 격파하고 모든 권력을 자기 수중에 장악하였다.
이 시기 모든 로마인들이 공화정치를 지지하고있었으므로 케자르는 자기의 개인독재정치를 정식 선포할수는 없었다.

그렇지만 케자르는 무제한한 권력을 거머쥐고 황제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독재자의 운명은 결코 오래갈수 없었다.

케자르가 황제가 되면 공화정치가 망하고 저들의 실권이 없어질것을 두려워한 로마원로원 의원(국회의원) 약 40명은 B.C.44년 3월 공모결탁하여 회의가 진행될 의사당안에서 저저마다 품속에서 칼을 꺼내들고 케자르를 찔렀다.

이들가운데는 평시에 케자르가 가장 믿고 아끼던 부하 브루투스도 있었다.

이것을 본 케자르는 쓰러지면서 《브루투스 그대도!》라는 말을 남기고 숨을 거두었다.(이 말은 그후 유럽문학계에서 믿었던 사람에게 배반당하였을 때의 감정으로 널리 쓰이였다.)

그후 케자르의 양자인 옥타비아누스가 공화정치지지자들을 모두 격파하고 군사독재자로 등장하였다. 이로써 B.C.30년에 고대로마공화정치는 종말을 고하였다.

2. 스파르타쿠스노예폭동

고대로마에서 가장 큰 노예폭동은 검투노예인 스파르타쿠스가 지휘한 폭동이였다.

로마의 노예들중에는 검투노예라는 특수한 노예들이 있었다.

노예주들은 건장하고 용맹스러운 노예들을 뽑아 검투노예학교에서 훈련을 시켰다. 검투노예들은 노예주들의 구경거리로 무대우에서 자기 동료들끼리 싸우거나 또는 사나운 맹수들과 싸우다가 죽어야 할 비참한 처지에 있는 노예들이였다.

때문에 검투노예들의 가슴속에서는 언제나 로마노예주들에 대한 증오심이 불타고있었다.

검투노예학교의 교원이면서 검투노예였던 스파르타쿠스는 동료들을 묶어세워 폭동을 준비하였다.

폭동은 B.C.74년 카푸아시에서 시작되였다.

스파르타쿠스는 적의 포위를 뚫고나온 74명의 검투노예들을 이끌고 베주비오산으로 들어갔다.

스파르타쿠스노예폭동

스파르타쿠스에 대한 소식이 전해지자 수많은 노예들은 베주비오산으로 들어와 폭동에 합세하였다.

폭동자들은 베주비오산을 포위하고있던 로마군대의 뒤통수를 후려갈겼다. 불의의 습격을 받은 로마군은 제대로 반항도 못하고 전부 녹아났다. 이것은 폭동군이 이룩한 첫 승리였다.

이딸리아의 여러 지역에서 수많은 노예와 농민들이 폭동군에 합류하였다. 그리하여 그 수는 12만명으로 늘어났다. 폭동군은 로마정부군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듭하였다.

당시 로마통치배들은 싸우다 도망치는 부대들에 대해서는 10명당 1명씩 사형에 처하였는데 이렇게 죽은 로마군의 수만도 수천명에 달하였다고 한다.

B.C.71년 아폴리아에서 폭동군과 정부군간의 최후결전이 벌어졌다. 정부군은 폭동군보다 수적으로도 많고 무장도 훨씬 좋았다.

스파르타쿠스는 대오를 이끌고 적진으로 돌진하였으나 포위망을 돌파하지 못하였다. 스파르타쿠스는 마지막까지 싸우다가 전사하였다.

이 전투에서 폭동군은 6만명이 희생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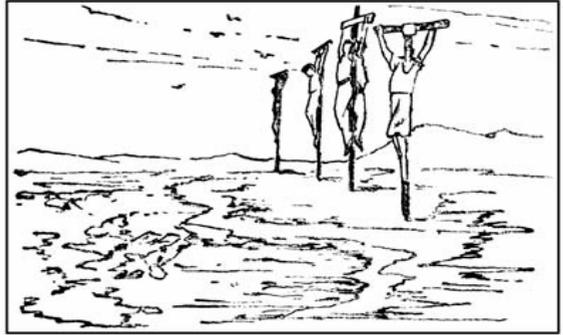
로마통치배들은 살아남은 6 000명의 폭동자들을 카푸아로부터

로마에 이르는 도로연선의 십자가에 산채로 못박아죽이는 귀축같은 만행을 감행하였다.

이리하여 스파르타쿠스노예폭동은 실패로 끝났다.

폭동은 비록 실패하였으나 그것은 로마노예제도에 커다란 타격을 주었다.

노예의 처형

스파르타쿠스폭동으로 하여 로마의 노예제도는 급속히 몰락하기 시작하였다.

3. 그리스도교

그리스도교는 불교, 이슬람교와 함께 세계3대종교의 하나이다.

그리스도교는 1세기에 로마의 지배하에 있던 팔레스티나에서 발생하였다.

이 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리를 믿는다는데로부터 그리스도교라고 한다.

그리스도교는 사람이 죽어서 《천당》에 가기 위해서는 《전지전능》한 《하느님》에게 자기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오직 예수만을 믿고 그의 교리를 무조건 따르라고 설교하였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하느님》앞에서 평등하므로 서로 《사랑》해야 한다, 원쑤가 왼뺨을 때리면 오른 뺨을 내대며 지어 원쑤까지도 사랑해야 한다고 설교하였다.

그리스도교도들은 처음에 로마황제를 숭배하지 않았기때문에 통치배들로부터 탄압을 받았다. 그러나 그리스도교가 노예와 빈민들을 복종시키는 좋은 수단이라고 생각한 로마통치배들은 4세기에 이르러 그것을 국교로 선포하였다.

그리스도교는 발생한 첫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착취계급이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짓밟기 위한 사상적도구로 적극 복무하여왔다.

※ 예수 그리스도와 배신자 유다

그리스도교를 내놓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12명의 사도가 있었다고 한다. 이 사도들이 각지를 다니면서 그리스도교를 전파하였다. 당시 로마통치배들은 그리스도가 유태교를 모독하고 정치적혼란을 조성한다고 하면서 그를 체포하기 위하여 여러모로 수사망을 펼치고있었다.

이때 그리스도교조직에서 재정을 맡아보던 유다가 로마통치배들로부터 은 30량을 받고 예수를 밀고하였다.

12사도중 한명인 유다의 밀고로 하여 예수는 로마통치배들에게 체포되였다. 그는 갖은 악형을 당하다가 끝내 십자가에 못박혀죽었다. 이로부터 그리스도교를 믿는 유럽의 많은 나라들에서는 고대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유다》라는 말이 배반자의 대명사로 불리워지고있다.

※ 예수와 서양력

오늘 세계 많은 나라들에서 양력이라는 력서를 쓰고있는데 그것은 환상적인물인 예수 그리스도가 출생하였다는 해를 1년으로 하여 년도를 정한것이다.

력사에서는 예수가 출생한 년도를 기준점으로 하여 그의 출생전 년대를 B.C.(기원전)년대로 하고 그가 출생하였다고 하는 년도부터 A.D.(기원후)년대로 쓰고있다.

제6절. 고대문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문화예술은 일정한 력사적시대의 사회제도와 사람들의 정치생활, 경제생활, 생활풍습 같은것을 반영하고있습니다.》

고대노예사회에서 창조된 문화는 자기 민족들의 력사와 결부되여 그 당시의 사회제도와 사람들의 정치생활, 경제생활, 생활풍습 등을 반영하고있다.

고대에짚트인들은 B.C.3000년대 이전부터 자기의 고유한 글자를 만들어썼다. 처음에는 그림글자를 만들어쓰다가 그것이 점차 다듬어져 상형문자로 되였으며 나중에는 그것이 자모로 발전하였다.

고대에짚트에서는 인민들의 지혜와 노력에 의하여 많은 건축물들도 만들어졌다. 그러한 대표적유적은 수많은 피라미드들과 테베에 건설된 아몬신전이다.

또한 고대에짚트에서는 닐강의 큰물피해를 막기 위하여 땅의 면적을 재거나 피라미드를 건설하는 과정에 기하학, 수학이 일정하게 발전하였다.

병사
때리다
걷다
태양
울다
강물을 따라 내리다
강물을 따라 올라가다

에짚트의 그림글자

고대인디아인들도 B.C.3000년대에 벌써 오늘 세상사람들이 아라비아수자로 부르고있는 수자의 원형을 만들었다. 때문에 아랍인들은 이 수자를 《인디아의 수자》라고 한다.

또한 수학으로 체적과 면적을 구할줄 알았으며 원주률을 3.1416으로 거의 정확히 계산하였다.

고대인디아의 문학과 예술은 종교적색채를 많이 띠고있는것이 특징이다.

고대중국인들도 독자적으로 자기의 문자를 만들었다.

상나라때에 갑골문자가 만들어지고 주나라때 그것이 보다 간략화된 글자로 되였다.

갑골문자란 거부기의 등껍데기나 짐승뼈에 새겨진 글자를 말한다.

이 갑골문자가 점차 변화발전하면서 한자로 되였다.

고대중국인들은 수학에 대한 일정한 지식도 가지고있었다.

갑골문에는 1부터 10까지, 백, 천, 만 등을 표시하기 위한 각종 부호와 글자들이 있다. 갑골문에 나타난 제일 큰 수자는 3만이다.

고대중국의 대표적인 문학작품은 공자가 편찬한 《시경》이다. 여기에는 서주시기부터 춘추시기까지 각 지방에서 수집된 300편의 시가 수록되여있다.

고대그리스에서는 먼저 발전한 아시아문화의

갑골문자와 한자의 변천

영향을 받으면서 자기의 고유한 문화도 창조하였다.

고대그리스인들은 제우스신을 중심으로 한 올림프스의 12신을 믿었다. 12신에 대한 신화와 전설은 그리스의 문학과 예술에도 그대로 반영되였다.

그리스의 가장 오랜 서사시로서 B.C.8세기에 시인 호메로스가 썼다고 하는《일리아스》와《오듀쎄이아》가 오늘까지 전해지고있다.

고대그리스에서는 체육에도 큰 관심을 돌렸다.

체육에서 가장 유명한것은 올림피아경기였다.

그리스사람들은 4년에 한번씩 올림피아촌에서 제우스신을 제사하는 큰 행사를 벌리군 하였다. 이 제사가 끝난 뒤에 신전가까이에 있는 경기장에서 큰 체육경기가 열렸는데 이것이 이름난 올림픽경기이다.

경기종목은 달리기, 창던지기, 원반던지기, 레스링, 경마, 권투 등이였다.

노예와 가난한 사람들, 녀자들은 경기참가는 물론 구경조차 할수 없었다.

올림픽경기는 그후 오래동안 진행되여오다가 394년에 로마에 의하여 금지당하였다. 이때부터 그리스도교에 의하여 약 1500년간 금지되여온 올림픽경기는 19세기말에 와서야 다시 이어졌다.

고대그리스에서는 자연과학도 발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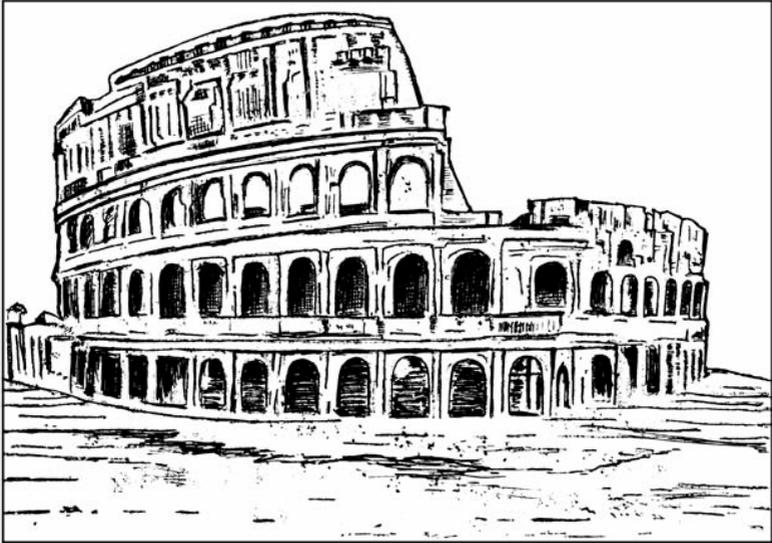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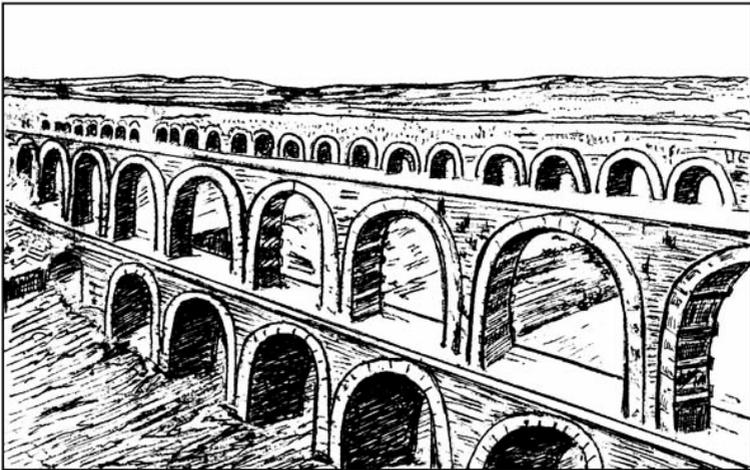
물리학분야의 대표적인 학자는 아르키메데스였다. 그는 지레대와 활차, 나사의 력학적 원리를 적용하여 여러가지 무기와 도구들을 만들었다. 그리고 오늘까지 리용되고있는 아르키메데스의 법칙도 발견하였다.

로마인들은 문화적측면에서 그리 큰 성과를 이룩하지 못하고 주로 그리스문화를 많이 본딴것을 찾아볼수 있다.

로마사람들은 그리스의 자모를 토대로 하여 라틴어문자를 만들어썼다.

로마의 문화발전에서 큰 성과라고 할수 있는것은 건축술의 발전이였다.

원반던지는 사람(B.C.5 세기의 조각)

판테온신전, 콜로세움(원형극장), 각지에 건설된 수도다리 등은 고대로마의 대표적인 건축물들이다.

원형극장

가론강의 수도다리

고대아시아와 아프리카, 유럽나라들에서 문화의 창조자는 인민대중이였으나 문화의 향유자로는 될수 없었으며 그것들은 모두 극소수 노예주계급의 독점물로 되였다.

※ 로마군사의 칼에 맞아죽은 아르키메데스

고대그리스의 유명한 수학자이며 물리학자인 아르키메데스(B.C.3세기 사람)는 지레대의 원리와 도르래 등을 적용하여 여러가지 무기와 도구를 만들어냈다.

지레대의 원리를 발견한 아르키메데스는《나에게 지지점을 달라, 그러면 지구를 들겠다.》라고 말하였다고 한다.

그는 오늘까지도 아르키메데스의 법칙으로 불리우고있는 뜰힘의 법칙도 발견하였다. 그는 이 법칙을 적용하여 당시 왕의 명령으로 금관의 금이 얼마였는가를 확정하였다고 한다.

포에니전쟁시기 아르키메데스는 화살이 우박처럼 쏟아져나가게 하는 무기, 무거운 돌을 날려보내는 무기 등 여러가지 무기를 만들어내여 침략군을 곤경에 몰아넣군 하였다.

B.C.212년 로마침략군이 시라쿠사성을 완전히 점령하였을 때 아르키메데스는 그것도 모르고 땅바닥에 앉아서 꼬챙이로 무엇인가를 열심히 그리며 연구에 골몰하고있었다.

그 가까이로 다가온 로마군사의 그림자가 땅바닥《설계도면》에 나타났으나 그는 누구인지 올려다보지도 않고《이봐, 그늘이 지고있으니 좀 비켜주게.》라고 말하며 계속 연구에 골몰하였다.

화가 난 로마군사는 칼을 빼들고 늙은 발명가 아르키메데스를 내리쳐 죽였다.

※ 로마의 상징인 원형극장

1세기 후반기에 건설된 로마의 원형극장은 80개의 출입구를 가졌으며 지붕은 없다. 그러나 일기조건이 나쁠 때에는 지붕대신 천막을 쳤다고 한다.

관람석은 돌과 나무로 만든 의자들이 놓여있는 계단식으로 되여있다.

4층으로 된 이 극장의 높이는 약 48.5m이며 둘레는 500m가 넘는다.

무대의 길이는 85.8m, 너비는 53.6m였다. 밖의 벽체에는 240개의 반원형창문이 3층까지 련달아있다.

노예주들은 제일 아래줄 특별석에서 구경하였으며 가난한 사람들은 3층에서 관람하였다. 노예들은 극장에 들어갈수조차 없었다.

이 극장건물의 지하실에는 검투사와 싸우게 될 짐승을 대기시키는 방과 그리고 맹수와 싸우다 죽은 검투노예를 끌어내리는 장치들이 있었다.

이 극장은 약 5만명의 관람자를 수용할수 있었다.

중세기 이 건물은 봉건령주의 성으로, 주택으로도 리용되였으며 그후 이 건물의 적지 않은 부분이 파괴되였다.

그림에서 보는바와 같이 지금은 바깥벽의 일부와 극장구조의 일부만이 남아있다.

제 2 장. 아시아와 유럽의 봉건국가들

제1절. 진나라와 한나라

1. 진나라와 시황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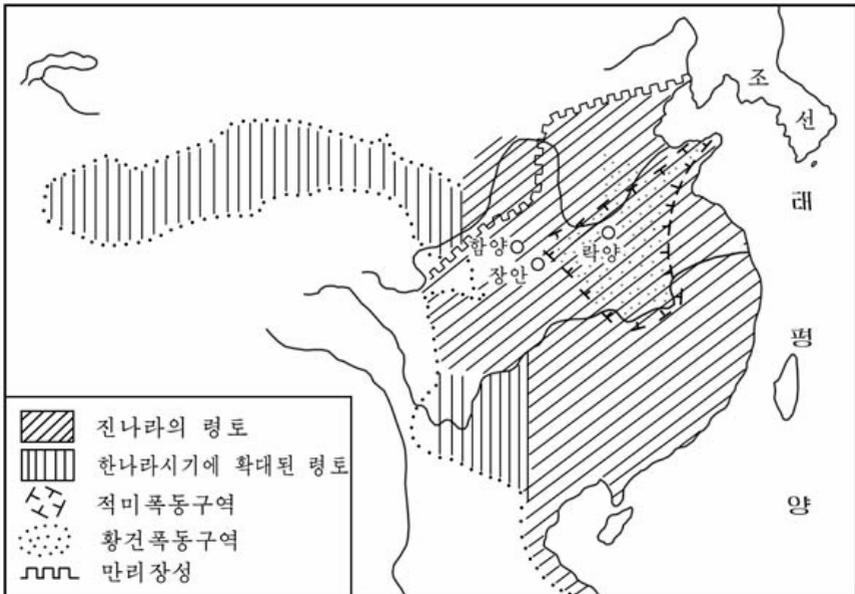
《착취계급사회는 피착취인민대중에게 온갖 불행과 고통을 들씌우는 반동적인 사회입니다.》

B.C.3세기에 이르러 중국에서는 봉건관계가 지배적인것으로 되였다.

B.C.221년에 전국을 통일한 진나라왕(이름은 영정)은 자기를 시황제(첫 황제)로 부르게 하였다.

이리하여 영정은 시황제 즉 진시황으로 불리우게 되였다.

진시황제는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였다.

진시황은 부귀영화를 누릴 목적으로 궁녀 1만명을 끌어들이고 함양 서북쪽에는 웅장화려한 큰 궁전인 아방궁을 비롯한 크고작은 궁전 145개와 놀이터들을 짓게 하였다. 그 둘레는 무려 900여리나 되였다.

진, 한시기의 중국

그리고 자기가 죽어서 묻힐 려산릉을 만드는데만도 70여만명의 인민들을 강제동원하여 혹사시켰다.

진시황은 농학, 의학, 점치는 책을 제외한 모든 책들을 불살라버리고 제 비위에 거슬리는 460명의 학자들을 생매장하여 죽였다.

또한 20여종에 달하는 가혹한 형벌제도를 만들어 인민들을 악착스럽게 탄압하였다.

진시황은 대외적으로 북방의 흉노족을 치는 한편 남쪽으로 정복전쟁을 벌려 지금의 웰남북부지역까지 세력을 뻗치였다.

이리하여 진나라령토는 북쪽은 오늘의 만리장성으로부터 남쪽은 중국남해연안에까지 이르렀다.

진시황은 북쪽의 흉노족을 경계하며 동쪽으로는 동방의 강대국인 고구려의 위력을 두려워하면서 수많은 인민들을 강제로 끌어내여 만리장성을 쌓았다.

만리장성은 이미전에 있던 여러 제후국들의 북방성들을 련결시키고 그것을 더 연장하여 쌓은것인데 오늘의 산하이관으로부터 서쪽의 간쑤성에 이르렀으며 그 길이는 약 2 500km였다.

이 성을 쌓는 일에 약 200만의 농민들이 강제로 동원되였는데 힘겨운 로동과 굶주림으로 수없이 쓰러졌다. 진나라통치배들의 포악한 통치에 더는 참을수 없게 된 인민대중은 투쟁에 떨쳐나섰다.

이 시기 진승, 오광이 지휘한 농민폭동을 계기로 각지에서 꼬리를 물고 일어난 농민폭동은 진나라를 멸망에로 이끌어갔다.

B.C.206년 봉건귀족인 항우와 류방이 농민폭동을 리용하여 진나라를 멸망시켰다.

2. 한나라와 황건농민폭동

진나라가 멸망한 후 류방이 항우의 군대를 격파하고 창안(진나라시기 함양)을 수도로 하는 한나라를 세웠다.

류방이 세운 한왕조는 400여년간 중국을 통치하였다.

한나라는 북으로는 흉노족을 치고 여러차례 서쪽으로 원정하여 중앙아시아지역까지 세력을 뻗치고 남으로는 북부웰남지역까지 침략하였다.

동쪽으로는 B.C.109년에 5만명의 침략군으로 고조선에 침입하

였으나 그후 고조선인민들의 반침략투쟁에 의하여 쫓겨나고말았다.

부단한 침략전쟁으로 봉건지주들과 대상인들은 더욱 부유해졌으나 농민들은 무거운 조세부담으로 처지가 더욱 비참해졌다.

봉건통치배들의 학정에 더는 참을수 없게 된 인민들은 드디여 투쟁에 일떠섰다.

184년 장각의 지휘밑에 일어난 황건농민폭동은 전국의 거의 모든 지역을 휩쓸었다.

폭동에 참가한 모든 농민들이 머리에 누런 수건을 쓴데로부터 이 폭동을 황건농민폭동이라고 한다.

장각의 지휘밑에 10여만의 농민군은 황하와 창강류역의 많은 도시들을 점령하고 귀족들을 처단하였다.

정부군을 공격하는 황건폭동군

장각이 직접 지휘한 농민군은 황하중류일대에서 적들에게 섬멸적 타격을 안기였다. 농민군은 한때 그 수가 100여만으로까지 늘어났다.

질겁한 통치배들은 40만의 정부군을 동원하여 농민군을 공격하였으나 매번 격파당하였다.

그러나 장각이 병으로 죽자 지휘자를 잃은 농민군은 흩어지기 시작하였다.

뚜렷한 투쟁목표가 없었던 농민군은 9개월만에 그 주력이 진압

당하였다. 그러나 그후에도 개별적인 농민폭동군의 투쟁은 20여년동안 계속되였다.

인민들의 투쟁으로 220년에 한나라는 멸망하고 말았다.

한나라가 망한 후 중국은 350년이상이나 분렬되여있었다.

그후 60년동안은 위, 촉, 오 세나라가 서로 대립하여 싸운 3국시기였다. 3국시기후에도 분렬상태가 계속되여 크고작은 나라들이 흥망하다가 비로소 589년에 가서야 수나라에 의하여 다시 통일되였다.

제2절. 수나라와 당나라

1. 수양제의 폭압정치와 수나라의 멸망

양제는 수나라를 세우고 첫 왕으로 되였던 양견의 아들이였다. 양제는 604년에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된 포악하기 그지없는 자였다.

수양제는 인민들로부터 수탈한 조세와 공물을 제가 있는 수도(창안)로 더 빨리 운반하기 위하여 황하와 장강을 련결하는 대운하를 팠다.

수양제는 또한 뤄양으로부터 강도(양저우)에 이르는 배길에 룡선(화려하게 장식한 배)들을 띄워놓고 유람과 술놀이로 부화방탕한 나날을 보냈다.

수양제의 사치와 향락은 끝이 없었다.

그는 뤄양을 동쪽의 수도로 꾸리는 건축공사에 매달 200만명이상의 농민들을 강제로 동원시켰다.

양제는 대외침략도 발광적으로 감행하였는데 그 기본은 고구려에 대한 침략이였다.

수나라통치배들은 고구려에 598년부터 4차례에 걸쳐 침입하였으나 그때마다 용감한 고구려인민들의 투쟁에 의하여 참패를 당하였다.

수양제에 의한 고구려침략전쟁은 수나라인민들에게 헤아릴수 없는 고통을 가져다주었다.

끝이 없는 부역과 병역으로 수백만의 농민들이 농사를 못 짓고 땅은 황페화되여갔다. 더는 견딜수 없게 된 인민들은 수양제를 반대하

는 폭동을 일으켰다.

611년에 산동성의 폭동지휘자 왕박은 《값없는 죽음의 길, 랴오둥(당시 고구려의 땅)으로 가지 말라》라는 노래까지 지어 퍼뜨리면서 투쟁을 벌리였다.

뒤이어 황하와 창강남쪽류역의 여러 지방에서 수십만의 농민군이 폭동에 떨쳐나 수나라정부군을 격파하고 많은 지역을 장악하였다.

농민폭동으로 전국이 끓어번지던 때인 618년 수양제는 자기 부하에게 살해되였다. 그리하여 수나라는 멸망하고말았다.

2. 당나라와 황소농민봉기

양제가 살해된지 석달후에 황제가 된 대봉건관료 리연은 나라이름을 《당》이라고 하였다.

당나라가 세워진 때로부터 약 100년동안 일정하게 경제가 발전하였다. 이 시기 황제의 권한과 중앙통치권이 정비되고 국력이 강화되였다.

당나라통치배들은 토지를 국가가 틀어쥐고 농민들에 대한 수탈을 강화하기 위하여 균전제도를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18살이상의 남자들에게 토지를 주었는데 토지를 받은 농민은 봉건국가로부터 조(알곡을 바치는것), 용(부역), 조(지방특산물을 바치는것)의 무거운 부담을 져야 하였다.

농민은 받은 땅을 팔수 없었으며 죽으면 다시 국가에 바쳐야 하였다.

이와 같이 균전제도는 농민들을 봉건국가의 소작인으로 얽매여두고 착취하는 토지제도였다.

당나라통치배들은 착취제도를 강화하는 한편 대외침략전쟁에 발광적으로 나섰다.

당나라시기 중국

그들은 7세기에 돌궐족에 대한 침략을 거듭하여 동돌궐(몽골지방)과 서돌궐(중앙아시아지방)을 예속시켰다.

그밖에도 서쪽의 시짱과 남으로는 웰남의 북부까지 점령하여 대제국으로 발전하였다.

당나라통치배들은 645년에 고구려에 대한 침략도 감행하였으나 고구려인민들의 용감한 반격에 부딪쳐 참패를 당하였다.

게다가 무거운 전쟁부담으로 쪼들린 수많은 농민들이 땅을 버리고 피난감으로써 균전농민의 수가 줄어들고 봉건통치질서가 허물어지기 시작하였다.

이와 함께 전국각지에서 농민봉기가 더욱 자주 일어났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봉건사회의 력사는 봉건지배계급을 반대하는 농민들의 피어린 투쟁의 력사라고 볼수 있습니다.》

산둥지방에서 소금장사를 하던 황소는 875년에 수천명의 농민군을 이끌고 폭동을 일으켰다.

877년에는 여러 농민군을 통합하여 50여만의 대농민군을 지휘하게 되였다. 황소농민군은 창강을 건너 남쪽으로 진격하면서 도처에서 봉건관리들과 귀족들을 처단하였다.

879년 광저우를 점령하고 다음해에는 다시 창강을 건너 뤄양을 점령하였다. 이때 농민군의 수는 60만이 넘었다.

880년말 농민군이 수도 창안을 점령하자 질겁한 당나라황제는 쑤찬성으로 도망쳤다.

그리하여 황소는 창안에서 자신을 황제로 선포하고 대제라는 새로운 나라를 세웠다.

그러나 일시적승리에 자만한 황소를 비롯한 농민군지휘자들은 안일해이되여 술놀이로 날을 보내였다.

이런 때에 도망갔던 당나라황제가 력량을 다시 수습해가지고 창안을 공격하였다. 불의의 습격을 받은 농민군은 창안을 빼앗기고 퇴각하다가 884년 황소가 전사한것과 함께 진압당하고말았다. 그러나 당나라도 황소농민봉기의 후과로 위기를 겪다가 907년에 멸망하고말았다.

그후 중국은 50년이상 여러개의 작은 나라들로 분렬되여있다가 송나라에 의하여 다시 통일되였다. 송나라는 약 300년간 중국을 통치하다가 몽골(원)침략자들에 의하여 정복되였다.

제3절. 명나라와 리자성농민봉기, 청나라

1. 명나라통치와 리자성농민봉기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자주성은 나라와 민족의 생명입니다.》

원나라의 지배로 하여 중국인민의 처지는 더욱 비참해졌다.

자주성을 잃고 나라를 빼앗긴 중국인민은 원의 통치전기간 강점자들을 반대하여 끊임없는 투쟁을 벌리였다.

중국인민의 반원투쟁은 1351년 홍건군을 주요력량으로 하는 대농민전쟁으로 발전하였다.

농민군들이 머리에 붉은 수건을 둘렀으므로 홍건군이라고 불렀다.

특히 이 시기에 남부에서 빈농출신인 주원장이 이끄는 폭동군이 1368년에 북부로 진격하여 대도(베이징—당시 원나라의 수도)를 점령하고 중국에 대한 몽골의 지배를 끝장냈다.

주원장은 그해에 난징을 수도로 정하고 명나라를 세웠다.

명나라통치배들은 몽골의 지배로 하여 혼란되였던 봉건통치체계를 정비하고 황제의 권력도 강화하였다.

15세기초에 수도를 베이징으로 옮긴 이후 명나라의 경제는 한층 더 발전하였다.

농업, 수공업, 상업이 발전하여 시장에 내다팔기 위한 수공업제품의 생산이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봉건사회안에서 점차 자본주의경제의 싹이 나타났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15세기 중엽부터 명나라에서는 지배층내부의 정권쟁탈전으로 통치제도가 문란하여지기 시작하였다. 게다가 북쪽에서는 따따르인들이, 남쪽에서는 왜구들의 침입이 잦아져 나라의 형편은 더욱 어려웠다.

15 세기초의 명 나 라

인민들의 생활처지는 매우 비참하였다. 17세기에 이르러 굶어죽는 농민들과 빚때문에 처자까지 파는 농민들의 수가 헤아릴수 없이 많았다. 몇백리를 가도 마을의 농가들에서 연기가 나는것을 볼수 없는 형편이였다.

인민들은 드디여 통치배들을 반대하여 일떠섰다.

황하와 창강류역에서 일어난 여러 농민폭동군들은 1636년부터 리자성의 지휘밑에 대농민부대로 뭉쳐지게 되였다. 리자성농민봉기는 당시 가장 큰 농민전쟁이였다.

리자성의 지휘밑에 농민군은 1641년에 뤄양을 점령하고 봉건귀족들을 처단하였으며 그들의 재산을 빼앗아 농민들에게 나누어주었다.

이때 농민군의 수는 100만이 넘었다.

1644년에는 수도 베이징을 공격하여 점령하였다.

명나라군대와 관리들은 도망치고 명나라황제는 목을 매여 자살하였다.

명나라는 멸망하고말았다.

그러나 리자성은 승리에 자만하여 부화방탕한 생활을 일삼았으며 농민군대오는 문란상태에 빠졌다.

이런 때에 명나라장수 오삼계가 만저우족인 청나라침략군과 야합하여 베이징으로 공격해왔다.

청나라침략자들과의 전투에서 리자성이 전사하고 농민군은 흩어졌다.

2. 청나라시기의 중국

오래전부터 중국동북지방에서 살던 녀진인(만저우족)들은 국가를 세우고 1636년에 나라이름을 《청》이라고 하였다.

리자성농민군을 격파한 청나라통치배들은 1644년에 수도를 베이징으로 옮기고 전중국을 지배하게 되였다.

청나라의 무관

청나라는 명나라의 통치제도를 거

의 그대로 본땄다.

그러나 국가의 주요관리자리는 모두 만저우족귀족들이 차지하고 특권행세를 하였다.

청나라통치배들은 전국의 중요지점에 80여만명의 군대를 주둔시키고 인민들을 가혹하게 억압착취하였다.

청나라관리들과 지주들은 농민들의 토지를 대량적으로 략탈하였으며 세금수탈도 강화하였다.

결과 18세기말 베이징일대에서만도 집과 일자리를 잃고 굶주리는 사람들이 10만명이상이나 되였다.

청나라통치배들은 인민들에게 만저우족의 풍속인 변발을 하고 만저우족의 옷을 입도록 강요하면서 이를 어길 때에는 사형에까지 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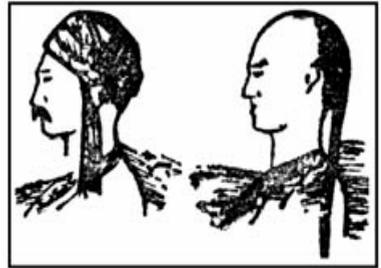
청나라시기 농업과 수공업, 상업이 일정하게 발전하였으며 크고작은 도시들이 많이 생겨나고 자본주의경제가 완만하게나마 자라고있었다. 인구도 늘어나 19세기 중엽에는 4억을 넘었다.

장발과 변발

청나라에 예속된 첫날부터 중국인민은 강점자들을 반대하여 굴함없이 싸웠다.

전국적으로 벌어지는 인민들의 투쟁으로 만청통치는 위기에 봉착하였다.

이러한 시기(18～19세기)에 중국에 대한 유럽아메리카자본주의나라들의 침략이 강화되였다.

청나라는 안팎으로 심각한 위기에 빠지게 되였다.

제4절. 칭기스한의 침략전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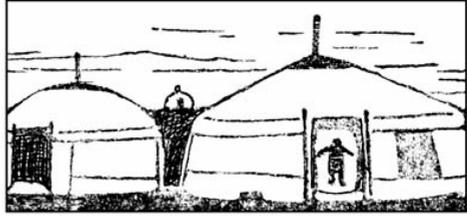
1. 칭기스한과 몽골제국

몽골은 노예사회를 거치지 않고 원시공동체사회로부터 직접 봉건사회로 넘어간 나라였다.

몽골인들은 예로부터 바이깔호로부터 만리장성북쪽에 이르는 넓은 지역에서 살던 흉노족의 후손들이였다.

몽골인들은 대다수가 집짐승떼를 몰고 초원지대를 떠돌아다니면서

이동식천막을 치고 살았다.

집짐승은 주로 말, 양, 염소, 소 등이였다. 그들은 짐승고기와 그 젖을 먹고 짐승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다.

몽골인의 천막

12세기말 몽골의 많은 부족들사이에는 더 많은 집짐승과 풀판을 차지하기 위한 싸움이 치렬하게 벌어졌다.

이 과정에 테무친을 우두머리로 하는 종족이 다른 모든 부족, 종족들을 예속시키고 종족통합을 이룩하였다.

테무친은 1206년에 귀족회의에서《칭기스한》(가장 높은 통치자)이라는 칭호를 받고 몽골봉건국가의 첫 통치자로 되였다.

몽골군대는 10명, 100명, 1 000명 단위로 조직되고 지휘관들은 귀족들이였는데 그 자리는 후손들에게 세습되였다.

그리고 몽골에서 모든 성년남자들은 군인이였는데 전쟁이 없을 때에는 목축업을 하고 전시에는 모두가 싸움터에 나가야 하였다.

당시 칭기스한은 1 000명씩으로 된 95개 부대와 1만명의 친위병을 가지고있었다.

군대안의 질서는 철저히 몽둥이규률에 의거하였고 명령에 불복종하거나 비겁한자는 사형에 처하였다. 몽골의 병사는 모두 기병이였다.

칭기스한은 국가를 형성한 첫날부터 다른 나라와 민족들을 지배하기 위한 침략전쟁을 미친듯이 벌리였다.

칭기스한은 1211년 북부중국에 쳐들어가 당시 녀진족이 송나라에 침입하여 세웠던 금나라령토를 황페화시켰으며 이후 중앙아시아에로 침략을 확대하였다.

1221년에는 아제르바이쟌과 그루지야, 크림에까지 침입하였다.

1223년에 몽골침략군은 깔까강반에서 로씨야군대를 격파하고 까마강쪽으로 이동하였다.

그러나 여기서 몽골침략군은 로씨야인들로부터 강한 타격을 받았다.

칭기스한은 아프가니스탄을 거쳐 인두스강계선까지 갔다가 1225년 몽골로 돌아왔다. 칭기스한은 중국에 대한 정복전쟁중인 1227년에 간쑤성에서 병으로 죽고말았다.

칭기스한의 침략전쟁으로 아시아와 유럽의 대부분지역을 포괄하는 몽골제국이 형성되였다.

칭기스한침략군은 정복지역에서 인민들을 닥치는대로 학살하고 재물과 문화재들을 략탈, 파괴, 소각하는 등 갖은 횡포하고 야만적인 만행을 감행하였다.

그리하여 중세의 대표적인 침략자 칭기스한의 이름은 피정복인민들속에서 오래동안 증오와 공포의 대명사로 불리웠다.

2. 몽골제국의 침략전쟁

칭기스한이 죽은 후에도 그 자손들에 의하여 침략전쟁은 계속되였다.

1235년에 몽골귀족회의는 칭기스한의 손자인 바뚜의 총지휘밑에 유럽에 대한 새로운 침략원정을 벌릴것을 결정하였다.

이 원정에는 칭기스한 혈통인 14명의 한(통치자에 대한 칭호)들의 지휘밑에 15만명의 기병이 참가하였다.

바뚜는 랴쟌과 모스크바를 비롯한 로씨야의 여러 공국들을 하나하나 점령하면서 북쪽으로는 노브고로드근방까지, 남쪽으로는 끼예브 등 여러 도시들을 점령, 파괴하였다.

1241년-1242년에는 뽈스까, 마쟈르, 도이췰란드, 체스꼬, 벌가리아, 이딸리아의 북부에까지 침입하였다.

몽골침략자들은 아시아의 많은 나라들에도 침입하였다. 그들은 1231년에 금나라(후에 청나라)를 공격하는것과 함께 고려에도 쳐들어왔다.

1234년에 금나라는 완전히 점령당하였으나 고려인민들은 용감히 싸워 침략자들을 쳐물리쳤다. 그후에도 몽골침략군은 6차례나 우리나라에 쳐들어왔으나 고려인민들의 투쟁에 의하여 그때마다 참패를 당하였다.

이밖에도 몽골침략자들은 이란, 소아시아, 아라비아반도, 인디아의 북부, 티베트, 웰남, 쟈와까지 침공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반동적착취계급들의 부정의의 침략전쟁은 사회의 발전을 가로막습니다.》

몽골인들의 검질긴 대외침략과 제국의 형성과정은 동시에 야수적 학살과 략탈, 파괴과정이였다.

몽골침략자들에 의하여 아시아나라들의 발전된 문화와 경제는 심히 파괴되고 략탈당하였다.

몽골인들은 1256년 아라비아교주국의 수도 바그다드를 점령하고 고대시기부터 발전되여온 이 도시를 재더미로 만들어버렸다.

집짐승방목밖에 모르던 몽골인들은 이르는 곳마다에서 논밭을 파괴하고 목장을 만들었으며 수백년을 두고 이루어놓은 관개시설들을 파괴하였다.

이처럼 몽골침략자들이 감행한 침략전쟁은 인민들이 이룩해놓은 문화, 경제적성과들을 파괴함으로써 사회발전을 가로막는 결과를 가져왔다.

3. 몽골제국의 멸망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침략자는 멸망을 면치 못한다는것은 력사적으로 검증된 하나의 법칙입니다.》

침략전쟁을 통하여 수립된 몽골제국은 결코 오래 갈수 없었다. 광활한 몽골제국내에는 언어와 풍속, 종교와 문화가 서로 다른 나라와 종족들이 수많이 있었으므로 하나의 국가테두리안에서 통치하기에는 매우 곤난하였다.

칭기스한이 자기의 네 아들에게 큰 령토를 분할하여 나누어준 때로부터 그들사이에는 서로 제국의 통치권을 독차지하기 위한 정권쟁탈전이 그치지 않았다. 그후 제국은 몽골본토, 중국을 지배한 원나라, 킾챠크한국, 챠카타이한국, 오고타이한국, 이르한국 등 6개 부분으로 분렬되였다.

그리하여 몽골제국은 14세기말에 멸망하고말았다.

몽골제국을 멸망시킨 중요한 요인은 민족적자주권을 되찾기 위한 피정복인민들의 거세찬 해방투쟁이였다. 15세기말-16세기초에 이르러 몽골침략자들은 칭기스한때부터 강점하였던 모든 령토를 잃고말았다.

칭기스한침략자들이 멸망한것처럼 세계제패를 꿈꾸는 침략자들이 멸망하는것은 력사발전의 법칙이다.

몽골제국의 판도

제5절. 야마도국가와 사무라이통치

1. 야마도국가

일본은 4개의 큰 섬들로 이루어진 나라이다.

일본은 B.C.3세기까지도 신석기를 사용하던 매우 락후한 원시공동체사회에 머물러있었다.

그러다가 고구려를 비롯한 조선사람들의 선진문화를 받아들여 벼농사법과 금속도구에 대하여 알게 되고 계급사회에 들어서게 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선조들은 일찍부터 일본렬도에 적극 진출하여 일본의 정치, 경제, 문화발전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일본에서는 B.C.3세기경부터야 비로소 청동기와 철기가 사용되고 벼농사가 시작되게 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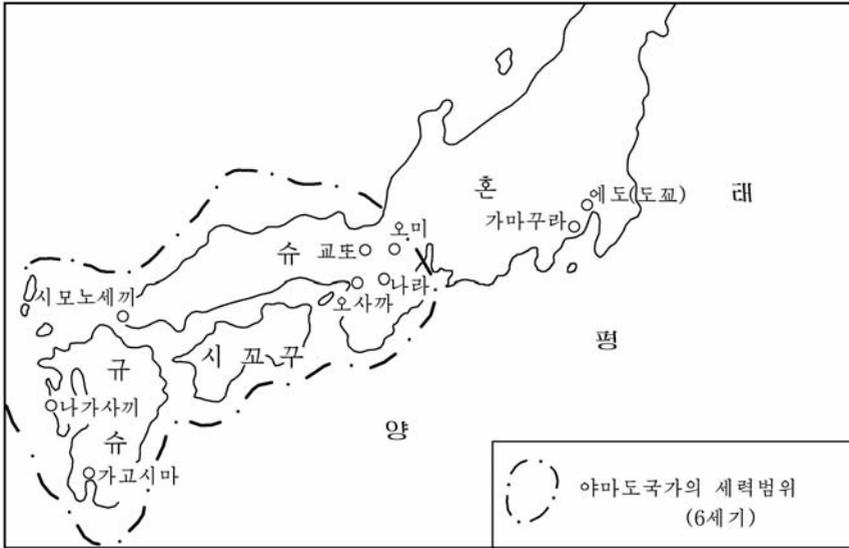
당시 조선사람들은 일본에 건너가 벼농사와 금속도구사용분야만이 아니라 야금, 누에치기, 도자기, 건축, 조각, 그림, 학문 기타 기술과 군사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일본의 발전에 큰 영향을 주었다.

따라서 조선의 선진문화를 먼저 받아들인 북규슈지방은 일본에서 가장 발전한 지역으로 되였고 첫 국가도 여기에서 생겨났다.

1～2세기에 일본의 서부지역(규슈, 깅끼, 쥬고꾸)에서 원시사회가 무너지고 작은 소국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는데 그중에서 경제와 문화가 발전한 곳은 조선사람들이 세운 소국들이였다.

3～4세기경부터 소국들 호상간에 끊임없는 싸움이 벌어진 결과 100여개에 달하던 소국들이 30여개로 통합되였다.

그후 일본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은 규슈로부터 야마도지방

(교또, 오사까, 나라)으로 옮겨졌다. 이 지방에도 여러 소국들이 있었는데 조선사람들에 의하여 세워진 국가들도 있었다.

중세초기의 일본(6세기)

소국들가운데서 가장 강한것이 야마도지방에 세워진 국가였다.

야마도국가는 4~5세기에 이웃의 작은 국가들을 통합하여 큰 국가를 세웠다.

이 야마도국가를 조선말로 《왜》국이라고 불렀다.

야마도국가는 6세기 중엽에 규슈와 간또지방에 이르기까지 령토를 넓혔다.

그러나 이 국가가 통일적인 봉건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된것은 7세기부터였다.

2. 대화개혁과 봉건제도의 확립

야마도국가에서 최고통치자를《천황》이라고 불렀다. 그러나《천황》의 권력은 강하지 못하였다.

그것은 통치배들속에서 정권쟁탈전이 치렬하게 벌어졌기때문

이다. 이중에서 소가세력이 가장 강하였는데 이들은 《천황》도 제쳐놓고 제멋대로 통치하였다.

소가일파의 전횡이 날로 심해지는데 불안을 느낀《천황》과 그 지지자들은 645년에 드디여 소가세력을 내쫓고 정권을 자기 손아귀에 틀어쥐였다. 이해에 일본력사에서 처음으로 년호를 정하였는데 대화라고 하였다.

따라서 이해부터 시작되는 개혁을 《대화개혁》이라고 한다.

이 개혁에 의하여 《천황》을 반대하던 모든 봉건세력이 정권에서 밀려나고 모든 권한이 《천황》에게 집중되였다.

국가기구를 정비하고 모든 주민을 피착취계급인 《천민》과 착취계급인 《량민》으로 나누고 봉건적신분제도를 강화하였다.

《천민》에게는 오직 《량민》의 압박과 착취를 받을 의무만이 차례졌다. 이와 같이 일본에서는 7세기말～8세기초에야 통일적인 봉건국가가 세워져 통치하였다.

3. 사무라이의 출현과 막부통치

747년에 일본봉건국가는 부침땅면적을 늘이기 위해 법령으로 개인이 새로 개간한 땅을 그가 소유하도록 규정하였다.

이것은 봉건귀족들과 지주들로 하여금 더 많은 땅을 가질수 있게 하였다. 그들은 서로 더 많은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치렬한 싸움을 벌렸다.

9세기 후반기부터 나라의 통치질서가 문란해지자 대토지소유자들은 농민들의 반항을 진압하며 다른 봉건세력과의 권력싸움을 위해서도 개인무력을 가져야 한다고 타산하였다. 이리하여 개인령주들에게 복무하는 사무라이(무사)가 생겨났다. 9세기이후에는 그것이 일반적인 현상으로 되였다.

하층사무라이들

사무라이들은 장원(대농장)안의 농

사일을 통제하고 자기 상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었다. 점차 작은 사무라이집단은 보다 큰 집단으로 합쳐지면서 그들의 세력은 급속히 강화되였다.

그리하여 중앙정권에까지 진출한 사무라이들은 1192년에는 새 통치기관인 막부를 세웠다. 막부는 처음에 군사경찰권만 장악하고있었으나 점차 행정권, 사법권까지 틀어쥔 일본의 통치층으로 되였다.

이때부터 19세기 중엽까지 일본에서는 무맥한 《천황》정권이 있으면서도 사무라이정권인 막부가 실권을 장악한 2중정권이 존재하였다.

제6절. 이슬람교, 아라비아의 령토확대

1. 무함마드와 이슬람교

아라비아반도의 대부분은 사막 또는 반사막지대이다.

중세아라비아인들은 사막주변의 초원에서 집짐승을 방목하거나 락타를 타고 멀리 아시아와 유럽으로 다니면서 장사를 하면서 살아갔다.

이 시기 우리 나라에서는 아라비아를 대식국이라고 하였고 유럽인들은 사라센(사막의 사람)이라고 불렀다.

6세기경에 아라비아의 여러 지역들에서 공동체사회가 무너지고 봉건적착취관계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새로 자라난 봉건세력은 아직 정권을 잡지 못했지만 새로운 땅과 재부를 차지하기 위한 강력한 국가를 세우려고 하였다. 이러한 요구는 당시 메카의 부유한 상인이며 봉건귀족의 우두머리였던 무함마드(570년—632년)에 의하여 수행되였다.

사막을 가는 아라비아상인들

당시 아라비아인들은 종족에 따라 별이나 돌, 나무와 같은 자연현상을 자기들의 신으로 믿고있었다. 무함마드는 이러한 여러 종교를 없애고 통일적인 종교를 꾸며내여 그 교리밑에 아라비아인들을 단합시켜 강한 국가를 세우려고 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자신을 알라신의 예언자라고 하면서 모든 사람이 세계의 절대적인 신인 알라를 신앙하여야 한다는 이슬람교를 만들어냈다.

이슬람교의 《코란》(무함마드의 말을 기록한 책)에 의하면 최고신 알라는 세계의 모든 사물현상을 지배하며 사람들의 운명을 결정한다는것인데 이것이 이 종교의 핵으로 되고있다.

114개 조로 되여있는 《코란》에는 신앙에 관한 교리뿐아니라 이슬람교도들의 생활규범과 의무도 규정되여있다.

이밖에도 정치, 사회, 가정적인 모든 행동에 대한 자세한 규정이 있다.(이 규정들은 오늘도 이슬람교나라들에서 종교법인 동시에 국가법으로 되여있다.)

무함마드는 이슬람교를 전파시킨것으로 하여 메카통치배들의 탄압을 받았으며 622년(이슬람교력서로 1년)에 메디나로 피신하였다.

메디나에 도착한 무함마드와 그 지지자들은 거기서 유태인들의 땅과 재산을 빼앗아 자기 신자들에게 나누어줌으로써 더 많은 지지자들과 신자들을 묶어세웠다. 세력을 강화한 무함마드는 메카를 반대하는 여러차례의 싸움을 벌려 드디여 630년에 메카를 점령하였다. 이렇게 하여 메디나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봉건국가가 생겨났다. 무함마드는 종교권과 함께 국가정권을 다 틀어쥐게 되였다. 무함마드는 무력으로 아라비아반도를 통일하였다.

※ 이슬람교도들의 생활규범

이슬람교도들은 일상생활에서 여러가지 복잡한 생활규범대로 행동하고있는데 기본적인것은 다음과 같다.

우선 이슬람교도는 《알라외에 신은 없으며 무함마드는 알라신의 유일한 사도이다.》라는 말을 항상 가슴깊이 간직하며 죽을 때의 마지막말도 이것으로 끝나야 한다.

다음으로 모든 이슬람교도들은 제정된 시간에 무함마드의 고향인 메카를 향하여 하루 5번 절을 하는데 그 방법은 무릎을 꿇고 두손을 땅에 짚으면서 이마를 땅에 대고 엎드려 한다.

또한 이슬람력의 9월 한달동안을 단식(음식을 먹지 않는것)하는것인데 해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한방울의 물, 한쪼각의 음식물도 먹지 않으며 해진 다음에야 절을 하고 먹는다. 이 단식은 어린이, 로인, 환자, 군인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누구나 다 해야 하는 의무이다.

또한 그들은 이슬람교를 믿지 않는 사람을 덮어놓고 적대시하며 그들을

반대하는 전쟁을 신성한것으로 여기는것이다. 그들은 이 싸움을 《성전》이라고 한다.

이밖에 일상생활에서 비늘없는 물고기나 돼지고기를 부정한것으로 여기고 먹지 않는것, 술도 피하며 녀성을 천시하는것 등 여러가지 풍습이 있다.

오늘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은 사우디 아라비아, 팔레스티나, 이라크,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아프가니스탄 등을 비롯한 세계 여러 지역에 살고있는데 그 수는 10여억에 달한다.

2. 아라비아교주국의 정복전쟁

632년 무함마드가 죽은 후 그를 미친듯이 숭배하던 아라비아통치배들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슬람교를 믿어야 한다는 교리에 따라 대규모적인 정복전쟁을 벌리였다.

7세기 중엽에 아라비아인들은 수리아와 비잔티아에 침입하였고 페르샤의 거의 모든 지역을 무력으로 강점하였다. 그들은 정복전쟁을 계속 확대하여 아프리카에서 에짚트, 알제리, 뜌니지, 마로끄, 모리따니 등을 강점하였으며 8세기에는 지브롤터해협을 건너 에스빠냐에 쳐들어가 북부산악지대를 제외한 전체 삐레네이반도를 점령하였다.

또한 아라비아인들은 인디아의 서북부지방과 아프가니스탄까지 정복하였다.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의 넓은 지역을 정복한 아라비아통치배들은 피정복지역 인민들을 가혹하게 억압하고 착취하였다.

이슬람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각종 세금외에 특별히 인두세를 물게 하였다. 그것을 물지 못할 때에는 끓는 기름을 머리에 쏟아부어 죽게 하였다. 이슬람교를 믿는자에게는 토지를 주고 우대하였다.

수리아, 에짚트 등 여러 나라들에서 민족어가 없어지고 점차 아랍어가 사용되게 되였다. 이리하여 아랍족의 공통성이 형성되여갔다.

아라비아에서는 최고통치자를 교주로 불렀으며 나라를 교주국이라고 하였다. 무함마드에 의해 처음 세워진 국가가 메디나교주국(7세기 중엽)이고 그뒤를 이어 13세기 중엽까지 디마스끄교주국이 있었다.

3. 아라비아교주국의 붕괴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력사적경험을 놓고보아도 폭군이 오래가는 법이 없습니다.》

무력적방법으로 넓은 지역을 강점한 아라비아교주국은 오래 갈수 없었다.

아라비아통치배들의 압제밑에서 신음하던 아랍족들과 피정복인민들은 통치배들을 반대하여 끊임없는 투쟁을 벌리였다.

이러한 투쟁은 7세기 중엽부터 바그다드교주국이 멸망한 13세기 중엽까지 수백년간에 걸쳐 힘차게 벌어졌다.

747년 중앙아시아와 북부페르샤에서 아라비아의 통치를 반대하는 큰 규모의 폭동이 일어났다. 강점지역 인민들의 끊임없는 반침략투쟁은 결국 디마스끄교주국을 멸망시켰다.

그후 8세기 70년대에는 중앙아시아의 부하라근방에서 폭동이 일어났으며 그것은 7년간이나 계속되였다. 9세기 전반기에는 아제르바이쟌에서 농민봉기가 일어나 근 20년동안이나 줄기차게 계속되여 아라비아강점자들을 공포에 몰아넣었다.

또한 바빌로니아 남쪽에서 일어난 노예들의 폭동도 14년간이나 힘차게 벌어져 한때는 교주국의 수도 바그다드까지 위협하였다.

끊임없이 벌어지는 피정복인민들의 해방투쟁과 교주국안에서 벌어진 통치배들사이의 정권다툼으로 인하여 교주국은 점점 약화되다가 8세기 중엽에는 여러개의 교주국으로 분렬되였다.

바그다드교주국은 13세기 중엽 몽골인들의 침략을 받아 교주가 처형됨으로써 그 존재를 끝마치였다.

제7절. 백년전쟁

1. 중세 프랑스와 영국

프랑스왕국

프랑스는 서유럽의 가장 큰 봉건국가였던 프랑크왕국이 분렬되면서 세워진 나라이다. 프랑크왕국이 제일 강하던 시기는 칼대제통치시기(768년－814년)인데 이 시기 수십차례의 침략전쟁을 감행하여 서로마제국령토의 대부분, 오늘의 프랑스와 도이췰란드, 북부이딸리아지역까지 령토를 넓히였다. 그러나 칼이 죽은 후 그의 세 아들사이에 정권쟁탈전이 벌어지다가 843년에 세 부분으로 갈라지게 되였다.

이것을 바탕으로 하여 그후 프랑스, 도이췰란드 및 이딸리아가 생겨났다.

프랑스왕국은 서부지방을 차지하고 수립되였다.

프랑스라는 이름은 프랑크에서 유래되였다. 프랑스에서는 대체로 9～11세기에 봉건제도가 세워졌다.

이 시기 프랑스는 형식상 통일왕국이였으나 사실상 독립적인 수많은 봉건령지 즉 백작령과 공작령들로 분할된 나라였다. 대봉건령주들은 중소봉건령주들을 자기 신하로 가지고있었고 또한 중소봉건령주들은 기사(소귀족)들을 자기 신하로 삼고있었다.

피착취계급인 농노들은 봉건령주의 토지에 얽매여있으면서 갖은 착취와 압박, 모욕과 멸시를 받았다. 농노들은 매주 2～3일씩 령주의 땅을 가꾸어야 하였으며 바쁜 농사철에도 봉건령주의 사냥몰이군으로 끌려다녔다. 그밖에도 그리스도교회에 수확량의 10분의 1을 바쳐야 하고 각종 부역에 동원되여야 하였다. 그리하여 중세 프랑스에서는 봉건령주들을 반대하는 농노들의 투쟁이 꼬리를 물고 일어났다.

게다가 부단히 계속된 외적들의 침입으로 하여 프랑스의 정치정세는 매우 불안정하였다.

영국왕국

영국은 원래 유럽대륙과 련결되여있었는데 B.C.5000년경에 그로부터 떨어져 섬(브리텐섬)으로 되였다.

1세기 중엽부터 로마침략자들이 이곳에 침입하여 약 400년간 지

배하였다.

로마강점자들이 쫓겨난 후 5세기 중엽부터 유럽대륙에서 북게르만족의 갈래인 앵글로족과 쌕슨족이 이 섬에 침입하였다.

그들은 이 섬에서 7개 왕국을 세웠는데 200년간 지배권쟁탈전을 벌리다가 잉글랜드라는 하나의 왕국에 통합되였다.

이리하여 앵글로—쌕슨족 등이 혼합된 봉건국가 영국이 생겨났다.

12～13세기에는 비교적 강한 봉건군주제가 수립되고 런던을 비롯한 여러 도시들이 나타났다.

이 시기 왕권이 강화되자 대봉건귀족들은 왕의 권한을 제한하고 소봉건귀족인 기사들과 부유한 시민(부르죠아지의 전신)들을 자기 편에 끌어당기려고 하였다. 그리하여 1265년에 귀족대표, 승려귀족들을 중심으로 봉건기사대표, 도시민대표들이 망라된 첫 의회가 출현하였다.

그러나 영국의회에는 농민, 수공업자, 빈민 등 주민의 절대다수를 차지한 피착취근로대중의 대표는 한명도 없었다.

이것은 영국의회가 그 시초부터 대봉건귀족을 비롯한 착취계급들의 정치적도구였다는것을 보여주었다. 의회는 국왕권력을 일정하게 제한하였다.

14세기에 영국은 공업과 수공업, 상업이 도이췰란드나 프랑스보다 발전하였다.

이 시기 상품화폐경제가 발전하고 많은 도시들이 생겨났다. 경제발전과 함께 화폐가 광범히 쓰이게 되자 이제는 무엇이든지 돈으로 사고 팔게 되였다.

농촌에서도 소작료를 현물이 아니라 돈으로 받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이 시기에 벌써 영국에서 자본주의적생산관계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는것을 의미하였다.

2. 백년전쟁과 쟌느 다르크

14～15세기에 걸쳐 영국과 프랑스사이에 백년전쟁이 있었다.

전쟁은 도중에 여러번 끊어졌다가 다시 이어져 100여년동안 진행되였으므로 백년전쟁이라고 한다.

백년전쟁이 일어나게 된 원인은 영국과 프랑스가 다같이 자기의

령토를 넓히려고 한데 있었다.

14세기에 영국은 프랑스령토의 적지 않은 지역을 차지하였을뿐 아니라 프랑스의 왕위까지 빼앗으려고 하였다. 이리하여 두 나라의 대립은 날로 커가다가 드디여 백년전쟁(1337년－1453년)으로 폭발하였다.

전쟁은 프랑스에 대한 영국군대의 침입으로부터 시작되였다. 따라서 전쟁은 주로 프랑스땅에서 벌어졌다.

영국군의 주력부대는 활과 창으로 무장한 보병이였고 프랑스군은 기병이 기본이였다.

전쟁초기에 프랑스군은 계속 패배하였다.

크레시전투에서 프랑스는 1 500여명의 기병을 잃고 패배하였으며 1356년 푸아티예전투에서도 프랑스군은 왕을 비롯한 많은 포로를 내고 크게 패하였다.

1360년에 프랑스는 할수없이 영국과 휴전조약을 맺었다.

그 결과 영국은 프랑스서남부에서 자기 령지를 넓혔으며 북부프랑스의 중요요새인 깔레시도 점령하였다.

영국은 1415년에 또다시 프랑스에 침입하여 빠리까지 강점하였다. 두 나라간에 다시 조약이 맺어져 영국왕이 프랑스왕을 겸하게 되였다.

그후 프랑스왕이 왕자리를 순순히 내주려고 하지 않자 두 나라사이에는 다시 전쟁이 벌어졌다.

1428년 영국침략군은 남부프랑스방어에서 관건적요새로 되는 오를레앙을 포위하였다.

만약 오를레앙성을 빼앗기면 영국군은 단숨에 남부프랑스까지 점령할수 있었다.

나라의 운명이 위험에 빠졌을 때 그를 구원하기 위하여 목숨바쳐 나선것은 오직 인민대중뿐이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외적의 침략을 물리치고 민족의 자주권을 고수하기 위한 투쟁에서도 결정적역할을 하는것은 인민대중입니다.》

프랑스인민의 애국적투쟁대렬의 앞장에는 17살의 평범한 농촌처녀 쟌느 다르크가 서있었다. 그는 갑옷을 입고 백마에 올라 긴 창을 비껴들고 농민부대의 앞장에 서서 오를레앙해방전투에 참가하였다.

쟌느 다르크가 이끈 부대는 영국군을 격파하고 오를레앙의 포위를 푸는데 성공하였다.

프랑스군은 도처에서 반공격으로 넘어갔다.

쟌느 다르크의 부대는 북쪽으로 진격하면서 도시와 마을들을 련이어 해방하였다.

그의 이름은 프랑스 인민들과 병사들속에 더욱 널리 알려졌다.

그러나 프랑스봉건귀족들은 그의 농민부대가 앞으로 저들에게 투쟁의 창끝을 돌릴수 있다는 불안을 느끼였다.

쟌느 다르크의 오를레앙 입성

1430년 꼼삐엔느에서 전투가 벌어졌을 때 불리한 정황에 부딪친 쟌느 다르크는 자기 부대와 함께 도시성문으로 퇴각하였다.

그러나 이때 귀족들은 성문을 열어주지 않아 그가 적들에게 체포되게 하였다.

영국침략자들은 쟌느 다르크를 《종교재판》에 걸어 《이단자》(다른 교리를 주장한자)의 죄를 들씌워 불태워 죽이였다.

이 소식은 프랑스인민과 병사들의 격분을 불러일으켰다.

그들은 가는 곳마다에서 침략자들에게 더욱 호된 징벌을 안기였다.

1453년에 백년전쟁은 프랑스의 승리로 끝났다.

그후 쟌느 다르크는 나라를 위해 한몸 바친 프랑스의 민족적영웅으로 후세에 전해지게 되였다.

제8절. 《십자군원정》, 《지리적발견》과 식민지략탈의 시작

1.《십자군원정》

《십자군원정》은 동방의 기름진 땅과 풍부한 재부를 략탈하려던 유럽 여러 나라 봉건통치배들과 카톨릭교회 승려들의 침략야망에 의하여 조직되였다.

로마법왕(그리스도교회의 우두머리)은 회의에서 모든 그리스도교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이 있는 예루살렘(팔레스티나의 꾸드스)을 이슬람교도들의 지배에서 《해방》시켜야 한다고 떠벌이였다.

그러면서 이 원정에 참가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빚을 무효로 하며 농노는 해방할것이라고 유혹하였다.

땅과 황금에 대한 탐욕에 눈이 뒤집힌 국왕, 령주, 중소귀족 등 서유럽의 여러 계층들이 이 원정에 발벗고나섰다.

그들은 자기들의 군기와 옷에 그리스도교의 십자가표식을 달고 동방에로의 침략원정에 나섰다.

이로부터 이 원정을 《십자군원정》이라고 한다.

이 원정은 1096년부터 1272년까지 8차에 걸쳐 진행되였다.

프랑스와 도이췰란드, 영국의 국왕들이 이 원정의 앞장에 섰다.

서유럽침략자들은 소아시아와 팔레스티나에 침입하여 무고한 인민들을 닥치는대로 학살하고 재부를 략탈하였다.

침략자들은 1212년에는 《소년십자군원정》까지 조직하였다.

서유럽봉건통치배들은 《죄》많은 어른들로써는 《성지》를 해방할수 없기때문에 《죄》없는 순진한 소년들만이 그 일을 할수 있다고 떠벌이였다.

《소년십자군원정》에는 5만명의 프랑스와 도이췰란드소년들이 참가하였다. 이 소년들은 프랑스 마르쎄이유항을 떠나 바다길로 동방을 향해 가다가 도중에 풍랑을 만나 대다수가 물에 빠져죽었다.

서유럽봉건통치배들은 나머지소년들을 에짚트로 끌고가서 노예로 팔아먹었다.

결국 《소년십자군원정》은 《성지》해방이 아니라 돈에 미친 노예상인들의 범죄적인 인간매매행위였다.

그후에도 에짚트와 팔레스티나, 뜌니지에 대한 《십자군원정》이

진행되였으나 그때마다 동방인민들의 완강한 항전으로 서유럽침략자들은 죽음과 패배만을 당하였다.

《십자군원정》을 계기로 유럽인들은 당시 발전된 동방의 문화를 배울수 있었다.

그것은 그후 유럽나라들의 정치, 경제, 문화발전에서 중요한 밑천으로 되였다.

2. 《지리적발견》과 식민지략탈의 시작

15세기말-16세기초에 서유럽침략자들은 아시아와 아프리카, 아메리카로 가는 새로운 배길을 찾아내여 여러 대륙과 섬들을 침략하고 략탈하는 길에 발광적으로 나섰다.

이 원정을 력사에서 《지리적발견》이라고 한다.

서유럽의 여러 나라 봉건통치배들이 배길을 통한 식민지략탈에 나선 목적은 새로운 땅과 금은보화를 략탈하여 많은 재부를 차지하려는데 있었다.

이 시기 서유럽에서는 먼바다를 항행할수 있는 150t～300t급의 큰 배도 만들수 있었고 《십자군원정》시기에 아라비아인들을 통하여 알게 된 라침판도 항행에 리용되고있었다. 그밖에 지구가 둥글다는 학설도 나오고 장거리항행을 할수 있는 과학기술적조건도 일정하게 마련되여있었다.

《지리적발견》의 맨 앞장에 선것은 당시 상업국이였던 뽀르뚜갈과 에스빠냐였다.

1498년에 뽀르뚜갈의 귀족 바스꼬 다 가마는 일행과 함께 바다길로 아프리카 남쪽끝 희망봉을 돌아 아프리카동쪽 해안을 거쳐 인디아 서해의 칼리쿠트에 이르렀다. 이리하여 유럽에서 인디아로 가는 항로가 처음으로 알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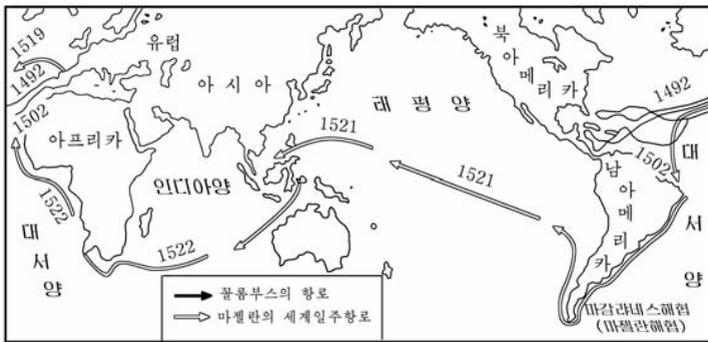
이들은 칼리쿠트에서 함포사격으로 도시를 파괴하고 인디아사람들을 수많이 죽였으며 귀금속을 닥치는대로 략탈하였다.

이 시기에 또한 이딸리아인 꼴룸부스가 남쪽이 아니라 서쪽을 향해 대서양을 가로 지르면 동방으로 갈수 있다는 설을 내놓았다.

에스빠냐왕의 지지밑에 꼴룸부스는 1492년에 3척의 배를 끌고 에스빠냐를 떠나 대서양을 가로질러갔다.

69일만에 아메리카에 속한 작은 섬에 이르렀는데 그들은 자기들이 도착한 그곳이 인디아의 서쪽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그 섬들을《서인디아제도》라고 하였다. 그리고 그 주민들을《인디안》(인디아사람)이라고 불렀다.

그후 이딸리아인 아메리고 베스뿌치가 베네수엘라와 브라질연안에 상륙하였다. 그는 꼴룸부스와 자기가 발견한 땅이 유럽인들이 전혀 알지 못하던 《새 대륙》이라는것을 확인하였다.

그리하여 이 대륙을 그의 이름을 따서《아메리카》라고 부르게 되였다.

《지리적발견》

16세기에 대서양과 태평양 두 대양을 항행하여 지구를 한바퀴 돌아 세계최초의 세계일주항해를 수행한것은 마젤란원정대였다.

마젤란은 1519년 9월 5척의 배와 280명의 선원을 이끌고 에스빠냐의 쎄빌랴항을 떠났다.

원정대는 대서양을 가로질러 라틴아메리카의 마젤란해협을 발견한 후 거기서 한해 겨울을 보내고 다시 항행을 계속하였다.

마젤란해협을 지나서 원정대는 《새로운 대양》에 들어섰는데 그것은 그때까지 유럽인들이 전혀 알지 못하고있던 바다였다.

날씨도 좋고 물결도 잔잔하였던데로부터 이 바다를 《태평양》이라고 불렀다.

그들은 향료섬으로 유럽에 널리 소문난 말루꾸제도(인도네시아)를 목표로 정하고 태평양을 횡단하여 근 2년만에 괌도에 이르렀으며 1521년 3월초에는 필리핀의 여러 섬들에 도착하였다.

여기서 원주민들과의 싸움으로 마젤란이 죽었다. 그후 원정대는

사나운 파도와 열대지방의 무더위, 해적들과의 힘겨운 싸움 그리고 굶주림과 병마에 시달리면서 인디아양과 아프리카남단을 거쳐 1522년 9월 1척의 배에 겨우 18명만이 살아돌아왔다.

마젤란원정대의 최초의 세계일주에 의하여 당시까지 가설로만 남아있던 지구가 둥글다는 학설이 현실로 확증되였다.

마젤란원정대의 세계일주항해를 계기로 하여 그후부터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여러 지역에 대한 서유럽식민주의자들의 침략과 략탈이 더욱 본격적으로 감행되였다.

이와 같이 《지리적발견》은 단순히 《새 대륙》의 발견이나 《항로의 개척》이 아니라 지구상의 넓은 지역에 대한 유럽식민주의자들의 침략과 략탈의 시작이였다.

※ 인까국왕의 비참한 죽음

불과 몇백명의 병사와 몇문의 대포로 한 나라를 정복하였던 사실이 바로 《지리적발견》이 진행되던 시기에 있었다.

당시 남아메리카대륙에서 으뜸가는 문화를 창조하던 인까제국(오늘의 뻬루)이 약 180명의 에스빠냐침략자들에 의해 무참히 짓밟히고 파괴되였다.

침략자의 우두머리 피사로는 인까제국의 국왕까지도 사로잡아 처형하도록 명령하였다.

비굴한 인까국왕은 자기 몸값으로 벽우에 손을 높이 뻗치며 손이 닿는데까지 황금을 가득 채워주겠다고 하며 살려달라고 빌었다.

실제로 인까국왕은 모든 인까인들에게 그만한 량의 황금을 모으게 하였는데 그 총량은 19세기 미국화페로 환산하면 1 550만US$나 되였다고 한다.

간악한 에스빠냐침략자들은 이 황금을 몽땅 빼앗은 다음에도 인까국왕을 잔인하게 죽이였다.

아래에 옛날 책에서 인까국왕의 죽음을 기록한 부분을 소개한다.

《…1533년 8월 29일 해가 진뒤 사형은 집행되였다. 인까국왕이 기둥에 묶이우고 발밑에 땔나무가 가득 쌓였을 때 그리스도교 신부가 십자가를 높이 들고 〈이것을 받으라. 그러면 이 괴로운 화형을 면하여 교수형을 받도록 하겠노라.〉고 말하였다.

인까국왕은 정말이냐고 피사로에게 확인하고 자기의 신앙을 버리고 십자가를 받았다. 그리고 국왕은 자기의 시체를 ×××에 보내달라고 유언하고 순순히 처형을 받았다.》

제9절. 중세문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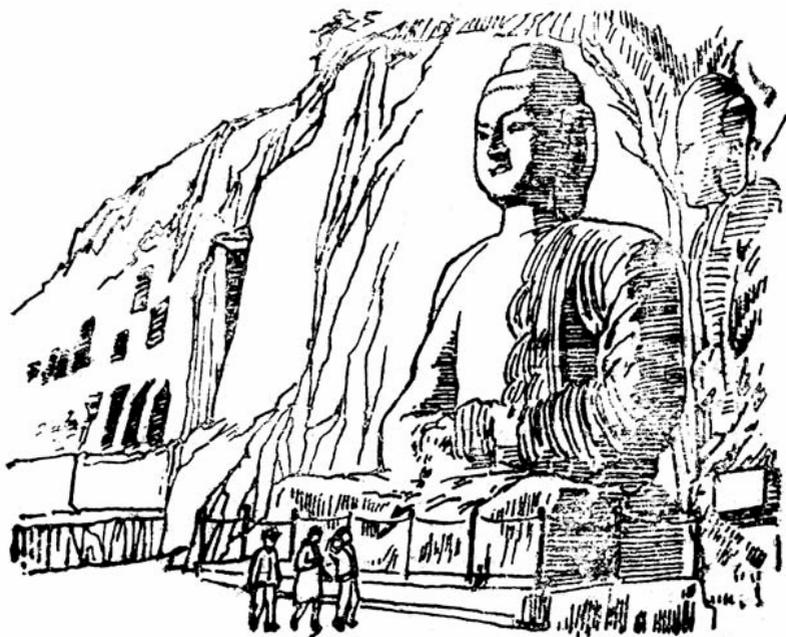
《어느 사회에서나 과학과 기술을 발전시키는 담당자는 근로인민대중입니다.》

봉건제도가 지배한 중세시기에도 근로인민대중의 창조적지혜와 근면한 로동으로 문화발전에서 많은 성과가 이룩되였다.

1. 중세중국과 아라비아의 문화

봉건중국의 문화발전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것은 문학이였다.

소설로서 대표적인것은 명나라시기 라관중(14세기)이 쓴 《삼국연의》와 청나라시기 조설근(18세기)이 쓴 《홍루몽》이다.

《삼국연의》는 한나라 말기 위, 촉, 오나라의 세력쟁탈전을 줄거리로 하여 나라의 통일을 바라는 인민들의 지향과 제갈량의 활동을 보여주면서 근로대중의 지혜와 군사예술을 찬양하였다.

원강석굴의 일부

《홍루몽》에서는 대봉건지주인 가씨일가의 생활을 통하여 통치배들의 부패한 생활을 폭로하고 두 남녀주인공의 형상을 통하여 봉건도덕의 억압밑에서 벗어나려는 갈망과 봉건제도에 대한 반항을 묘사하였다.

그러나 중세중국의 문학작품들은 인민들을 반봉건투쟁에로 불러일으키지 못한 계급적제한성을 가지고있었다.

중세중국에서는 불교미술도 발전하였다.

돈황(둔황), 운강(윈강), 룡문(룽먼)의 석굴과 불교그림 등은 유명하다.

그중에서도 대표적인것은 산서(산시)성에 있는 윈강석굴이다.

4～6세기에 만들어진 이 석굴들에는 수많은 부처들이 있는데 가장 큰것은 앉은 돌부처의 높이가 16.6m나 된다.

중국에서는 2세기초에 채륜에 의하여 종이 만드는 방법이 발명되였는데 그것은 그후 아라비아를 거쳐 유럽에까지 퍼지게 되였다.

그밖에도 수학을 비롯하여 의학, 농학 등 과학발전에서 많은 성과가 이룩되였다.

10세기에 중국에서는 화약을 무기에 넣어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며 항해에 라침판이 리용되였다.

중세아라비아의 문화는 8～11세기에 발전하였다.

이 시기 아라비아문학이 발전하였는데 유명한것은《천하루밤이야기》이다.

이 야화집은 한 처녀가 포악한 왕의 손에서 죽음을 면하기 위하여 왕에게 매일 밤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해주는 형식으로 되여있으며 300여편의 많은 이야기들을 담고있다.

그중에는 인디아와 이란의 구전문학자료들을 리용한것도 있다.

아라비아에서는 특히 수학, 화학, 천문학, 지리학, 의학 등 자연과학이 발전하였다.

아라비아수자는 원래 인디아에서 발명된것인데 아라비아인들이 받아들여 완성시켰다.

아라비아인들은 천문학분야에서도 지구가 둥글다는데 대하여 연구하였는데 이 학설은 라틴어로 번역되여 유럽의 천문학발전에 기여하였다. 오늘까지도 천문학에서 많은 별자리이름들이 라틴어로 표기되고있다.

9세기부터는 도시들에 천문대가 세워졌다.

의학도 발전하였다. 당시 아라비아에서는 외과와 내과를 전문적으로 갈라보는 의사들이 있었다.

건축분야에서도 아라비아인들은 특수한 양식을 창조하여 세계건축술발전에 기여하였다. 이슬람교사원의 둥근 지붕과 높이 솟은 뾰족탑은 이 나라의 건축술을 대표하고있다.

아라비아인들은 고려와의 무역을 통하여 우리 나라의 유명한 고려자기와 비단 등 여러가지 수공업제품들을 세계에 널리 보급하였다.

그리고 중국에서 종이와 화약을 수입하여 유럽인들에게 전파시켰다.

2. 중세 서유럽의 문화

봉건시기 유럽에서는 그리스도교가 사람들의 정신문화생활분야를 지배하였다.

이러한 조건에서 개별적나라들의 특성은 거의나 찾아볼수 없으며 어느 나라의 문화나 다 그리스도교적색채를 띠지 않은것이 없었다.

이 시기 그리스도교회와 승려들은 저들의 허황한 교리가 폭로되는것이 두려워 선진사상과 과학적발명가들을 《종교재판》에 걸어 가혹하게 탄압하였다.

13세기말 영국학자 로자 베이콘이 확대경을 발명하고 새 학설을 내놓았다가 15년이상이나 수도원의 감옥에 갇혀있은것, 1606년 이딸리아학자 죠르다노 부르노가 꼬뻬르니끄의 《지동설》을 적극 옹호하면서 자기의 과학적신념을 버리지 않았다는《죄》로 화형을 당한것 등은 그 하나의 실례이다.

16～17세기에 들어와 봉건제도가 무너져가고 부르죠아지들의 세력이 장성하면서 수학과 천문학, 광학 등에서 일정한 전진이 이룩되였다.

수학분야에서 16세기에 이딸리아학자 가르다노는 3차방정식을, 그의 한 제자는 4차방정식을 푸는 방법을 발견하였다.

17세기에는 로그수표가 발명되고 대수학과 함께 삼각법도 발견하였다.

중세시기 특히 천문학이 발전하였는데 16세기 뽈스까의 학자 꼬뻬르니끄는 당시까지 절대적인것으로 되고있던 《천동설》을 뒤엎고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돈다는 《지동설》을 내놓았다.

또한 이딸리아학자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자기가 만든 망원경으로 목성과 목성에 있는 4개의 위성, 금성을 관측한데 기초하여 《지동설》을 확증하였다.

출판인쇄기술도 발전하였는데 15세기 도이췰란드에서 금속활자가 도입되여 유럽의 출판인쇄발전에서 큰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고려에서 금속활자가 발명된 300년후의 일이였다.

중세 서유럽의 문화발전에서 중요한것은《문예부흥》의 출현이였다.

《문예부흥》운동은 문학과 예술을 통하여 봉건적압제와 그리스도교회의 전횡을 반대하고 인간의 자유를 지향한 사상계몽운동이다.

14～16세기 《문예부흥》시기에 서유럽에서는 세계적으로 이름난 작가, 미술가, 시인들과 우수한 작품들이 많이 나왔다.

이딸리아시인 단떼의 《신곡》, 보까치오의 소설집 《데까메론》, 화가 레오나르도 다 빈치가 그린《최후의 만찬》과《몬나리자》가 유명하다.

16세기말 영국의 극작가이며 시인인 쉑스피어는 호메로스, 단떼, 괴테와 함께 세계적인 문호로 이름을 떨치였다.

그의 유명한 4대비극과《베니스의 상인》,《로미오와 쥴리에트》를 비롯한 작품들은 유럽사실주의문학발전에 큰 영향을 주었다.

중세서유럽의 건축에서는 이딸리아의 밀라노대성당, 삐사의 사원과 사탑, 프랑스 빠리의 노뜨르담사원을 비롯하여 서유럽 각지에 세워진 그리스도교회의 건축물이 그 중심을 차지하고있었다.

제 3 장. 부르죠아혁명과 자본주의의 확립

제1절. 영국부르죠아혁명

1. 혁명의 시작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탄압이 있는 곳에는 반항이 있고 반항이 있는 곳에서는 반드시 혁명이 일어납니다. 노예사회에서 봉건사회로 넘어갈 때에도 그랬고 봉건사회에서 자본주의사회로 넘어갈 때도 그랬습니다.》

영국에서 부르죠아혁명이 일어나게 된 원인은 영국왕 챨스1세를 우두머리로 한 봉건통치배들이 인민들을 가혹하게 탄압하고 억압한데 있었다.

17세기에 들어서면서 영국에서는 봉건적착취와 압박을 반대하는 인민들의 투쟁이 전국적규모로 확대되였다.

《울치기》로 하여 땅을 떼운 농민들과 봉건적구속을 받는 도시빈민들의 반봉건투쟁이 세차게 일어났으며 이 투쟁으로 하여 낡은 봉건제도는 밑뿌리채 뒤흔들리게 되였다.

봉건사회 말기에 발생한 자본주의관계도 봉건제도의 위기를 더욱 촉진시켰다.

부르죠아지들과 신귀족(부르죠아화된 귀족)들도 착취계급이라는 점에서는 봉건귀족들과 다를바 없었다. 그러나 그들은 정권을 쥐지 못하고있었기때문에 자유로운 상공업활동을 통하여 마음대로 돈벌이를 할수 없었다.

부르죠아지들과 신귀족들은 장성하는 인민대중의 투쟁을 리용하여 저들의 정치적목적을 달성하려고 하였다. 이리하여 영국에서는 부르죠아지, 신귀족과 인민대중이 한편이 되여 국왕을 우두머리로 한 봉건세력을 반대하는 부르죠아혁명이 일어났다.

당시 영국왕이였던 챨스1세는 스코틀랜드에서 일어난 폭동을 진압하는데 필요한 돈을 마련하려고 부르죠아지들에게 새로운 세금을 내리먹이였다.

그러나 부르죠아지들은 국왕의 요구를 단호히 거부하고 의회에서

국왕의 전제정치를 폐지할것을 결정하였다. 이것은 부르죠아혁명의 시작이였다.

악에 받친 국왕 챨스1세는 1642년 1월 영국 북부지방으로 도망하여 그곳에서 새로운 반혁명무력을 편성하여가지고 혁명을 막아보려고 필사적으로 발악하였다. 이리하여 의회파와 국왕파사이에 국내전쟁이 일어나게 되였다.

※ 영국에서 《울치기》

《울치기》란 15세기말부터 영국에서 농민들을 내쫓은 땅에 울타리를 치고 양을 기른데서 나온 말이다. 이 시기 부르죠아화된 지주(신귀족이라고도 함)들은 농민들의 땅을 빼앗아 그곳에 울타리를 치고 로동자를 고용하여 자본주의적목양업을 시작하였다.

따라서 영국에서는 농촌이 도시보다 먼저 자본주의발전의 길에 들어섰다.

《울치기》과정을 통하여 땅에서 쫓겨난 봉건적소작농민은 점차 없어지고 그대신 양을 기르는데 종사하는 농업로동자가 수많이 나타났다.

로동자와 자본가가 생겨나고 그들에 의하여 생산이 이루어지는 이러한 현상은 자본주의적관계의 발생, 발전을 의미하는것이였다.

17세기말 영국의 농촌에서 농업로동자수는 40만명에 달하였다.

2. 국내전쟁에서 의회군의 승리

국내전쟁은 제1차(1642년－1645년), 제2차(1648년－1649년)의 두 단계로 나뉘여 진행되였다.

제1차 국내전쟁은 국왕 챨스1세가 1642년 8월 런던을 공격하는것으로부터 시작되였다.

전쟁 초기에는 부르죠아지들의 우유부단과 동요로 하여 의회군이 패하였다.

이때 혁명을 위기로부터 구원한것은 피착취인민대중이였다.

런던의 수천명의 인민들은 민병부대를 조직하여 국왕군과 필사적으로 싸워 수도를 지켜냈다.

인민대중의 앙양된 반봉건투쟁에서 힘을 얻은 크롬웰(의회군 지휘관)은 농민, 수공업자, 로동자들로써 군대를 조직하였다.

새로 무어진 《신식군대》는 크롬웰의 지휘밑에 국왕군을 격파하

면서 반공격으로 넘어갔다. 《신식군대》는 1644년 7월 마스톤무어에서 처음으로 국왕군을 격파하였으며 1645년 6월 네스비전투에서 결정적승리를 이룩하였다.

이 전투에서 크롬웰군대는 국왕을 비롯한 국왕군 5 000여명을 살상포로하고 수많은 대포와 군사장비들을 로획하였다.

제1차 국내전쟁은 인민대중의 적극적인 투쟁에 의하여 부르죠아지의 승리로 끝났다.

그러나 부르죠아지들은 정권쟁탈을 위한 파쟁으로 혁명정세를 혼란시키였다.

이 기회를 리용하여 감옥에서 도망친 챨스1세는 반혁명세력을 긁어모아가지고 1648년 6월 제2차 국내전쟁을 일으켰다.

전쟁이 개시되자 서로 싸우고있던 의회진영의 각파들은 일시 분쟁을 중지하고 국왕군을 공격하는데 힘을 합치였다.

크롬웰이 거느린 의회군은 여러 전투에서 승리하였다.

1648년 8월 의회군은 국왕군을 격파하고 국왕을 포로하였다. 제2차 국내전쟁도 의회군의 승리로 끝났다.

의회는 1649년 1월 국왕 챨스1세를 사형에 처하고 공화국을 선포하였다. 이 공화국은 부르죠아지들과 신귀족들의 리익을 옹호하는 부르죠아공화국이였다.

3. 부르죠아립헌군주제의 수립

제2차 국내전쟁후 모든 정권은 크롬웰에게 장악되였다.

정권을 잡은 크롬웰은 인민들의 투쟁을 가혹하게 탄압하였으며 1653년에는 의회마저 해산해버리고 공공연히 군사독재를 수립하였다.

인민대중은 크롬웰의 통치를 반대하여 또다시 들고일어났으며 군대안에서도 병사들의 폭동이 끊임없이 일어났다.

뒤흔들리기 시작한 군사독재정권은 1658년 크롬웰이 죽은 후부터 더욱 위기에 빠져들어갔다.

갓 정권을 잡은 부르죠아지들은 인민대중의 반정부적진출에 겁을 먹고 국왕파와 손을 잡는 길로 나아갔다.

이리하여 영국부르죠아지들은 1688년에 네데를란드 통치자였던 윌리암3세를 국왕으로 올려놓았다.

윌리암3세는 부르죠아의회의 모든 권리를 인정하였다.

영국에서는 부르죠아지들이 국왕을 내세우고 왕의 권한이 부르죠아의회와 법에 의하여 제한받는 립헌군주제형태의 부르죠아국가가 서게 되였다.

영국부르죠아혁명은 매우 불철저하게 수행되였지만 근대 부르죠아혁명의 시작으로서 영국에서 자본주의발전의 길을 열어놓았다.

제2절. 미국의 형성과 남북전쟁

1. 인디안의 무덤우에 세워진 미국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앵글로-쌕슨족은 인디안을 멸종시키기 위하여 살륙전쟁을 련이어 일으키고 그들을 가장 잔인하고 야수적인 방법으로 학살하였습니다.》

오늘의 미국땅에는 오랜 옛날부터 원주민인 인디안들이 살고 있었다.

1492년에 꼴룸부스에 의하여 아메리카대륙이 처음으로 발견된 후 이 대륙으로는 유럽식민주의자들이 이리떼처럼 기여들었다.

당시 식민지략탈에 피눈이 되여 날뛰던 영국식민주의자들은 프랑스, 네데를란드, 에스빠냐를 비롯한 식민지경쟁자들을 물리치고 북아메리카령토를 강점하였다.

유럽식민주의자들의 북아메리카정복과정은 원주민인 인디안들에 대한 류혈적인 학살과 야만적인 략탈과정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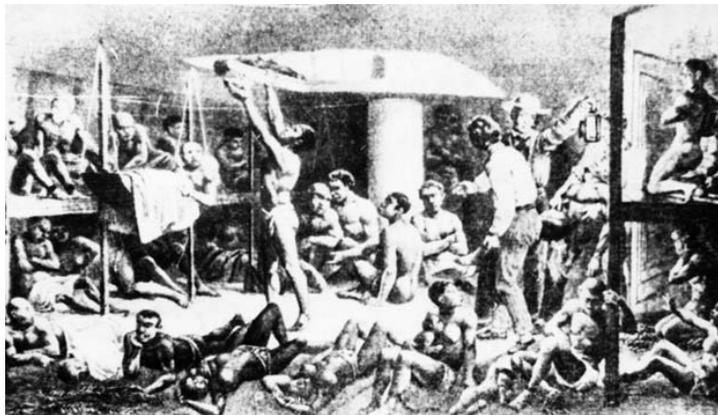
사람의 가죽을 쓴 승냥이무리들인 영국을 비롯한 유럽식민주의자들은 사람의 머리로써는 도저히 상상조차 할수 없는 야수적만행으로 인디안들을 거의다 멸족시키였다.

놈들은 인디안들을 전멸시키기 위하여 남자의 머리가죽에 대해서는 150US$, 녀자의 머리가죽에 대해서는 50US$의 상금까지 내걸면서 인디안학살에 미쳐날뛰였다.

인디아들에대한 살륙

이리하여 북아메리카에 살고있던 200만의 인디안들이 멸족되였다.

식민주의자들은 부족되는 로동력을 보충하기 위하여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사냥》하여 노예로 끌어들이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1억 5 000만의 아프리카흑인들이 아메리카땅으로 끌려와 소나 말처럼 팔리고 힘겨운 노예로동에 시달리게 되였다.

바로 이 흑인노예들이 오늘 미국에서 살고있는 약 3 000만에 달하는 미국흑인들의 선조이다.

노 예 수 송

1607년에 북아메리카 대서양연안지역에 침략의 첫발을 들여놓은 영국식민주의자들은 1733년까지 13개의 《이주지》를 형성하였다.

자본주의가 발전함에 따라 영국의 본토통치배들과 북아메리카 13개 《이주지》사이에는 북아메리카지배를 둘러싸고 모순과 대립이 격화되였다.

이 모순과 대립은 점점 더 커져 1775년－1783년기간에 량측은 추악한 싸움을 하게 되였다. 이 과정에 양키들은 침략과 반동의 아성인 미국이라는 나라를 세웠다.

인디안을 전멸시키고 그 무덤우에 세워진 양키들의 나라는 그후 인류의 자주적발전에 커다란 재난과 불행만을 가져다주는 침략의 소굴로 되였다.

※ 400년간 계속된 흑인《노예무역》

흑인《노예무역》은 1440년대초 뽀르뚜갈인들에 의해 처음 시작되였으며 16~18세기에 에스빠냐, 영국, 프랑스, 미국 등 유럽아메리카렬강들에 의해 대규모로 확대되였다.

백인노예상인들은 《노예사냥대》를 수많이 조직하여 흑인들을 대량적으로 랍치해갔다.

《노예사냥대》들은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사냥》, 랍치하여 쇠사슬이나 바줄로 몇명씩 묶어서 해안까지 끌고가서는 노예선에 짐짝처럼 실어 아메리카에 팔아먹었다.

노예상인들은 노예들이 도망치지 못하도록 그들의 이마와 가슴 등에 불에 달군 쇠꼬치로 락인을 찍었으며 조금이라도 반항하면 한쪽 팔을 잘라버리거나 한쪽 눈을 도려내는 등 온갖 몸서리치는 만행을 서슴없이 감행하였다.

노예상인들은 수송도중에도 수많은 흑인노예들을 죽여 바다에 처넣었다.

당시 영국의 한 노예무역상사는 6만명의 노예를 수송하였는데 그중에서 1만 4 000여명 즉 수송노예의 25%를 도중에서 죽이였다.

때로는 수송노예의 절반이상을 희생시킬 때도 있었다.

《노예사냥》과 《노예무역》으로 희생되였거나 노예로 끌려간 아프리카 흑인들의 총수는 1억 5 000만명이 넘었다.

이 저주로운 《노예무역》의 결과 세계 총 인구에서 20%를 차지하던 아프리카흑인이 20세기초에는 7.7%밖에 되지 않았다.

1990년대부터 여러 아프리카나라들은 지난 시기 《노예무역》에 관여한 유럽아메리카나라들이 이에 대해 배상할것을 강력히 요구해나서고있다.

2. 남북전쟁

1776년 국가가 형성된 후 미국에서는 북부와 남부에 서로 상반되는 두개의 제도가 그대로 남아있었다. 북부에서는 자본주의적상공업이 발전하고 남부에서는 노예제적농장경리가 장성하였다.

북부의 부르죠아지들은 저들의 자본주의제도를 남부에까지 확대하려고 하였고 반면에 남부의 대농장주들은 그들대로 노예제적농장경리를 북부에까지 넓히려 하였다.

이리하여 북부의 부르죠아지와 남부의 노예주들간에는 남북전쟁(1861년－1865년)이 벌어지게 되였다.

이 전쟁은 노예제도를 반대하여 일떠선 흑인을 비롯한 인민대중의 적극적진출의 결과 북부부르죠아지의 승리로 끝났다.

남북전쟁후 미국에서는 자본주의경제가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하였다. 19세기 중엽에 공업총생산량이 세계적으로 네번째 자리를 차지하였던 미국은 19세기말에 영국과 프랑스 등을 따라앞서 첫번째 자리를 차지하게 되였다.

자본주의경제가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미국은 19세기말～20세기초에 제국주의단계에로 넘어갔다.

3. 미제국주의의 해외침략

침략과 전쟁은 제국주의의 본성이다. 미제국주의는 그가 생겨난 첫날부터 세계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침략과 략탈을 끊임없이 감행하여 살찐 가장 반동적인 제국주의이다.

끊임없는 전쟁을 통하여 북아메리카땅을 거의다 강탈한 미제는 19세기 후반기부터 침략의 예봉을 라틴아메리카, 아시아에로 돌리였다.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미제의 침략정책에서 중요한 목표는 제놈들의 코앞에 위치한 꾸바를 강점하는것이였다.

당시 꾸바는 에스빠냐의 식민지로 있었다.

미제는 1898년 2월에 꾸바의 아바나항에 머물러있던 미국순양함 《멘》호를 제놈들이 폭파시키고 그 책임을 에스빠냐에 넘겨씌웠다.

이것을 구실로 미제는 이해 4월에 첫 제국주의전쟁인 미국－에스빠냐전쟁을 도발하였다.

교활한 미제침략자들은 꾸바와 필리핀에서 이 나라 인민들의 반에스빠냐민족해방투쟁을 리용하여 에스빠냐군대를 손쉽게 격파하였다.

로쇠한 식민지제국인 에스빠냐는 련전련패하였으며 8월에 항복하였다.

미제는 패배한 에스빠냐로부터 필리핀, 괌섬, 뿌에르또 리꼬, 꾸바를 빼앗아냈다.

력사상 첫 제국주의전쟁으로 불리우는 미국－에스빠냐전쟁은 미제의 강도적본성과 교활성을 날날이 보여주었다.

미제는 또한 우리 나라와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침략에 본격적으로 달라붙었다.

중국은 이때 영국, 프랑스, 도이췰란드, 로씨야, 이딸리아, 일본 등 자본주의국가들의 《세력권쟁탈전》으로 말미암아 이미 토막난 뒤였으므로 미제에게는 중국으로 기여들어갈 짬이 없었다.

미제는 1899년 이른바《문호개방》정책을 꾸며내였다. 이것은 다른 제국주의국가들과 똑같이 미제가 중국을 침략할수 있게 문을 열어야 한다는것이였다.

《문호개방》정책의 본질은 미국이 발전된 경제력에 의거하여 중국으로부터 모든 제국주의경쟁자들을 밀어내고 중국을 자기의 독점적식민지로 만들려는데 있었다.

미제는 1900년 중국에서 의화단폭동이 일어났을 때 여러 제국주의나라들로 《8개국 련합군》을 조직하여 폭동을 야수적으로 진압하였다.

미제는 우리 나라에 대한 침략을 악랄하게 감행하였다.

미제는 1866년 무장침략선《셔먼》호를 우리 나라에 침입시켰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증조할아버님이신 김응우선생님께서는 만경대사람들을 이끄시고 《셔먼》호를 쳐부시는 싸움의 앞장에 나서시였다. 이에 고무된 평양인민들은 정의의 항전에 힘차게 떨쳐나 침략선《셔먼》호를 대동강에서 불태워버렸다.

미제는 그후에도 침략선《챠이나》호를 비롯한 침략함선들을 계속 침입시켰으나 그때마다 우리 인민의 드세찬 항전에 부딪쳐 수치스러운 참패를 당하였다.

모든 사실은 미제가 백수십년전부터 우리 나라를 침략하여온 조선인민의 철천지원쑤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이와 같이 미제는 19세기말～20세기초 제국주의시기에 들어서면서 가장 교활하고 흉악한 방법으로 세계의 이르는 곳마다에 침략의 마수를 뻗치였다.

제3절. 프랑스부르죠아혁명

1. 혁명의 원인

프랑스부르죠아혁명은 영국보다 약 150년후에 일어났다.

18세기말까지도 프랑스에서는 봉건지배계급들이 낡은 신분제도를 유지하면서 근로인민들에 대한 억압과 착취를 강화하였다.

제1신분에 속하는 승려들과 제2신분에 속하는 봉건귀족들은 국가권력과 많은 토지들을 독차지하고 인민들의 자주성을 무참히 짓밟았다.

제3신분을 이루는 농민, 수공업자, 로동자, 부르죠아지들은 아무런 정치적권리도 가지지 못하고 승려들의 압박과 멸시를 받았다.

특히 농민들의 처지가 가장 비참하였다.

그들은 수확의 대부분을 귀족들에게 바치는외에도 헤아릴수 없이 많은 세금을 물어야 하였다.

봉건통치배들의 착취와 억압에 더는 참을수 없게 된 농민들은 자주 폭동을 일으켰다. 혁명전야에 프랑스전국은 농민폭동에 휩싸여있었다.

제3신분에 속하는 부르죠아지들은 경제적으로나 생활상 처지로 보아 근로인민대중과는 달랐지만 봉건귀족들로부터 상공업활동의 제한을 받았으며 정치적으로도 지배를 받았다. 때문에 그들도 인민대중과 함께 반봉건투쟁에 참가하였다.

2. 혁명의 폭발, 대부르죠아지정권의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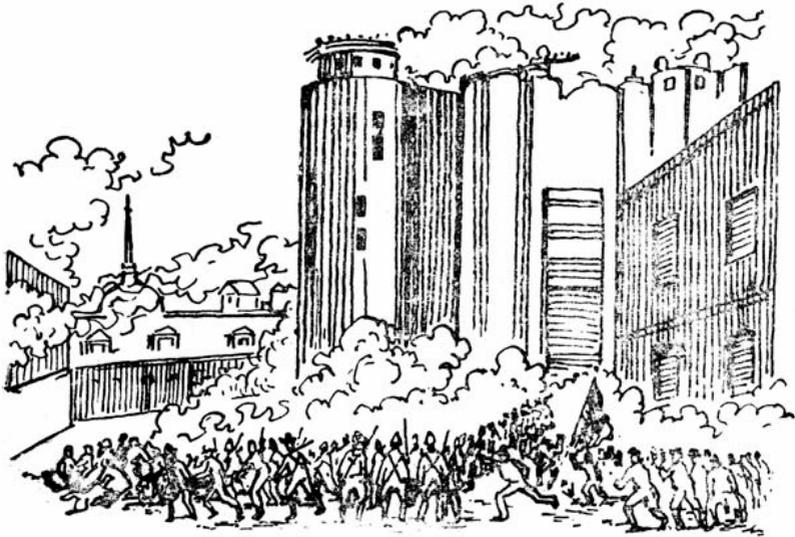
프랑스에서 부르죠아혁명은 국왕 루이16세가 1789년 5월에 국가재정문제를 해결할 목적밑에 3부회의를 소집한것과 관련하여 일어났다.

3부회의는 빠리교외에 있는 베르사이유궁전에서 열리였는데 여기에는 제1, 제2, 제3신분 대표들과 국왕이 참가하였다.

국왕 루이16세는 3신분을 대표하던 부르죠아지들에게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였는데 부르죠아지들은 국왕의 요구를 거절하였다.

이렇게 되자 국왕은 부르죠아대표들을 회의장밖으로 내쫓고 군대를 내몰아 무력으로 그들을 굴복시키려고 하였다.

이에 격분한 빠리인민들은 1789년 7월 14일 폭동을 일으켰다.

그들은 바스띠유감옥을 습격점령하고 그 사령관을 처단하였다.

바스띠유감옥 점령

바스띠유감옥의 점령을 신호로 하여 봉건제도를 밑뿌리채 뒤흔들어놓은 프랑스부르죠아혁명이 폭발하였다.

전국의 도시와 농촌들에서 폭동자들은 봉건지주들의 성곽과 주택들을 습격파괴하고 새로운 자치기관들을 세웠다.

그러나 인민대중이 피의 대가로 얻은 승리의 열매는 대부르죠아

지들이 가로챘다.

정권을 잡은 대부르죠아지들은 이해 8월에 《인권선언》을 발표하였다.

선언은 봉건적신분제도를 페지하고 모든 사람들은 《자유》롭고 《평등》하다고 선포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부르죠아지는 자유에 대하여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자유〉란 지주, 자본가들이 근로자들을 착취할수 있는 자유이며 로동자, 농민에게 있어서는 헐벗고 굶주릴수 있는 자유입니다.》

프랑스부르죠아지들이 《선언》에서 선포한 《자유》와 《평등》은 인민대중을 봉건을 반대하는 투쟁에 리용하기 위한 정치적기만구호였다.

그것은《선언》에서 사유재산은 그 누구도 다칠수 없다고 선포한데서 뚜렷이 나타났다.

정권을 잡은 대부르죠아지들은 도망친 귀족, 승려들의 토지와 재산을 자기들끼리 나누어가졌다.

※ 국왕 루이16세의 처형

프랑스부르죠아혁명시기에 국왕 루이16세는 혁명이 심화되자 외국침략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자기 처와 함께 궁전을 빠져나와 도주하였다.

이놈은 쌍두마차를 타고 도주하다가 국경부근 어느 한 마을에서 발각되여 그 주변 인민들에게 체포되였다. 그후 그놈은 빠리로 압송되여왔으나 대부르죠아지들의 비호밑에 계속 외국침략자들과 은밀히 내통하고있었다. 그러므로 로베스삐에르를 비롯한 쟈꼬벵파들은 인민들의 지지밑에 부르죠아공화국을 선포한 다음인 1793년 1월에 혁명광장 단두대에서 루이16세의 목을 베여 처형하였다.

3. 쟈꼬벵독재, 떼르미도르정변

혁명에서 별로 얻은것이 없었던 중소부르죠아지들은 이에 불만을 품고 쟈꼬벵파를 형성하여 대부르죠아지세력에게 맞서나갔다. 이렇게 되자 대부르죠아지들은 이미 도망친 왕당파들과 결탁하여 수백명의 쟈꼬벵파성원들을 학살하는 만행을 감행하였다.

이에 격분한 빠리시민들은 1793년 6월에 폭동을 일으키고 대부르죠아지들을 체포하였다. 정권은 쟈꼬벵파에게로 넘어갔다.

이 시기 프랑스의 형편은 매우 어려웠다. 정권에서 밀려난 대부르죠아지들이 귀족들과 손잡고 전국 도처에서 반란을 일으키고있었다.

전국의 83개 주가운데서 60개 주에서 왕당파들의 반란이 일어났다.

이러한 정세하에서 로베스삐에르를 우두머리로 하는 쟈꼬벵파는 우선 강력한 독재정권체계를 수립하였다.

쟈꼬벵파는 반혁명세력을 반대하는 투쟁을 강화하는 한편 여러가지 법령을 발포하여 도망간 령주들의 땅을 농민들에게 년불로 팔아주도록 하였으며 일부 봉건적부담들을 철폐하도록 하였다.

쟈꼬벵정권은 인민대중의 지지밑에 외래침략세력을 국경밖으로 내쫓았으며 국내의 반혁명적반란을 기본적으로 진압하였다.

일단 위기로부터 벗어난 쟈꼬벵파는 혁명을 그 이상 전진시키지 않고 인민들의 요구도 들어주지 않았다. 이렇게 되자 인민대중은 쟈꼬벵파를 더는 지지하지 않았다.

한편 쟈꼬벵파내부에서도 우파, 중앙파, 좌파로 갈라져 내부투쟁이 벌어졌다.

쟈꼬벵파는 급속히 약화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틈을 노린 대부르죠아지들은 1794년 7월 정변을 일으키고 로베스삐에르를 비롯한 쟈꼬벵파성원들을 학살하였다. 이날이 프랑스공화력으로 떼르미도르(더운 달) 9일이기때문에 그것을 《떼르미도르 9일정변》이라고 부른다.

《떼르미도르정변》으로 불리우는 이 사건에 의하여 쟈꼬벵독재는 붕괴되고 프랑스에서는 또다시 대부르죠아지의 반동통치가 실시되였다.

이리하여 5년간 계속된 프랑스부르죠아혁명은 끝났다. 부르죠아혁명의 결과 프랑스에서는 봉건군주제가 전복되고 부르죠아공화제가 수립되였다.

18세기 프랑스부르죠아혁명은 17세기 영국부르죠아혁명보다 철저히 수행된 혁명으로서 프랑스에서 자본주의발전의 길을 열어놓았다.

제4절. 나뽈레옹전쟁

정변을 통하여 정권을 장악한 떼르미도르반동파는 5명으로 구성된 집정부를 설치하고 나라를 통치하였다.

대부르죠아지의 리익을 대변한 떼르미도르파는 쟈꼬벵파와 인민들을 대대적으로 체포학살하였으며 언론, 집회, 결사 등 초보적인 권리마저 말살하였다.

집정부시기에 프랑스인민의 생활은 더욱 어렵게 되였다. 이 시기 생활필수품값은 200배이상으로 뛰여오른 반면에 로동자들의 임금은 대폭 떨어졌다.

인민대중의 반항심은 다시 높아갔으며 떼르미도르반동세력을 반대하는 인민대중의 투쟁이 세차게 일어났다.

대부르죠아지들은 인민들의 투쟁을 막고 저들의 계급적지배를 공고히 하기 위해 강력한 군사독재정권을 세우려고 하였다.

이러한 때 부르죠아지의 눈에 든자가 보나빠르뜨 나뽈레옹(1769년—1821년)이였다. 나뽈레옹은 꼬르스섬의 귀족가문에서 태여나 군사교육을 마치고 군대에 복무하면서 왕당파의 반란을 진압한 후 1796년에 이딸리아원정군사령관으로 되였다.

이때부터 프랑스대부르죠아지의 대외침략전쟁은 전쟁미치광이 나뽈레옹의 이름과 결부되기 시작하였다.

1796년 프랑스군대를 지휘한 나뽈레옹은 알프스산을 넘어 오스트리아군과 이딸리아군을 격파하고 이딸리아의 거의 전지역과 네데를란드, 스위스까지 점령하였다. 뒤이어 3만명의 프랑스침략군을 이끌고 에짚트에 대한 침략에 미쳐 날뛰였다.

프랑스대부르죠아지들은 포악하기 그지없고 출세욕이 강한 나뽈레옹을 군사독재자로 내세우려고 하였다.

빠리로 돌아온 나뽈레옹은 1799년 11월 군사정변을 일으키고 군사독재정권을 세웠다.

1804년에는 프랑스를 제국으로 선포하고 황제자리에 올라앉았다.

이리하여 프랑스 제1제국이 생겨나게 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나뽈레옹은 구라파의 패권을 장악하고 식민지제국을 만들것을 꿈꾸면서 구라파를 전쟁의 동란속에 몰아넣고 수많은 민족과 인민들에게 재난과 불행을 강요한 근대의 악명높은 침략자였습니다.》

나뽈레옹은 대부르죠아지들의 리익을 대변하여 세계제패야망을 실현해보려고 끊임없는 침략전쟁을 감행하였다.

나뽈레옹은 우선 프랑스의 가장 강한 적수인 영국을 타승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1805년 10월 트라팔가르해전에서 넬슨이 거느린 영국함대에 의하여 심대한 패배를 당하였다.

그후 나뽈레옹은 본격적인 유럽대륙정복에 달라붙었다.

나뽈레옹은 1807년 10월에 에스빠냐와 뽀르뚜갈을 침략하여 그를 프랑스의 지배밑에 넣었다. 계속하여 1812년경까지 오스트리아, 프로씨아, 네데를란드, 이딸리아, 벨지끄 등 유럽의 거의 모든 나라들을 강점하였다.

이제 남은것은 로씨야와 영국뿐이였다.

1812년 6월 나뽈레옹은 57만 5 000명의 침략군을 이끌고 선전포고도 없이 로씨야를 침공하였다.

나뽈레옹은 겨울이 오기 전에 로씨야에 대한 침략을 끝내려고 타산하였다. 그것은 넓은 로씨야령토깊이 들어가면 갈수록 후방공급로가 멀어지고 추운 겨울을 견디기가 어려웠기때문이였다.

1812년 8월초 로씨야군은 스몰렌스크전투에서 프랑스침략군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9월에는 모스크바에서 멀지 않은 보로지노에서 큰 전투가 있었다. 이 전투에서 로씨야는 4만 5 000명, 나뽈레옹군은 5만 8 000명의 사상자를 내였다.

보로지노전투가 끝난 후 로씨야군 총사령관 꾸뚜조브는 모스크바를 비우고 후퇴할것을 명령하였다.

나뽈레옹침략군은 텅빈 모스크바에 기여들어 불을 지르고 략탈을 마음대로 감행하였다.

그러나 로씨야의 엄혹한 추위와 식량난으로 나뽈레옹침략군은 모스크바에서 더는 견디기 어렵게 되였다.

궁지에 빠진 나뽈레옹군이 세차례나 로씨야측에 담판을 제기하였으나 꾸뚜조브는 계속 대답을 주지 않았다.

한달이상 모스크바에 머무르던 나뽈레옹침략군은 할수없이 퇴각을 시작하였다. 때를 기다리던 로씨야군은 드디여 퇴각하는 적들을 3면으로 추격하였다. 수많은 빨찌산들도 도처에서 프랑스침략군을 족치였다.

로씨야에서 퇴각하는 나뽈레옹군

스몰렌스크에 이르렀을 때 나뽈레옹군은 이미 5만명밖에 남지 않았다. 나뽈레옹군은 로씨야의 추운 벌판에 수십만의 시체를 남기고 겨우 3만명만이 국경을 넘어 도망쳤다. 세계제패를 꿈꾸면서 날뛰던 전쟁미치광이 나뽈레옹은 얼마 안되는 패잔병들과 함께 간신히 빠리로 돌아왔다.

로씨야원정에서의 수치스러운 패전은 나뽈레옹제국을 더는 수습할수 없는 파국적위기에 몰아넣었다.

1814년 3월말 유럽련합군은 빠리를 점령하였으며 나뽈레옹은 지중해에 있는 엘바섬으로 류배살이를 가게 되였다.

이리하여 나뽈레옹제국은 무너지고 프랑스에는 부르죠아혁명전에 있었던 부르봉왕조가 다시 복귀되였다.

이것을 프랑스력사에서 제1차 왕정복고라고 한다.

부르봉왕조의 수립과 함께 부르죠아혁명시기 도망쳐갔던 귀족, 승려, 지주놈들이 다시 기여들어 20년전의 특권과 재산을 되찾으려고 하였다.

부르봉왕조에 대한 인민대중의 반항은 날로 커갔다.

나뽈레옹은 1815년 3월 류형지인 엘바섬을 탈출하여 남부프랑스에 상륙하였다. 그는 빠리를 점령하고 다시 정권을 장악하였다.

프랑스와 유럽련합군사이에 전쟁이 다시 벌어졌다.

나뽈레옹은 1815년 6월 브류쎌부근의 와떼를로전투에서 치명적인 타격을 받았으며 유럽련합군이 다시 빠리를 점령하였다.

나뽈레옹은 전쟁포로로서 아프리카서쪽 대서양의 쎄인트 헬레나섬으로 종신류형당하였다.

나뽈레옹의 패망과 함께 쫓겨났던 부르봉왕조가 다시 프랑스에 기여들었다. 이것을 제2차 왕정복고라고 한다.

이리하여 약 20년간에 걸친 나뽈레옹의 침략전쟁은 끝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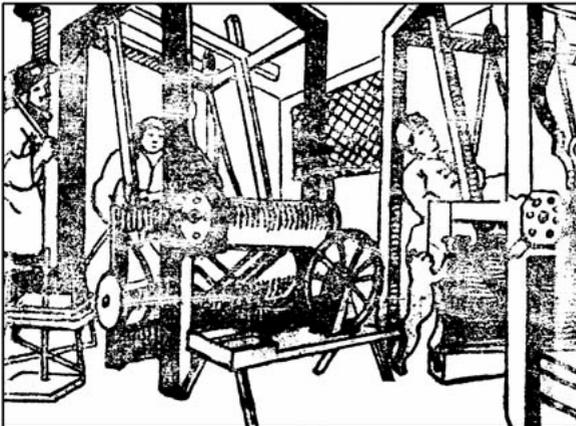
나뽈레옹의 수치스러운 말로는 침략자들과 압제자들은 결코 오래가지 못하며 반드시 멸망한다는 진리를 똑똑히 보여주었다.

제5절. 산업혁명

산업혁명은 손로동에 의한 공장제수공업이 자본주의적기계제생산으로 바뀌여지게 한 산업분야에서의 일대 전환이다.

산업혁명이전에는 모든것이 사람의 손로동에 의하여 만들어졌다.

례하면 천을 얻으려면 발로 베틀을 움직이며 손으로 짜야 했다.

이러한 생산을 수공업생산이라고 한다.

영국의 공장제수공업

중세말기부터 고용로동자들이 채용되면서 직공들이 한곳에 모여 공정별로 나누어 작업을 하게 되였는데 이와 같은 자본주의적 협동생산을 공장제수공업이라고 한다.

이 공장제수공업은 분업을 통하여 로동도구를 전문화하고 개량함으로써 수공업

적도구로부터 기계에로 넘어갈수 있는 기술적전제를 마련하였으며 산업혁명의 담당자인 기능로동자를 키워냈다.

또한 부르죠아정부의 인민들에 대한 수탈과 식민지략탈로 많은 사람들이 생산수단을 잃고 자유로운 로동자로 되였으며 자본가들은 많은 돈을 축적할수 있게 되였다. 그리하여 영국에서는 많은 돈을 가진 자본가들이 공장을 차려놓고 로동자들을 고용함으로써 자본주의적 생산관계가 더욱 발전하게 되였다.

18세기에 이르러 근로인민대중의 창조적지혜와 노력으로 영국에서는 산업의 여러 부문에서 기계가 발명되기 시작하였다.

기계는 방직공업부문에서 먼저 발명되였다. 기술자 죤 케이에 의하여 《나는 북》이 발명되고 이어 방직공 젬스 하그립스가 자기 딸의 이름을 단 《젠니정방기》를 발명하였다.

이 시기에 새로 발명된 기계들을 도입하여 세운 자본주의적제사공장들이 나타났다.

그 첫 공장이 크롬포드에 있는 제사공장이였다. 여기서는 300여명의 로동자들이 6 000개의 가락을 수차의 힘으로 돌리였다. 몇해 안가서 영국에는 이러한 공장이 150개나 나타났으며 한 공장에서는 보통 700～800명의 로동자들이 일하였다.

기계가 발명되고 공장이 건설됨에 따라 동력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여 로동자로서 물리, 수학, 화학, 력학 등 여러 분야의 지식을 가지고있던 젬스 와트가 1765년에 증기기관을 만들어냈다.

기계생산이 늘어남에 따라 더 많은 철이 요구되였다.

당시 영국에서는 목탄으로 철광을 녹였기때문에 산판의 나무가 거의 마르게 되였다. 때문에 새로운 연료를 가지고 철을 녹이는 문제가 제기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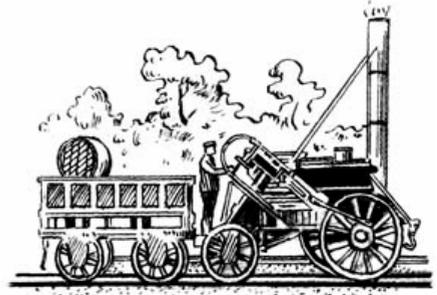
1735년에 아브라함 더비가 주철생산에 콕스를 적용하는 방법을 발견하였다. 이리하여 용해시간을 훨씬 줄이고 목탄대신 석탄을 쓸수 있게 됨으로써 제철공업이 급속히 발전하게 되였다.

공업의 발전과 함께 새로운 도시들이 급격히 늘어났으며 인구는 도시에 집중되게 되였다.

공업의 발전과 도시에로의 인구의 급격한 집중은 교통운수의 발전을 촉진시켰다.

1812년에 스티븐슨이 증기기관차를 발명하여 세계에서 처음으로 철길이 놓이게 되였다.

이와 같이 18세기 중엽부터 19세기초까지 영국에서는 거의 모든 수공업이 기계기술에 기초한 근대적공업으로 혁신되였다. 이것을 산업혁명이라고 한다.

스티븐슨이 발명한 증기기관차

산업혁명으로 하여 공장상품과의 경쟁에서 파산당한 수공업자들이 로동자로 되면서 로동자대렬이 늘어나고 점차 영국인구의 절대다수를 이루었다.

이리하여 자본주의사회의 두 기본계급인 자본가계급과 로동계급이 생겨났다.

로동계급은 전세계적범위에서 온갖 착취제도를 청산하고 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되는 새 사회를 건설할 사명을 지닌 가장 선진적이며 혁명적인 계급이다.

그러나 로동계급은 자기들을 옳바른 승리의 길로 이끌어줄 탁월한 수령과 혁명적당의 령도가 없었던것으로 하여 이 력사적사명을 실현하기까지 오랜 시일이 걸리지 않으면 안되였다.

산업혁명으로 인한 자본주의발전은 자본가들의 배를 더욱더 불리워준 반면에 로동계급의 처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생산수단을 독차지한 자본가놈들은 공장안의 절대군주로서 로동자들을 악착하게 착취하여 배를 불리였다.

로동자들은 로동보호시설이 전혀 없는 악조건에서 하루 14시간이상의 중로동을 해야 했고 빈민굴에서 추위와 굶주림, 병마에 허덕이였다.

자본가들은 로동력의 부족을 메꾸기 위해 녀성들과 소년들까지 대량 고용하여 탄광과 같은 가혹한 조건에서 노예로동을 강요하였다.

그리하여 로동계급은 발생 첫날부터 자본가들을 반대하여 자주성을 위한 투쟁에 나섰다.

※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영국

산업혁명을 제일먼저 수행한 영국은 19세기 후반기에 《세계의 공장》으

로까지 불리울 정도였다. 이 시기 영국은 세계의 공업과 상업, 대외무역 독점권까지 틀어쥐였다.

대외적으로도 인디아를 완전히 정복하고 아편전쟁으로 홍콩을 장악하였으며 먄마와 남아프리카를 병합하는 등 아시아, 아프리카를 비롯한 세계 여러 지역을 식민지로 강점하고있었다.

19세기말 영국은 3억 4 500만명의 주민을 가진 3 000만㎢의 식민지를 소유하였는데 이것은 당시 영국인구의 10배와 영국령토의 100배가 훨씬 넘는 수자였다.

그러므로 당시 영제국주의를 식민지적제국주의라고 하였다. 영국의 부르죠아지들은 지구상 동반구나 서반구 등 어디에나 저들의 식민지가 있다고 하여 《대영제국의 령토에는 해가 지지 않는다.》고 떠벌이였다. 그러나 19세기말～20세기초 제국주의단계에로 넘어가면서 영제국주의는 공업장성속도에서 도이췰란드나 미국보다 뒤떨어져 모든 면에서 자기의 지배적지위를 잃어버렸다.

제6절. 《명치유신》과 일제의 해외침략

1. 《명치유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일본은 19세기 중엽에 〈명치유신〉을 하여 자본주의를 받아들이였습니다.》

일본은 《명치유신》이라고 부르는 부르죠아혁명을 통하여 자본주의발전의 길에 들어섰다.

19세기 중엽에 일본은 락후한 봉건국가로서 심각한 정치경제적 위기에 처하여있었다.

이 시기에 도꾸가와막부통치를 반대하는 근로인민대중의 투쟁이 절정에 달하였다. 한편 인민들의 투쟁을 리용하여 정권을 잡으려는 서남부지방의 《다이묘》(봉건령주)들과 새로 자라나는 부르죠아지들, 몰락한 사무라이들의 반막부운동이 강화되였다.

전국에서 막부를 반대하는 투쟁이 세차게 일어났다. 이런 정세를

리용하여 서남부지방의《다이묘》들은 1867년 10월 마침내 막부를 반대하는 국내전쟁을 일으켰다.

이렇게 되자 도꾸가와막부는 군대를 보내여 교또에 있는 반막부군을 치게 하였으나 오히려 크게 패하였다.

반막부군은 도망치는 막부군을 추격하였으며 1868년 4월에는 에도(오늘의 도꾜)를 점령하였다. 계속하여 반막부군은 다음해 5월까지 동북지방과 혹가이도를 점령하였다.

이로써 근 1년반동안에 걸쳐 진행된 일본에서의 국내전쟁은 반막부세력의 승리로 끝났다.

이리하여 중세 전기간 일본을 지배한 막부통치는 끝장나고 반막부파 즉 사무라이, 봉건령주들과 대상인들의 정권인《천황》정권이 서게 되였다.

이 정권바뀜을 력사에서 《명치유신》이라고 한다.

국내전쟁에서 반막부군이 이길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은 전국적으로 일떠선 농민과 도시빈민들의 반봉건, 반막부투쟁에 있었다.

정권을 잡은 서남부지방의 봉건령주들과 사무라이들은 1868년 1월 《명치정부》를 조작하였다.

《명치정부》의 사무라이들은 무엇보다먼저 저들의 지배권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 《천황》정권을 강화하는데 미쳐날뛰였다.

《천황》정권은 지주, 자본가계급의 리익을 대표하는 가장 반동적인 부르죠아립헌군주제였다.

《천황》정권의 모든 중요자리에는《다이묘》들과 사무라이들이 들어앉았다.

《천황》정부는 근로인민대중에 대한 착취를 강화하고 다른 나라를 침략하기 위한 군국주의군대를 조직하고 근대화하였다.

다음으로 《천황》정부는 자본주의발전을 위한 여러가지 《개혁》들도 실시하였다. 1868년에 자본주의발전을 위한 상공업활동의 자유를 보장하였으며 다음해에는 비록 불철저하게나마 봉건적인 신분제도를 페지하였다.

《천황》정부는 1870년대초에 《농지개혁》을 실시하였다.

그러나《농지개혁》은 다만 지주놈들의 토지소유권을 확정해주고 그것을 마음대로 사고 팔수 있게 하였을뿐이였다.

때문에 《농지개혁》이후에도 많은 농민들이 지주의 땅을 소작하

지 않으면 안되였다.

이와 같이 일본에서는 부르죠아혁명과 부르죠아개혁들이 매우 불철저하게 진행되였다.

2. 일제의 해외침략

일제가 《명치유신》직후 맨 처음으로 들고나온것이 《정한론》(조선정복론)이였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이 해외침략의 길에 나서면서 그 첫 공격대상으로 우리 나라를 정한것은 지리적으로 가장 가깝고 인적물적자원이 풍부한 조선을 먼저 강점하고 그것을 발판으로 중국과 전 아시아를 침략하려는 강도적속심을 품고있었기때문이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은 우리 나라를 침략함에 있어서 처음부터 미제국주의자들과 공모결탁하였다.

1866년 《셔먼》호의 침입과 1871년의 무력침공에서 참패를 당한 미제는 일제를 조선침략의 길잡이로 리용하려 하였다.

한편 일제는 미제를 등에 업고 그의 도움으로 조선을 먹으려고 꿈꾸었다. 이리하여 미일 두 제국주의강도들은 조선을 침략하는데서 서로 협력하게 되였다.

일제의 우리 나라에 대한 침략은 1876년 2월《강화도조약》의 조작을 계기로 본격적인 단계에 들어섰다.

그런데 일제의 우리 나라에 대한 침략은 이미 조선에 세력을 뻗치고있던 청나라군대와 충돌하지 않을수 없었다. 일제침략군은 1894년 7월 조선서해 아산만부근에서 선전포고도 없이 청나라함선들을 불의에 공격함으로써 청일전쟁을 도발하였다.

전쟁은 처음에 조선령토와 령해에서 그후에는 중국령토와 령해에서 진행되였다.

봉건적인 청나라군대는 조선서해해전에서와 평양전투를 비롯한 여러 전투들에서 일제침략군에게 연거퍼 패배하였다.

일제침략군은 공격을 계속하여 중국랴오둥반도의 뤼순과 다리엔을 점령하였다. 뤼순을 강점한 일제침략군은 이곳에서만도 6만여명의 무고한 주민들을 학살하는 야수적만행을 감행하였다.

일제침략군은 침략을 확대하여 1895년 1월말에는 북양함대의 주요근거지인 위하이위를 강점하였고 계속하여 베이징까지 위협하였다.

위하이위의 점령으로 청일전쟁의 승패는 사실상 결정된 셈이였다.

거듭되는 군사적패배로 수도까지 위험에 빠지게 되자 부패무능한 청나라정부는 일제앞에 굴복하고 1895년 4월 일본의 시모노세끼에서 굴욕적인 강화조약을 맺었다. 이 조약에 의하여 일제는 조선에서 청

나라세력을 밀어내고 타이완, 펑후렬도, 랴오둥반도를 강탈하였으며 2억량에 달하는 막대한 전쟁배상금을 빼앗아냈다.

일제는 청일전쟁후에는 로일전쟁을 도발하여 로씨야로부터 많은 령토를 빼앗아냈다. 이와 같이 일본제국주의는 생겨난 첫날부터 끊임없는 침략전쟁을 벌려 살쪄온 우리 인민과 세계인민들의 철천지원쑤이다.

※ **로일전쟁**

로일전쟁은 조선과 중국둥베이지방을 강탈하기 위한 일본과 로씨야 두 제국주의자들의 략탈적인 전쟁이였다.

일제는 1904년 2월 선전포고도 없이 중국 뤼순항에 정박하고있던 로씨야함대를 불의에 공격함으로써 전쟁을 도발하였다.

전쟁은 처음부터 짜리로씨야에 불리하게 진행되였다.

그것은 짜리로씨야가 군대와 군수품을 1만 4 000km나 되는 멀고먼 씨비리철길을 통하여 날라와야했기때문이다.

로일전쟁당시 큰 전투는 랴오양전투, 뤼순전투, 선양전투 그리고 조선동해와 일본주변 바다들에서 벌어진 해상전투였다.

1904년 7월말부터 5개월간 계속된 뤼순전투에서 일제는 겨우 이겼으나 6만명의 사상자를 냈다.(짜리로씨야는 3만 4 000명의 사상자를 내였다.)

그후 1905년 2～3월에는 32만명의 짜리로씨야군과 27만명의 일제침략군이 참가한 선양전투가 벌어졌다.

선양전투에서 로씨야군의 퇴각으로 선양이 일제에게 점령되였다.

그후 일제도 힘이 진하고 로씨야도 1905년혁명으로 더 전쟁을 계속할 수 없게 되였다.

이리하여 1905년 9월 미국 포츠마스에서 로일 두 나라간의《포츠마스강화조약》이 체결되여 전쟁이 끝났다.

이 조약에 의하여 일제는 조선과 중국동북지방에서 로씨야세력을 내쫓고 뤼순과 다리엔 및 남만저우철도 그리고 로씨야 싸할린섬의 남부를 빼앗았다.

조선에서 짜리로씨야세력을 내쫓은 일제는 수만명의 무력으로 조선을 강점하였다.

제 4 장. 자본주의렬강들의 아시아침략과 인민들의 반침략, 반봉건투쟁

제1절. 아편전쟁

18세기말-19세기초에 청나라는 안팎으로 심각한 위기를 겪고있었다.

나라안에서는 낡은 봉건제도를 반대하는 농민폭동이 꼬리를 물고 일어났으며 나라밖에서는 영국을 비롯한 자본주의렬강들이 끊임없이 중국에 침입하여왔다.

중국에 대한 침략에 가장 본격적으로 달라붙은것은 영국이였다.

영국침략자들은 17세기이래 계속 실시된 청나라정부의 쇄국정책으로 말미암아 중국내정에 간섭할수 없게 되자 비밀리에 아편을 팔아먹는 방법으로 중국에 침투하기 시작하였다.

영국이 중국에 밀수한 아편량은 해마다 급격히 늘어났으며 1838년에는 그것이 4만상자(한상자는 60kg)를 훨씬 넘어섰다.

결과 중국에는 200만명이상에 달하는 아편중독자가 발생하게 되였고 아편값으로 해마다 수천만량의 은화(당시 중국의 돈)가 나라밖으로 흘러나갔다. 아편중독자의 증가와 은화의 류실은 중국의 사회경제생활전반에 엄중한 후과를 미치였다. 아편은 중국인민의 민족자주의식을 마비시키고 육체를 불구로 만들었으며 사회도덕을 여지없이 타락시켰다. 그뿐만아니라 아편밀무역은 인민생활을 극도로 령락시켰다.

아편밀무역으로 인하여 조성된 사태에 불안을 느낀 청나라황제 도광은 1839년 3월에 림측서를 전권대표로 광저우에 보내여 영국놈들의 아편밀무역을 금지시키도록 하였다.

광저우에 간 림측서는 곧 영국놈들의 아편밀무역을 금지시키고 놈들이 가지고있던 아편 2만상자를 몰수하여 불태워버렸다. 또한 영국놈들과 결탁한 중국인 아편밀무역자들을 엄중히 처벌하고 아편피우는것을 금지시켰다.

중국침략의 기회만 노리던 영국놈들은 이 아편밀무역금지조치를 구실로 1840년 6월 청나라에 전쟁을 선포하였다.

영국침략자들은 16척의 군함을 비롯한 40여척의 배에 1만 5 000여명의 침략군과 540문의 대포를 싣고와서 중국에 대한 침략을 개시하였다.

이리하여 아편전쟁이 폭발하였다.

영국침략군은 광저우를 봉쇄하고 중국해안의 여러 지역을 포격하였으며 중국의 남해안에 기여올라 살인, 방화, 략탈만행을 대대적으로 감행하였다.

영국침략군은 7～8월에 베이징의 문어구인 백하구에 쳐들어감으로써 직접 청나라정부를 위협하였다.

영국침략자들의 강도적침입과 청나라군대의 거듭되는 패배는 중국인민의 치솟는 격분을 불러일으켰다. 인민들은 스스로 무기를 잡고 영국침략군을 반대하는 싸움에 떨쳐나섰다.

1841년 5월말 영국침략군 1 000여명이 광저우성일대를 략탈할 때 100개의 농촌마을에서 모여온 수천명의 농민들은《평영단》(영국침략자들을 완전히 족치는 조직)을 뭇고 영국침략군을 포위공격하였다.

이 전투에서 200여명의 침략군을 소멸하였으며 도망치는 놈들을 추격하여 또다시 100여명의 침략자들을 쓸어눕히고 포 2문과 900여정의 총을 로획하였다.

푸산진인민들도 민병을 조직하여 쥬강포대의 영국침략군을 포위하고 수십명을 요정냈으며 달려드는 영국군함들을 격퇴시켰다.

그밖에 푸지엔성, 저쟝성 등지에서도 영국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인민들의 투쟁이 세차게 일어났다.

그러나 인민들의 반침략, 반봉건투쟁기세에 당황한 청나라통치배들은 영국침략자들보다 자기 나라 인민을 더 무서워하면서 적에게 굴복투항하였다.

그리하여 1842년 8월 굴욕적인 《남경조약》이 체결되였다.

《남경조약》에서 영국침략자들은 샹강을 강탈하고 광저우, 푸저우, 샤문, 닝붜, 상하이 등 5개 항구를 열게 하였으며 《배상금》 2 100만량을 강탈하였다.

그후에도 영, 프, 미자본주의렬강들은 중국에서 더 많은 리권을

빼앗아내려고 하였다.

침략자들은 1856년 11월 제2차 아편전쟁을 일으키고 련합세력으로 달려들었다. 이때에도 애국적인민들은 침략자들과 매국노들을 반대하여 완강히 투쟁하였다. 그러나 청나라통치배들은 또다시 외세앞에 굴복하고 1860년 10월 굴욕적인 《베이징조약》을 체결하였다.

이것으로 제2차 아편전쟁에서도 중국이 패하였다.

아편전쟁과 그후 체결된 불평등조약들은 중국의 사회력사발전에 엄중한 후과를 가져왔다. 중국은 자주적인 독립국가로서의 지위를 점차 잃어버리고 자본주의렬강들의 반식민지로 굴러떨어지게 되였다.

제2절. 《태평천국》농민전쟁

《태평천국》농민전쟁은 근대 중국인민의 첫 대중적인 반침략, 반봉건투쟁이였다.

《태평천국》농민전쟁이 일어나게 된 기본원인은 외래침략과 청나라봉건통치배들의 무능으로 인하여 중국의 국력이 약화되고 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심히 유린된데 있었다.

《남경조약》의 체결후 유럽아메리카자본주의침략자들은 아편과 상품들을 대대적으로 중국시장에 들이밀었다. 결과 중국의 은화가 끝없이 나라밖으로 흘러나갔으며 청나라정부의 재정은 거덜이 나게 되였다. 그리하여 청나라정부의 세금수탈은 몇갑절 더 강화되였으며 인민들의 생활은 점점 더 쪼들리게 되였다.

수많은 농민들과 수공업자들이 무리로 령락파산되였다.

유럽아메리카자본주의침략자들과 청나라봉건통치배들에 대한 인민대중의 원한과 분노는 극도에 달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압제자들이 있는 곳에서는 반드시 투쟁이 일어나는 법입니다.》

압제자들에 대한 중국인민의 원한과 분노는 드디여 《태평천국》농민전쟁으로 폭발하였다. 1851년－1864년까지 10여년간에 걸쳐 진행된 《태평천국》농민전쟁은 중국력사상 가장 큰 규모의 농민전쟁이였다.

이 농민전쟁을 지도한 사람은 농민가정출신인 홍수전이였다.

1847년에 홍수전은 자기의 동료들과 함께 광시성 계평에서 《상제회》라는 비밀조직을 뭇고 상제교를 내놓았다.

상제회는 상제앞에서 모든 사람은 평등하며 재산상의 불평등이 없어야 하며 만청봉건통치를 뒤집어엎어야 한다고 설교하였다.

상제회의 선전은 만청통치에 시달릴대로 시달린 인민대중속에 급속히 전파되였다. 만단의 준비를 갖춘 홍수전은 1850년 7월 광서성 계평현 금전촌에서 무장폭동을 일으켰다.

폭동자들은 1851년 1월 정식으로 《태평천국》의 건립을 선포하고 청나라정부군을 격파하면서 북으로 진공하였다.

홍수전은 처음에 1만명의 농민군을 거느리고 도처에서 만청군을 격파하였다. 1851년 9월에 몽산현 영안을 점령하고 1852년 11월에 악주를, 1853년 1월에는 우한을 해방하였다.

3월 19일에는 난징을 해방하고 이곳을 《태평천국》의 수도로 정하였다. 난징을 점령하였을 때 태평군의 수는 벌써 100만에 달하였다.

태평군이 이처럼 큰 성과를 이룩할수 있은것은 광범한 농민, 수공업자대중이 농민군에 합류하였으며 또한 초기에는 태평군의 규률이 강하여 전쟁시기에도 인민들의 생명재산을 해치지 않은데 있었다.

《태평천국》은 일련의 반봉건적인 사회경제적시책들을 실시하였다.

《태평천국》이 1853년에 제정한 《천조전무제도》에 관한 법령은 봉건적지주토지소유제도를 청산하고 농민들에게 토지를 골고루 분배하려고 시도한것으로서 농민대중을 반봉건투쟁에로 불러일으키는데 크게 작용하였다.

《태평천국》은 수공업과 상업을 장려하는 정책도 실시하였다. 또한 아편을 금지하고 녀성들의 종살이와 전족제도(발을 졸라매는 악습)를 없애는 등 여러가지 반봉건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이러한 시책들은 봉건통치배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었으며 농민들을 크게 고무하였다.

태평군이 정부군과 치렬한 전투를 벌리고있을 때 《태평천국》지도층안에서는 점차 알륵과 충돌이 발생하였다. 홍수전을 비롯한 지휘자들은 점차 변질하여 세력다툼과 부화방탕으로 세월을 보내면서 국가질서와 태평군의 규률을 문란시켰다.

이러한 때인 1863년 여름 미영침략자들과 청나라정부군이 합세

하여 《태평천국》의 수도 난징을 공격해왔다. 적들의 포위로 난징은 식량난에 봉착하였으며 정세는 위태로와졌다.

그러나 30만에 달하는 태평군은 난징이 강점될 때까지 투항하지 않고 용감히 싸웠다.

100여만의 농민대중이 무장을 들고 14년간이나 진행한 《태평천국》농민전쟁은 실패하였다.

《태평천국》농민전쟁이 실패하게 된 주요원인은 무엇보다도 투쟁을 승리에로 이끌수 있는 강력한 지도력량이 준비되여있지 못한데 있었다.

《태평천국》농민전쟁을 지도한 홍수전 등은 정확한 지도사상은 물론 명확한 투쟁목표와 그 수행방도를 제기하지 못하였다.

또한 그들은 승리에 자만하여 난징에 주저앉아 적의 소굴인 베이징공격을 게을리하였다.

이것은 《태평천국》지도층이 범한 큰 실책의 하나였다.

《태평천국》농민전쟁이 실패하게 된 다른 하나의 원인은 청나라정부군과 결탁한 외래자본주의침략자들이 농민들의 투쟁을 악랄하게 방해하였기때문이다.

인민대중이 혁명에서 승리하자면 제국주의침략을 반대하는 투쟁과 국내착취계급을 반대하는 투쟁을 밀접히 결합하여 진행해나가야 한다는것이 《태평천국》농민전쟁이 남긴 력사적교훈이다.

《태평천국》농민전쟁은 실패하였으나 중국력사에서 큰 의의를 가지였다.

이 전쟁은 중국력사상 최대의 농민전쟁으로서 종래의 농민폭동과는 달리 농민대중의 반봉건반침략투쟁이였다.

《태평천국》농민전쟁은 비록 청나라봉건통치제도를 전복하지는 못하였지만 그에 커다란 타격을 주었으며 이후 중국인민의 민족해방투쟁을 크게 고무하였다.

※ 40여년간 청나라를 지배한 서태후

만저우족의 하급관리가정에서 출생한 서태후(1835년－1908년)는 18살때청나라 함풍황제(문종)의 첩으로 되여 점차 실권을 틀어쥐기 시작하였다. 황제가 죽자 6살 나는 아들을 황제자리에 앉히고 황제의 본처와 함께 정치를 하였다.

본처가 왕궁 동쪽에 거처하였기때문에 동태후라 하였고 그가 서쪽 평안실에 있었으므로 서태후라고 하였다.

서태후는 1862년부터 죽을 때까지 40여년동안 청나라왕실을 거머쥐고 온갖 죄악을 다 저질렀다.

자기의 반대파들을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하여 무자비하게 제거하였으며 지어 자기 아들까지도 없애치우는것을 서슴지 않았다.

그는 이화원(별궁)에 들어앉아서 중국인민을 도탄속에 몰아넣었으며 자본주의침략자들에게 아부굴종하고 중국에 식민지화의 위기를 조성한 장본인이였다.

당시 서유럽자본주의나라들에서도 서태후에 대하여 《늙은 부처》라는 별명으로 알려져있었다.

제3절. 1911년 중국부르죠아혁명

1. 혁명정세의 성숙

20세기초에 들어서면서 제국주의렬강들의 중국침략이 더욱 강화되였다.

영국침략자들은 상하이, 샹강 등지에 방직공장, 사탕공장, 담배공장 등을 차려놓았으며 상하이를 중심으로 하는 창강류역일대에서 경제적지배권을 빼앗아내려고 날뛰였다.

특히 미제는 장차 중국을 본격적으로 침략할 목적밑에 종교문화적침투를 강화하였다. 수천명의 미국선교사들이 기여들어 중국인민들속에 친미, 숭미사상을 퍼뜨리였다.

도이췰란드, 프랑스, 짜리로씨야도 중국에 대한 침략을 집요하게 감행하였다.

청나라봉건통치배들은 외래침략자들과 체결한 예속적조약과 막대한 차관에 의한 온갖 부담을 인민들에게 들씌웠다.

그리하여 농민들과 도시수공업자들은 날이 갈수록 령락되였으며 인민생활은 도탄에 빠졌다. 청나라통치배들과 외래제국주의침략자들에 대한 중국인민의 증오심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민족적 및 계급

적모순과 대립이 더욱더 날카로와졌다.

이러한 모순으로 자주성을 위한 중국인민의 혁명투쟁의 시기가 성숙되여가고있었다.

이 시기에 중국국내와 해외에서 민족부르죠아지들의 정치활동이

적극화되기 시작하였는데 그 대표적인물이 쑨중산(1866년－1925년)이였다.

쑨중산(손문)은 1894년에 하와이의 호노룰루에서 20여명의 화교들로 부르죠아민족주의단체인 《흥중회》를 조직하였다.

《흥중회》는 점차 일본에서 살고있던 화교들속에까지 자기 세력을 확대하였다.

한편 중국국내의 민족부르죠아지들은 1904년에 쟝쑤, 저쟝 등지에서 《광복회》, 《화흥회》를 조직하고 활동하였다.

1905년 7월 쑨중산은 도꾜에서 《흥중회》, 《광복회》, 《화흥회》를 통합하여 《동맹회》를 결성하고 그 회장으로 선출되였다.

쑨중산은 《동맹회》선언에서 청나라왕조를 전복하고 부르죠아공화국을 수립하기 위하여 투쟁하는것을 강령으로 제기하였다. 그는 《동맹회》의 강령에 기초하여 민족주의, 민권주의, 민생주의로 구성된 《삼민주의》를 내놓았다.

《삼민주의》는 청나라의 전복과 부르죠아공화정치의 실현, 토지문제의 해결 등 일련의 진보적인 요구를 담고있었다.

《동맹회》는 1905년 11월에 기관지 《민보》를 발간하여 부르죠아혁명사상을 선전하였다. 이로부터 《동맹회》는 중국부르죠아혁명의 중심세력으로 되였으며 그 강령은 혁명의 목표로 되였다.

2. 신해혁명의 폭발과 청왕조의 전복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착취와 압박이 있는 곳에서는 반드시 인민들의 혁명투쟁이 일어나는 법이며 압제자들의 폭압이 강화될수록 그에 항거하는 인민들의 투쟁은 더욱 조직화되고 완강하여지는 법입니다.》

외래제국주의세력과 그와 결탁한 국내봉건통치배들의 참을수 없는 민족적모욕과 멸시, 착취와 압박을 받아온 중국인민은 마침내 혁명투쟁에 떨쳐나섰다.

1911년(신해년) 10월 10일 밤에 우창주둔군대들이 《동맹회》의 지도밑에 폭동을 일으켰다. 이것은 신해혁명의 시작으로 되였다.

폭동군은 우창시내의 관청들을 점령하고 지도기관으로서《중화민국군정부》를 조직하였다. 당시 폭동군을 《민군》이라고 불렀다.

폭동군의 기본력량은 농민들과 도시빈민들, 로동자들이였으며 중소부르죠아지들도 참가하였다.

우창폭동을 신호로 하여 전중국각지에서 련이어 폭동이 일어났다.

폭동은 전국에로 확대되여 1911년 11월 중순까지 전중국의 3분의 2이상인 15개 성이 청나라통치에서 떨어져나와 독립을 선포하였다.

다음해 1월 1일에는 난징에서 쑨중산을 림시대총통으로 하는 중화민국림시정부수립을 선포하였다.

한편 멸망의 위기에 다달은 청통치배들은 한족출신의 군벌두목인 위엔스카이에게 정권을 넘겨주고 그를 리용하여 혁명을 말살하려고 책동하였다.

권력야심가인 반동군벌 위엔스카이는 혁명을 짓누르고 자기가 황제가 되려고 하였다.

쑨중산은 위엔스카이가 황제를 내쫓고 공화국의 수립을 승인한다면 그에게 대총통자리를 넘겨줄것이라고 하였다.

정권야욕에 미친 흉악한 위엔스카이는 청나라황제를 내쫓고 공화국의 수립을 《지지》하는것처럼 가장해나섰다.

청나라황제의 퇴위로써 청나라왕조는 전복되고 봉건군주제도는 끝장났다.

3. 혁명의 실패

1912년 2월 중순 청나라황제가 물러나는것을 본 쑨중산은 남북의 분렬과 전쟁을 두려워한 나머지 무원칙하게 위엔스카이에게 대총통자리를 넘겨주었다.

이리하여 혁명의 열매는 반혁명적군벌의 수중으로 넘어가게 되였다.

이것은 쑨중산과《동맹회》의 엄중한 과오였다. 결국 혁명으로 전취한 정권을 북쪽의 대지주, 군벌들에게 고스란히 넘겨줌으로써 혁명은 실패하였다.

위엔스카이는 대총통자리에 올라앉자마자 혁명력량을 탄압하기 시작하였다.

1912년 4월 위엔스카이는 중화민국정부를 혁명의 중심지인 난징으로부터 반혁명의 소굴인 베이징으로 옮겼다.

위엔스카이는 1915년 12월 자기를 황제로 선포하고 새 왕조를 세우려고 하였다. 그러나 인민대중의 강력한 항거에 부딪쳐 실현하지 못하고 1916년 6월에 울화병으로 죽고말았다.

이와 같이 신해혁명은 청왕조의 전복으로 그치고 반봉건적과업을 완수하지 못한채 도중에서 실패하고말았다.

《신해혁명》은 심각한 교훈을 남기였다.

무엇보다도 혁명투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지도자의 옳바른 령도를 받아야 한다는것을 보여주었다.

다음으로 반혁명세력을 때려부시고 혁명의 승리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혁명력량의 결정적우세를 보장해야 한다는것을 보여주었다.

1911년 부르죠아혁명(신해혁명)은 실패하였으나 2 000년동안이나 중국을 지배해오던 봉건군주제를 전복함으로써 중국력사발전에서 긍정적의의를 가지였다.

제4절. 영국의 인디아강점과 시파이폭동

1. 영국의 인디아강점과 략탈

16세기말-17세기초에 인디아는 모골제국의 지배밑에서 수많은 봉건공국으로 분렬되여 서로 싸우고있었다.

유럽식민주의자들은 이 기회를 리용하여 인디아침략에 본격적으로 달라붙기 시작하였다.

인디아침략의 앞장에 선것은 영국식민주의자들이였다.

일찍부터 동방나라들에 대한 침략과 략탈에 이골이 난 영국식민주의자들은 1600년에 침략적이고 략탈적인 영국 《동인디아회사》를 조작하였다.

이 회사는 단순한 무역회사가 아니라 인디아에 대한 침략과 략탈의 도구였다.

1693년에 첸나이를 강점한 영국식민주의자들은 뒤이어 뭄바이, 콜카타를 강점하고 그를 인디아침략을 위한 근거지로 만들었다.

이 시기 네데를란드, 뽀르뚜갈, 프랑스식민주의자들도 인디아에 침입하였으나 영국과의 경쟁에서 모두 밀려나고말았다.

영국식민주의자들은 교활하고 비렬한 방법으로 인디아의 여러 공국들을 정복하기 시작하였다.

영국침략자들은 인디아에 존재한 여러 공국들사이에 리간을 조성시켜 서로 싸우게 하는 방법으로 공국들을 하나하나 정복하였다.

또한 영국침략자들은 인디아에서 힌두교와 이슬람교의 대립과 분쟁, 카스트제도에 의한 분쟁을 교묘하게 리용함으로써 인디아인민이 반영투쟁에서 단결하지 못하도록 책동하였다.

영국침략자들은 또한 시파이군(인디아인들로 무어진 군대)을 조직하여 인디아의 여러 공국들을 정복하는데 앞장 세웠다.

이리하여 영국은 18세기 중엽부터 19세기 중엽에 이르는 기간에 걸쳐 벵갈공국, 마이쑤르공국, 마라트공국들을 차례로 정복할수 있었다.

1864년 2월 쏘브란전투에서 씨크공국의 병사들이 패전함으로써 영국은 최종적으로 인디아정복을 끝내였다.

영국《동인디아회사》는 대외무역과 국내상업을 독점하고 인디아인민들의 피땀을 짜냈으며 소금, 담배 등의 전매제도를 실시하여 엄청난 돈벌이를 하였다.

영국식민주의자들은 인디아의 모든 땅을 영국왕의 소유로 선포하고 이전에 인디아봉건령주들이 농민들로부터 수탈하던것보다 2배나 되는 땅세를 빼앗아갔다.

또한 자본주의적영국상품이 물밀듯이 쓸어들어 인디아시장을 뒤덮은 결과 100만명을 헤아리던 인디아수공업자들이 거의다 파산몰락하였다.

영국식민주의자들의 가혹한 착취와 략탈로 인하여 인디아에서는 해마다 수백만명의 인민들이 굶어죽었다.

살길이 막힌 인디아인민들은 영국식민주의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에 과감히 떨쳐나섰다.

2. 시파이폭동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자주성을 생명으로 하는 사람이 자기의 자주성이 침해당하는것을 반대하여 투쟁하는것은 응당한것입니다.》

1857년－1859년 기간에 인디아인민들은 영국식민주의자들을 반대하여 전민족적인 폭동을 일으켰다.

이 폭동을 시파이폭동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폭동의 주되는 력량이 시파이군이였던것과 관련된다.

폭동전 시파이들은 영국식민주의자들에 의하여 참을수 없는 민족적모욕과 멸시를 당하였다.

영국장교들은 시파이들을 노예처럼 부려먹었으며 조금이라도 반항하는 경우에는 닥치는대로 때리고 무참히 살해하였다. 영국침략자들에 대한 시파이들의 증오심과 분노는 날을 따라 높아갔다.

시파이폭동은 1857년 5월초 미르트주둔 시파이련대의 폭동으로부터 시작되였다.

5월 10일 밤 미르트주둔 시파이들은 영국장교들을 쏴죽이고 시내로 쳐들어가 도시인민들과 힘을 합쳐 영국식민지기관들을 습격하였다.

시파이들은 앙양된 기세를 늦추지 않고 그길로 델리를 향하여 진격하였다.

델리를 점령한 시파이부대들은 모골제국의 마지막황제였던 바하두르샤흐2세를 인디아황제로 선포하고 델리정부를 조직하였다.

델리에서 폭동소식에 접한 북부인디아의 인민들도 반영폭동에 일떠섰다.

영국침략자들은 농민폭동이 일어나자 시파이부대를 폭동진압에 내몰았다.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폭동군편으로 넘어와 영국장교들을 처단하였다.

시파이폭동과 농민들의 투쟁기세에 질겁한 영국침략자들은 사방으로 황급히 도망쳤다.

미르트시파이들의 폭동을 도화선으로 하여 시작된 인디아인민의 반영투쟁은 넓은 지역으로 급속히 확대되여갔다.

그러나 각지에서 일어난 폭동들은 처음부터 많은 제한성을 가지

고있었다. 그것은 폭동군중이 폭동의 지휘권을 봉건령주들에게 내여 맡긴것이였다.

투쟁의 지휘권을 쥔 봉건령주들은 자기의 계급적본성으로부터 전국적범위에서 독립을 찾으려는 생각은 하지 않고 저들의 옛 령지를 다시 찾으려는데만 몰두하였다.

일시적승리에 자만한 시파이부대 지휘관들은 영국침략군이 둥지를 틀고있던 뭄바이, 콜카타, 첸나이에 대한 공격을 하지 않고 헛된 시간만 보내였다.

1857년 5월부터 영국식민주의자들은 무력을 대대적으로 증강하여 공격을 시작하였다.

5월말에 첸나이를 떠난 영국침략군은 알라하바드에 침입하여 6 000여명의 폭동군과 인민들을 야수적으로 학살하였으며 파괴와 략탈을 감행하였다.

7월에는 칸푸르가 영국침략군에게 강점당하였으며 여기에서만도 1만여명의 시민들이 적들에게 학살되였다.

영국침략자들은 9월 중순에 중무기로 무장한 1만 1 000여명의 대병력으로 델리성을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치렬한 시가전끝에 델리시는 영국침략군에게 점령되고말았다.

영국침략자들은 델리에서 포로한 폭동군들을 톱으로 켜서 죽이고 대포의 아구리에 얽어매고 포로 쏘아죽이는 등 온갖 야수적만행을 감행하였다.

델리에서만도 수만명의 인민들이 학살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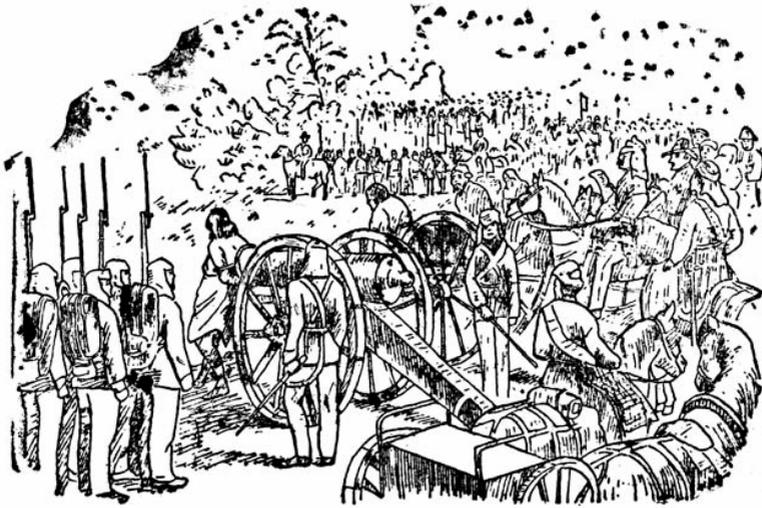
델리를 점령한 영국침략자들은 계속하여 라크나우를 공격하여 1858년 3월에 이 도시를 강점하였다.

그후 1859년까지 유격전의 형식으로 반영폭동은 계속되였으나 결국 실패로 끝났다.

시파이폭동이 실패한 중요한 원인은 폭동의 지도부를 장악하였던 봉건령주들과 시파이장교들의 무능력과 배신행동에 있었다.

시파이폭동이 실패한 원인은 다음으로 종교적대립과 지방적분산성에 있었다.

영국식민주의자들은 인디아인민들속에 강하게 지배되고있던 종교의식을 리용하여 힌두교도와 이슬람교도들이 서로 싸우도록 조장시켰다.

시파이폭동은 실패하였으나 영국의 식민지통치에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시파이들에 대한 야수적학살

이 폭동은 인디아력사상 가장 크게 벌어진 대중적인 반영투쟁으로서 이후 인디아인민의 민족해방투쟁발전에 고무적영향을 주었다.

제 5 장. 국제공산주의운동, 빠리꼼뮨

제1절. 맑스주의의 발생, 《공산당선언》

1. 맑스주의의 발생

맑스주의는 국제로동계급의 수령들인 맑스와 엥겔스에 의하여 19세기 40년대에 창시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19세기중엽에 맑스와 엥겔스는 맑스주의를 내놓음으로써 투쟁무대에 등장한 로동계급의 력사적사명과 해방의 앞길을 밝혀주고 자본을 반대하는 투쟁을 추동하였으며 국제공산주의운동의 시원을 열어놓았습니다.》

로동계급은 자본주의의 발생과 함께 력사무대에 등장하였다.

로동계급은 력사무대에 등장한 첫날부터 자본가들의 착취와 압박을 반대하는 투쟁을 끊임없이 벌려왔다.

로동계급이 독자적인 정치세력으로 자본주의제도를 때려엎기 위한 투쟁을 벌리기 시작한것은 19세기 30년대부터였다.

1831년 11월 프랑스의 리옹방직공장 로동자들은 손에 무기를 잡고 정부군과 치렬한 싸움을 벌려 며칠동안 리옹시의 주권을 쥐기까지 하였다.

1834년에도 리옹방직공들은 폭동을 일으키고 붉은기를 휘날리면서 치렬한 시가전을 벌렸다.

1844년에는 도이췰란드의 실레지아방직공들이 자본가들의 착취와 억압을 반대하여 폭동을 일으켰다.

이 시기 영국로동계급은 전국적범위에서 선거권을 위한 대중적투쟁을 벌리였다.

그들은 자본주의제도와 부르죠아의회의 반동적본질을 인식하지 못한데로부터 로동자대의원을 의회에 선출하면 의회와 정부가 로동자들을 위한 정치를 할수 있을것이라고 잘못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1837년—1848년 기간에 3차에 걸쳐 선거권과 피선거권

을 요구하는 헌장(챠터)을 만들어 의회에 제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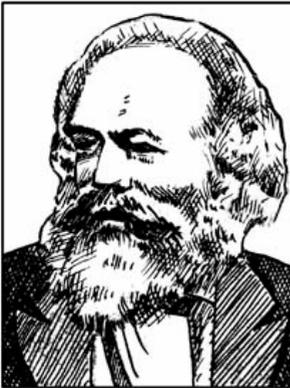
이것을 챠티스트운동이라고 한다.

그러나 로동계급의 투쟁은 반동정부의 탄압으로 모두 실패하였다.

원인은 이 시기의 로동운동이 과학적인 혁명리론에 의하여 지도되지 못한데 있었다.

현실은 혁명투쟁을 승리에로 이끌수 있는 혁명리론을 절실히 요구하였다.

과학적공산주의사상인 맑스주의는 도이췰란드의 칼 맑스(1818년—1883년)와 프리드리히 엥겔스(1820년—1895년)에 의하여 창시되였다.

1842년에 맑스는 라인신문사에서 일하다가 후에 이 신문의 주필로 되였다.

맑 스

엥 겔 스

그는 《라인신문》을 통하여 프로씨아반동정부를 반대하는 투쟁을 벌리다가 정부의 박해를 받고 프랑스의 빠리로 가서 활동하였다.

이 시기 맑스는 로동계급만이 인류를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할수 있는 혁명적인 계급이라는것과 자본가계급을 반대하여 싸워야 한다는 사상을 내놓았다.

엥겔스도 청년시절부터 프로씨아반동정부를 반대하여 투쟁하였다.

엥겔스는 영국에 가서 활동하면서 로동계급만이 압박받고 착취당하는 인민들을 해방할수 있는 가장 선진적인 계급이라고 보았다.

1844년에 맑스와 엥겔스는 빠리에서 만났다.

이때부터 그들은 혁명전우로서 자기들의 일생을 로동계급의 해방과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에 바쳤다.

맑스주의가 창시됨으로써 로동계급은 비로소 자기의 과학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사회발전의 법칙을 알게 되였으며 새 사회를 건설하는 앞길을 내다보게 되였다.

2. 《공산당선언》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맑스는 공산주의자동맹을 내오고 엥겔스와 함께 〈공산당선언〉을 작성하여 세상에 발표함으로써 로동계급이 과학적인 강령을 가지고 혁명적당의 령도밑에 투쟁해나가는 공산주의운동의 시초를 열어놓았다.》

맑스와 엥겔스는 과학적사회주의를 창시하고 그것을 로동운동과

결합시키며 혁명적당을 창건하기 위하여 정력적으로 활동하였다.

맑스와 엥겔스는 1847년 6월 《정의자동맹》을 개조하여 력사상 처음으로 되는 공산주의조직인 《공산주의자동맹》을 창건하였다.

맑스와 엥겔스는 이 동맹의 규약을 작성하였는데 여기에서 동맹의 목적은 자본주의제도를 뒤집어엎고 새로운 사회주의사회를 건설하는데 있다고 규정하였다.

맑스와 엥겔스는 동맹의 강령으로서 《공산당선언》을 썼다.

《공산당선언》은 공산주의사회건설에서 나서는 기본문제들을 서술한 국제공산주의운동의 첫 강령적문헌이였다.

《공산당선언》은 1848년 2월에 출판되여 곧 여러 나라 말로 번역되였다.

《공산당선언》은 4개의 장으로 구성되였는데 여기에는 새로운 공산주의사상의 기본내용이 서술되여있다.

《공산당선언》은 우선 인류력사는 노예사회, 봉건사회, 자본주의사회, 사회주의사회로 발전하며 사회발전법칙에 따라 자본주의사회는 반드시 멸망한다는것을 증명하였다.

선언에서는 또한 공산당이 로동계급의 가장 우수한 선진분자들로 조직된 전위부대라는것, 당의 당면한 투쟁목적은 자본가계급을 때려부시고 정권을 쟁취하는데 있다고 하였다.

선언은 특히 로동계급이 자본가계급을 때려부시고 국가정권을 잡아야 한다는 사상을 내놓았다.

맑스와 엥겔스는 선언의 마지막부분에서 공산주의혁명에서 로동

계급이 잃을것은 노예의 쇠사슬뿐이며 얻을것은 전세계이라고 격조높이 호소하였다.

선언은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는 전투적구호로 끝을 맺었다.

《공산당선언》은 유럽로동계급이 자본가계급과의 판가리싸움을 준비하고있던 시기 그들에게 투쟁의 앞길을 밝혀준 기치로 되였다.

제2절. 로동계급의 첫 정권－빠리꼼뮨

1. 1871년 3월18일혁명, 꼼뮨의 선포

1860년대말-1870년대초 프랑스에서는 반동통치배들의 반인민적인 정책으로 하여 사회계급적모순이 첨예화되였다.

특히 1870년 7월부터 1871년까지 진행된 프로씨아와의 전쟁에서 거듭되는 패전은 근로인민대중의 생활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정권을 장악한 부르죠아지들은 고의적으로 전선형편을 악화시키면서 프로씨아침략자들에게 투항하려고 하였다.

부르죠아반동정부는 1871년 1월 50억FF(프랑)의 배상금과 알사스와 롤렝지방을 넘겨주기로 하고 프로씨아와 굴욕적인 강화조약을 체결하는 반역행위를 감행하였다.

프로씨아와 강화조약을 체결한 반동정부는 빠리시민들의 혁명투쟁을 진압하는데로 나아갔다.

프랑스반동들은 1871년 3월 18일 새벽에 빠리시민들이 프로씨아침략군과 싸우기 위하여 조직한 국민근위대의 대포들을 빼앗으려고 2개 대대의 병력을 몽마르뜨고지에 침입시켰다.

정부군병사들이 몽마르뜨고지의 대포를 끌어내리려고 할 때 격노한 빠리시민들과 녀성들이 병사들의 앞길을 막아나섰다.

그들은 정부군병사들에게 민족반역자들의 명령을 거부하고 인민의 편에 돌아설것을 호소하였다.

이에 감동된 정부군병사들은 악질장교들을 쏘아죽이고 빠리시민들의 폭동에 합류하였다.

3월 18일 낮부터 국민근위대를 비롯한 전체 빠리시민들은 정부

청사를 비롯한 모든 정권기관들을 점령하고 붉은기를 휘날렸다.

반혁명도당은 베르사이유로 황급히 도망쳤으며 빠리의 모든 주권은 빠리시민들의 손에 장악되였다.

그후 빠리에서는 꼼뮨선거가 진행되였다.

선거된 꼼뮨위원은 모두 86명이였고 그가운데는 로동자대표들과 함께 《인터나쇼날》을 창작한 에쮄 뽀띠에를 비롯한 1국제당 성원들도 들어있었다.

3월 28일 빠리시민들의 열광적인 환호속에 꼼뮨이 선포되였다.

꼼뮨은 세계력사상 처음으로 수립된 로동계급의 정권형태였다.

빠리꼼뮨의 선포

2. 꼼뮨의 사회적시책

꼼뮨은 프로씨아침략군에게 포위된 어려운 조건에서도 인민을 위한 시책을 실시하였다.

꼼뮨은 우선 자본가계급에게 복무하던 낡은 군대와 국가기관을 없애버리고 인민을 위해 복무할수 있는 새로운 군대와 국가기관을 내왔다.

꼼뮨은 실업자들에게 일자리를 보장해주었으며 자본가들의 공장, 기업소들을 로동자들에게 넘겨주어 운영하게 하였다.

꼼뮨은 또한 자본가들의 집을 로동자들에게 주었으며 가난한 사람들의 모든 빚과 세금을 연기시키거나 페지하였다.

그밖에도 꼼뮨은 야간로동을 금지시키고 로동자들의 임금을 올리였으며 특히 교원들을 우대하였다.

꼼뮨은 교육사업에도 큰 관심을 돌렸으며 교회를 반대하여 투쟁하였다. 또한 박물관, 극장, 도서관, 공원들이 인민에게 복무하도록 조치를 취하였다.

꼼뮨은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에도 충실하였다.

그러나 꼼뮨의 시책들은 일련의 부족점도 있었다.

꼼뮨은 자본가계급의 은행과 철도를 장악하지 않았으며 특히 초기에는 혁명의 원쑤들을 무자비하게 처단하지 않았다.

이것은 그후 꼼뮨을 공고히 하는데 커다란 해독적영향을 미쳤다.

3. 빠리꼼뮨의 실패

빠리의 로동계급에게 쫓기여 베르사이유로 도망친 부르죠아지들은 프로씨아침략자들과 결탁하여 로동계급의 정권인 빠리꼼뮨을 없애버리려고 하였다.

프랑스혁명의 영향이 도이췰란드에 미칠것을 겁낸 프로씨아침략자들은 10만의 프랑스포로병과 많은 무기들을 베르사이유의 띠에르도당에게 넘겨주었다.

5월 20일 반혁명세력은 빠리꼼뮨에 대한 총공격을 시작하였다.

꼼뮨용사들과 로동자들은 자기의 정권을 피로써 지켜싸웠다.

1만여명의 녀성로동자들도 시가전에 참가하여 용감히 싸웠다.

《5월의 피의 주간》으로 불리운 5월 21일부터 28일까지의 기간에 빠리의 영웅적로동계급과 시민들은 13만명이나 되는 반혁명무력의 공격을 맞받아 영웅적으로 싸웠다.

5월 24일－26일에 《공화국광장》에서 적과의 치렬한 격전이 벌어졌다.

27일에는 꼼뮨의 마지막거점인 뷰스뜨－쇼몽(북쪽)과 뻬에르－라쉐즈(남쪽)에서 최후결전이 벌어졌다.

28일에 뻬에르－라쉐즈묘지에서는 꼼뮨의 마지막용사 300명이 최후의 한 사람이 희생될 때까지 용감히 싸웠다.

빠리꼼뮨이 실패한 후 띠에르도당은 로동자들을 야수적으로 학살하였다.

띠에르도당들은 수많은 꼼뮨용사들과 로동자들은 물론 녀성들과 로인들, 아이들 할것없이 다 총살하였다.

빠리의 거리는 혁명전사들의 붉은 피로 적시여졌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빠리꼼뮨이 실패하게 된 중요한 원인은 자체의 혁명력량을 튼튼히 준비하지 못한데 있습니다.》

꼼뮨은 혁명적당의 령도를 받지 못한데로부터 자체의 력량을 튼튼히 준비하지 못하였다.

빠리꼼뮨이 남긴 력사적교훈은 무엇보다도 로동계급이 혁명투쟁에서 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자기의 탁월한 수령과 혁명적당의 령도를 받아야 한다는것이다.

빠리꼼뮨이 남긴 력사적교훈은 또한 로동계급이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근로인민대중을 튼튼히 묶어세워야만 반혁명세력을 성과적으로 때려부실수 있다는것을 보여주었다.

빠리꼼뮨은 비록 실패하였으나 력사상 처음으로 수립된 로동계급의 정권으로서 자본주의에 심대한 타격을 주었으며 전세계로동계급을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하였다.

제3절. 국제당의 활동, 수정주의의 발생

1. 제1국제당

《공산당선언》이 세상에 나온 후 세계 여러 나라 로동자들의 계급적각성이 더욱 높아지고 그에 따라 로동운동이 급속히 장성하기 시작하였다.

맑스와 엥겔스는 로동운동발전의 절박한 요구를 제때에 포착하고 로동계급의 국제적중앙조직을 창설하기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벌리였다.

1864년 9월 28일 런던에서는 유럽 여러 나라 로동자대표들의 모임이 있었다.

회의에서는 맑스의 지도밑에 국제자본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성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서는 로동계급의 국제적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국제로동자협회》(인터나쇼날)를 창건하였다. 이를 그 후에 제1국제당이라고 불렀다.

맑스는 제1국제당 창립선언과 규약을 작성하였다.

선언에서 맑스는 자본주의가 발전하면 할수록 로동자와 자본가간의 계급투쟁은 더욱더 심화된다는것을 론증하였다. 그러면서 자본가들의 정권을 빼앗는 문제가 로동계급앞에 나서는 최대의 임무로 된다는것을 밝혔다.

계속하여 정권을 잡기 위한 투쟁은 반드시 조직적이여야 하며 당의 령도를 받아야 승리할수 있다는것을 지적하였다.

창립대회는 지도기관으로서 총무위원회를 선거하였다.

제1국제당이 창건됨으로써 로동계급은 국제적련대성을 강화하면서 혁명투쟁을 더욱 적극적으로 벌려나갈수 있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맑스주의는 온갖 부르죠아반동사상과 기회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속에서 발전되고 풍부화되여왔습니다.》

맑스주의가 창시된 후 국제공산주의운동안에서는 맑스주의와 반대되는 부르죠아사상과 온갖 기회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이 힘차게 벌어졌다.

당시 제1국제당안에서 주되는 기회주의는 프루동주의와 바꾸닌

주의였다.

프랑스의 프루동을 두목으로 한 프루동주의자들은 로동계급의 정치투쟁과 폭력투쟁을 반대하고 국제당의 활동을 협동조합운동에 머물게 하려고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로씨야의 바꾸닌을 비롯한 바꾸닌주의자들은 모든 국가를 무조건 없애야 한다고 떠벌이면서 로동계급이 정권을 잡기 위한 혁명투쟁을 다 반대하였다.

맑스, 엥겔스와 그를 지지한 국제당성원들은 제1국제당의 여러 대회들에서 바꾸닌주의자들의 반당, 반혁명적책동을 폭로규탄하고 그들을 국제당에서 내쫓는 단호한 조치를 취하였다.

이와 같이 국제로동운동안에 나타난 온갖 기회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통하여 맑스주의는 그 진리성과 생활력이 발휘되였으며 로동운동에서 점차 지도사상으로 되게 되였다.

제1국제당은 맑스주의를 보급하고 혁명운동을 발전시키는데서 커다란 역할을 수행하고 1876년에 해산되였다.

2. 제2국제당

제1국제당이 해산된 후 여러 나라들에서는 로동운동이 빨리 발전하였다.

1875년에 도이췰란드사회민주당이 창건되고 프랑스, 벨지끄 등 여러 나라들에서도 로동계급의 당들이 나왔다.

그러나 방금 창건된 당들은 핵심들이 준비되여있지 못한데다가 기회주의자들의 책동으로 하여 난관을 겪고있었다. 그러므로 새로 창건된 당들을 조직사상적으로 튼튼히 꾸리고 여러 나라 로동계급들의 단결을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새로운 국제당을 내와야 하였다.

제2국제당은 1889년 7월 14일 프랑스 빠리에서 엥겔스의 지도밑에 창건되였다.

제2국제당 창립대회에서는 로동계급의 투쟁목적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실현하는데 있다는것을 밝히고 당 및 로동조합의 조직, 8시간로동제와 같은 당면한 민주주의적과업들을 내놓았다.

대회에서는 매해 5월 1일을 전세계로동계급의 국제적명절로 기념할것을 결정하였다.

제2국제당은 매해 정기적으로 소집되는 대회의 형식으로 조직되였다.

엥겔스의 지도밑에 제2국제당은 창건된 초기에 맑스주의를 보급하고 로동계급의 혁명력량을 강화하며 로동자당들사이의 련계를 강화하는데 이바지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수정주의는 맑스와 엥겔스가 세상을 떠난 다음 19세기말, 20세기초에 맑스주의의 탈을 쓰고 맑스주의의 혁명적본질을 개작하여나선 기회주의적조류로서 나타났습니다.》

엥겔스가 1895년에 서거한 후 제2국제당안에서는 기회주의자들이 머리를 쳐들기 시작하였다.

수정주의의 첫 대표자는 당시 도이췰란드사회민주당의 우두머리 베른슈타인이였다.

이자는 맑스와 엥겔스가 살아있을 때는 충실한 《맑스주의자》로 가장하였으나 그들이 서거한 다음에는 모든 가면을 벗어던지고 맑스주의를 《수정》하기 시작하였다.

여기로부터 이들의 기회주의를 수정주의라고 부르게 되였다.

베른슈타인은 제국주의시기에 와서는 자본주의사회의 모순이 점차 없어지기때문에 로동계급이 자본가계급을 반대하여 투쟁할 필요가 없어진다고 떠벌였다.

이로부터 그들은 맑스주의에서 기본내용을 이루는 계급투쟁과 프로레타리아독재를 반대하였다.

수정주의는 국제공산주의운동에 엄중한 후과를 미치였다.

기회주의자들의 책동으로 말미암아 제1차 세계대전시기 각국의 로동자들은 서로 맞총질을 하면서 싸우게 되였다.

이것은 제2국제당이 부르죠아지의 앞잡이로 굴러떨어졌다는것을 보여주었다.

제2국제당의 파산은 국제혁명운동에 심각한 교훈을 남기였다.

그 교훈은 무엇보다도 로동계급이 혁명투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수령의 혁명위업을 이어나갈 탁월한 후계자를 내세워야 한다는것이다.

제2국제당의 파산이 남긴 교훈은 다음으로 혁명운동안에 나타난 각종 기회주의사상을 반대하여 비타협적으로 투쟁해야 한다는것이다.

제 6 장. 제 1 차 세계대전

제1절. 제1차 세계대전의 원인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제국주의자들이 심각한 정치경제적위기를 겪을 때마다 침략전쟁을 일으켰다는것은 력사가 증명해주고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의 원인은 더 많은 식민지를 차지하기 위한 제국주의국가들사이의 모순이 격화된데 있었다.

19세기말에 이르러 세계는 자본주의렬강들에 의하여 완전히 토막나고말았다.

그런데 제국주의단계에 와서 자본주의국가들의 불균등적발전은 제국주의렬강들의 세력관계를 급속히 변화시키였다.

일찌기 자본주의발전의 길에 들어선 영국과 프랑스는 19세기말, 20세기초에 뒤떨어지고 뒤늦게 발전한 도이췰란드와 미국이 앞서나가게 되였다.

이것은 렬강들간의 모순을 날카롭게 하였다.

제국주의자들은 더 많은 식민지를 나누어가짐으로써 새로운 시장과 원료원천지를 획득하고 경제적으로 앞서나가려고 하였다.

제국주의자들은 저들의 침략적목적과 리해관계에 따라 서로 대립되는 두개의 군사동맹을 무었다.

도이췰란드를 축으로 하여 오스트리아—마쟈르, 이딸리아는 《3국동맹》을 무어 결탁하였고 영국, 프랑스, 로씨야는 《3국협상》을 형성하였다.

두편으로 갈라진 제국주의렬강들은 로골적으로 전쟁준비에 미쳐날뛰였다.

제1차 세계대전은 제국주의자들의 략탈적목적을 추구한 부정의의 전쟁이였다.

제2절. 제1차 세계대전의 폭발과 전쟁과정

제1차 세계대전의 직접적동기로 된것은 싸라예보사건이였다.

1914년 6월 오스트리아－마쟈르제국의 식민지인 보스니아의 수도 싸라예보에서 열병식이 있었다. 이것을 보러온 오스트리아－마쟈르제국의 황태자부부가 쓰르비아청년에게 저격당하여 죽었다.

도이췰란드의 부추김을 받은 오스트리아－마쟈르제국은 이 사건을 구실로 7월에 쓰르비아와의 전쟁을 선포하였다.

영제국주의자들은 8월 4일에 도이췰란드에 선전포고하였다.

전쟁은 인차 유럽의 테두리를 벗어나 15억에 달하는 인구를 가진 33개 나라가 휘말려든 세계적인 전쟁으로 확대되였다.

전쟁초기에 주요전선은 도이췰란드 대 프랑스, 영국, 벨지끄가 싸우고있는 서부전선과 도이췰란드 대 로씨야가 싸우고있는 동부전선이였다.

1915년 4월에 서부전선에서 도이췰란드군은 처음으로 독가스를 사용하여 1만 5 000명을 중독시켰다.

1915년 동부전선싸움에서 로씨야는 30만의 전사자를 포함하여 300만의 사상자를 내게 되였다.

1차대전에서 영국군이 처음으로 사용한 땅크

도이췰란드도 동부전선에 방대한 병력을 집중하였으나 막대한 손실을 당하였으며 동부전선을 완전히 장악하려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

1916년에 이르러 제국주의자들의 전쟁은 더욱더 치렬하게 벌어졌다.

1916년 전쟁에서 가장 큰 전투는 베르당전투와 쏨므강전투, 유틀랜드앞바다에서의 해전이였다.

도이췰란드군대는 1916년 2월 하순부터 프랑스의 베르당요새에 대한 총공격을 시작하였다.

베르당지역에서는 도이췰란드와 영, 프군대사이에 치렬한 공방전이 7개월간 계속되였다.

이 전투에서 쌍방은 70만의 병력을 잃었다.

영,프군대는 7월초부터 쏨므강연안에서 도이췰란드군에 대한 일대 공격전을 벌리였는데 이 전투는 제1차 세계대전중 가장 치렬한 격전이였다.

이 전투에서 영국군은 처음으로 땅크를 사용하였다.

5개월간 계속된 전투에서 도이췰란드는 80만명, 영,프측은 54만명의 무리죽음을 냈다.

그러나 이 전투에서도 량측간에 승패는 결정되지 않았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 가장 큰 해전은 유틀랜드 앞바다에서 벌어졌다.

이 전투에서 영국은 14척의 함선을, 도이췰란드는 11척의 함선을 잃었다.

1916년 전쟁행정에서 《동맹국》측에 비한 《협상국》측의 우세가 뚜렷해졌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량편이 다 지칠대로 지치고 《동맹국》측의 패전이 거의 명백해졌을 때인 1917년 4월에 《협상국》측에 가담함으로써 어부지리를 얻으려고 하였다.

이 시기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전쟁을 반대하는 인민들의 투쟁이 세차게 일어났다. 특히 로씨야의 로동계급과 병사들은 1917년 10월 사회주의혁명을 승리적으로 수행하고 전쟁에서 탈퇴하였다.

도이췰란드군은 1918년 3월-6월기간에 서부전선에서 3차례의 대공격작전을 감행하였으나 모두 실패하였다.

1918년 11월 도이췰란드의 킬항구에서 일어난 해병들의 폭동을 계기로 혁명은 전도이췰란드에 급속히 파급되였다. 그리하여 군주정권은 전복되였으며 도이췰란드는 《협상국》측에 항복하였다.

이로써 수억만 인류에게 헤아릴수 없는 고통과 재난을 가져다준 제1차 세계대전은 도이췰란드의 패배로 끝났다.

4년이상 진행된 제1차 세계대전에는 30여개 나라에서 7 400만의 군대가 동원되였으며 2 080억US$의 군사비가 탕진되였다.

또한 전쟁은 1 000만명의 전사자와 2 400만명의 불구자를 내였다.

그리고 전쟁기간에 1 000여만명의 사람들이 전염병과 굶주림으로 사망하였다.

이것은 제국주의자들에 의하여 감행된 침략전쟁의 직접적산물이였다.

전쟁이 끝난 후 전쟁에서 이긴 나라들사이에는 더 많은 식민지를 차지하기 위한 추악한 싸움이 벌어졌다.

1919년 1월 빠리교외에 있는 베르사이유궁전에서는 전쟁에서 이긴 27개 나라 대표들의 참가밑에 강화회의가 진행되였다.

베르사이유에 모인 제국주의자들은 제놈들의 략탈적이며 강탈적인 목적을 이룩하기 위하여 제멋대로 세계지도를 변경시키였으며 피압박민족들의 자주권을 유린하였다.

전후 도이췰란드는 복수주의길로 나갔다.

세계제패의 야망을 품은 흉악한 미제는 침략책동을 더욱 강화하였다.

제 7 장. 근대문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람은 로동과정에서 자연을 개조하는 귀중한 경험을 쌓을수 있으며 자기의 재능을 더욱 발전시킬수 있습니다.》

근대시기 인민대중은 자연을 개조하기 위한 창조적로동과정에 과학기술을 더욱 발전시켰으며 지배계급의 억압밑에서도 문화적재능을 키워나갔다.

1. 과학과 기술의 발전

과학과 기술은 유럽에서 부르죠아혁명이 승리한 후 산업혁명이 수행되면서 빨리 발전하였다.

산업혁명에 의하여 방직공업과 교통운수분야에서 큰 성과가 이룩된데 이어 자연과학분야에서 획기적인 전진이 있었다.

19세기에 수학과 물리학, 화학과 생물학을 비롯한 모든 자연과학에서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였다.

과학연구분야에서 이룩된 성과들은 사회를 전진시키며 자연개조사업을 촉진시키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수학분야에서 이룩된 성과의 하나는 영국사람인 뉴톤(1642년－1727년)과 도이췰란드사람인 라이프니쯔(1646년－1716년)의 연구에 의하여 미분적분학이 나오게 된것이였다.

이것은 수학은 물론 물리학을 비롯한 다른 자연과학의 발전에서도 획기적인 의의를 가지였다.

수학의 발전과 함께 물리학에서도 커다란 발전이 이룩되였다.

물리학자 렌트겐은 1895년에 렌트겐선을 발견하였다. 그가 발명한 보이지 않는 광선을 사람들은 발명가의 이름을 붙여 《렌트겐선》이라고 부르게 되였다.

렌트겐선의 발견은 그후 물리학과 의학발전을 크게 촉진시켰다.

19세기에 이룩된 과학발명가운데서 가장 큰 성과의 하나는 프랑스의 뀌리부부가 1898년에 라디움을 발견함으로써 원자에네르기리용의 길을 열어놓은것이였다.

이 시기 화학분야에서 이룩된 성과는 로씨야학자인 멘델레예브가

1869년에 처음으로 원소의 주기법칙을 발견하고 원소주기표를 만들어 내놓은것이였다.

생물학분야에서도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였다.

1665년에 네데를란드사람인 로버트 후크에 의하여 세포가 발견되였다.

세포의 발견과 세포설의 확립은 생명현상의 원리를 해명하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였다.

생물학분야에서 이룩된 또 하나의 성과는 1859년 영국사람 다윈이 진화론을 내놓은것이다.

다윈은 진화론에서 모든 생물체가 변화발전한다는것을 론증함으로써 자연에 관한 미신적인 견해를 뒤집어엎고 과학적인 인식을 할수 있게 하였다.

19세기 후반기에는 전기가 산업에 널리 리용되였으며 전차, 전화가 발명되고 1897년에 이딸리아인 마르코니에 의하여 무선전신의 연구가 완성되였다.

그밖에 현미경과 축음기 등도 발명되였다.

또한 이 시기에 영사기와 영화필림이 제작되여 영화상영이 시작되였다.

과학과 기술의 발전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연에 대한 과학적인 인식을 가지고 보다 더 적극적으로 세계를 개조해나갈수 있게 하였다.

2. 문학과 예술의 발전

근대문학의 중요한 특징은 자본주의사회에서 착취와 압박을 반대하고 사회적불평등을 폭로한 비판적사실주의문학과 광범한 인민대중을 투쟁에로 불러일으킨 혁명적민주주의문학조류들이 출현한것이다.

19세기말-20세기초 인디아의 이름난 시인 타고르는 자기의 작품들에서 신분제도를 반대하였으며 낡은 봉건유습을 비판하였고 녀성의 해방을 호소하였다.

또한 그는 영국식민주의자들을 반대하는 민족해방투쟁에로 인디아인민들을 불러일으켰다.

19세기 프랑스의 작가인 빅또르 유고(1802년－1885년)는 소설《레 미제라블》(버림받은 사람들)을 통하여 자본주의사회에서 천대받

는 인민들의 무권리하고 비참한 생활처지를 생동하게 보여주었다.

로씨야의 작가 레브 똘스또이(1828년－1910년)는 《전쟁과 평화》, 《부활》 등에서 자본주의사회의 거짓과 기만, 전제정치의 반동성을 폭로하였다.

로동운동이 발전하면서 19세기말～20세기초에는 프로레타리아문학이 창작되기 시작하였다.

프로레타리아문학작품가운데서 가장 유명한것은 꼼뮨참가자인 프랑스혁명시인 에젠 뽀띠에(1816년－1887년)가 지은 혁명적가요 《인터나쇼날》이다.

《인터나쇼날》은 자본의 철쇄를 짓부시고 착취와 압박이 없는 새 사회를 건설할데 대한 전세계로동계급과 피압박, 피착취인민대중의 혁명투쟁을 힘있게 고무하는 혁명가요이다.

프로레타리아문학의 선구자의 한 사람인 막씸 고리끼(1868년－1936년)는 장편소설 《어머니》를 통하여 계급의식이 낮았던 청년로동자 빠웰과 그의 어머니가 어떤 과정을 통하여 혁명가로 자라나는가 하는것을 진실하고 생동하게 보여주었다.

근대시기 건축과 조각, 회화와 음악도 발전하였다.

프랑스의 조각가 로단의 《생각하는 사람》, 로씨야의 화가 레삔의 《볼가의 배끌기군들》은 모두 당대의 가장 훌륭한 걸작품들이였다.

레삔은 《볼가의 배끌기군들》에서 배끄는 사람들의 힘겨운 로동과 착취자들에 대한 그들의 말없는 항거를 통하여 노예로동을 강요당하고있는 로씨야근로인민의 비참한 처지를 깊이 동정하였으며 그들의 고혈을 짜내는 착취계급의 략탈적본성과 비인간성을 비판하였다.

음악에서도 커다란 발전이 있었다.

종교적억압과 환상이 지배하던 중세기에 음악은 낮은 수준에 있었으나 근대초에는 이딸리아에서 가극이 생겨났고 대중가요와 함께 악보를 인쇄하여 음악교육이 활발히 진행되였다.

이와 함께 도이췰란드의 베토벤(1770년－1827년), 오스트리아의 슈베르트(1797년－1828년), 로씨야의 챠이꼽스끼(1840년－1893년)를 비롯한 수많은 음악가들이 나왔다.

근대음악의 특징은 중세의 귀족적음악에 비하여 대중적음악으로 발전한것이다.